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FREE ECONOMIC ZONES
10 YEARS HISTORY



대한민국 창조경제 100년을 준비하는 경제자유구역



윤 상 직

올해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그 해 10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에 이어, 금년 2월 동해안권과 충북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전 국토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외국인투자 68억 달러와 2천여 개의 기업·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으로, 그리고 성장을 견인하는 신형엔진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선구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을 꿈꾸면서 최고수준의 투자환경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산업의 전초기지, 첨단 인프라가 완비된 물류허브, 세계인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관광레저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치열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세계 각국 역시 글로벌 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정책도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인이 자유로이 왕래·소통·공유하는 만남의 장으로서, 창조경제의 성장 중심지로, 모든 기업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성장거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투자 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와 특성화,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중국의 푸둥신구,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두바이 등 여러 나라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하고 당당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물류, IT 및 바이오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향후 우리경제 100년을 이끌어 가는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이해와 협력입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가장 큰 밑돌이며, 국민들의 도움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제자유구역 10년사」에는 그간의 주요정책과 결과물들을 수집·정리하고, 창조경제
100년을 향한 방향과 각오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윤 상 직

Contents

제1장 경제자유구역의 태동과 발전

■ 제1절 21세기 세계경제와 경제자유구역	16
■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태동과 추진경과	19
1. 경제자유구역의 태동-「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19
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19
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	20
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	20
2.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21
3.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23
4.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26
■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및 추진체계	28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28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8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차 개정	30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차 개정	31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차 개정	32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차 개정	33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35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41
4.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43

5. 경제자유구역청	48
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9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3
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56
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61
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63
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67
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70
아. 충북경제자유구역	72

Contents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비전

■ 제1절 경제자유구역이란	76
1.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76
2.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78
3. 외국사례와의 비교	80
■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81
■ 제3절 경제자유구역별 현황 및 개발방향	83
1. 인천경제자유구역	87
가. 지역현황	87
나. 개발방향	88

Contents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91
가. 지역현황	91
나. 개발방향	92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95
가. 지역현황	95
나. 개발방향	96
4. 황해경제자유구역	100
가. 지역현황	100
나. 개발방향	101
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103
가. 지역현황	103
나. 개발방향	105
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09
가. 지역현황	109
나. 여 건	111
다. 개발방향	112
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115
가. 지역현황	115
나. 개발방향	116
8. 충북경제자유구역	119
가. 지역현황	119
나. 개발방향	120

제3장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성과

Contents

■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제도개선	124
1.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마련	124
2.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9
3.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130
4. 경제자유구역 홍보활성화 방안	134
■ 제2절 경제자유구역별 개발현황	136
1. 인천경제자유구역	136
가. 개발 총괄 개요	136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36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50
가. 개발 총괄 개요	150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50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65
가. 개발 총괄 개요	165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66
4. 황해경제자유구역	182
가. 개발총괄 개요	182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83
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186
가. 개발 총괄 개요	186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87

Contents

6. 대구 · 경북경제자유구역	197
가. 개발 총괄 개요	197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98

제4장 경제자유구역내 외투 유치 및 제도 정비

■ 제1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유치	212
1. 외국인 투자 개요	212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현황	215
■ 제2절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220
1. 조세 인센티브 확대	220
2. 각종 부담금 면제혜택 확대	224
3. 고용 및 노사환경 개선	226
4. 기반시설 지원	227
■ 제3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228
1. 교육 · 연구기관 유치	228
2. 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	230
3. 구역내 도시경관 정비	236

제5장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Contents

■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240

■ 제2절 우리나라 미래의 예고편, 경제자유구역 241

부 록

1.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23 246

【인천경제자유구역】 246

 송도 국제업무단지 246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247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 248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249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250

 인천대교 건설사업 251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 조성사업 252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25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54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254

 신항 배후단지 개발 256

Contents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258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260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및 물류부지 개발	26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63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263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264
신대배후단지 개발	266
울촌 제Ⅰ일반산업단지 개발	267
화양지구 개발	268
【황해경제자유구역】	269
황해 포송지구	269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70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	27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270
대구 수성 의료지구	27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274
망상 플로라시티	274

【충북경제자유구역】	275
청원 바이오밸리	275
청원 에어로폴리스	277
충주 에코폴리스	279

2. 경제자유구역 추진일지	281
1. 인천경제자유구역	281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91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97
4. 황해경제자유구역	302
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306
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310
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315
8. 충북경제자유구역	316

Contents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FREE ECONOMIC ZONES
10 YEARS HISTORY

제1장

경제자유구역의 태동과 발전



제1절

21세기 세계경제와 경제자유구역

우리나라 경제는 1970~1980년대의 경제 개발기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경제성장률 9~10%를 넘나들며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용’이라 일컬어졌고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모델로 연구되며 신흥개발도상국들의 모범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30여년간(1962년~1995년) 한국 경제는 연평균 8%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경제규모(GNP) 세계 11위, 1인당 GNP 세계 32위, 교역규모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도 초래하였다. 고용이 확대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었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등 양적·외형적 측면의 성장에는 성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내실화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1997년 3월부터 국가 정책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재정경제원과 비전코리아추진 위원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점검하고 미래 한국을 기획할 방향에 대해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 & 해밀턴(Booz Allen & Hamilton)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부즈-앨런 & 해밀턴은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 “제조업 기반은 광대한 배후 시장과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에 밀리고, 첨단 기술은 일본에 밀리는 너트 크래커(nut-cracker)의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한국이 혁신적인 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과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에서 뒤처져 2류 경제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충고하였다.¹⁾

2002년의 세계 경제는 1997년 당시의 예측보다 더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전 산업 부문에서 자본과 인력, 기술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 한국경제 생존프로젝트 경제특구, 남덕우 외, 2003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 간 경제 블록화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부츠-앨런 & 해밀턴(Booz Allen & Hamilton)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자리 매김한 동북아 지역에서 고도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과 여전히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일본 사이에 끼여 고립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고속 성장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충분하였다. 과거 낙후된 경제 시스템과 폐쇄적인 정치 체제, 저급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으로 세계 경제에서 소외되고 있던 중국이 1980년대에 이르러 개혁과 개발 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경제 특구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면서 동북아 지역의 수요를 독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실제로 1997년 이후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와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은 오히려 8%~10%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또 홍콩과 대만에는 중국 경제가 풍부한 저임금의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시장을 무기로 경제 개방을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 현상마저 초래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팽창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가 중국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를 우리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가간 자본과 인력,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 등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하이퍼 노마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 하이퍼 노마드란

고급 기술을 보유한 연구원이나 소프트웨어 생산자, 예술가 등 창조계급 등 지식경제 사회의 새로운 중심 집단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이는 질 높은 삶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빈번하게 이동하는 데서 유래하였다.

대기업들의 국적 개념도 희석되어 가고 있는데 2007년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서비스 및 군수업체인 할리버튼(halliburton)의 두바이 이전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업들조차 국가간 이동에 가세 하면서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다국적 기업을 유인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날로 변화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도시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경제특구화한 싱가포르나 작지만 강한 나라로 거듭난 북유럽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표 1-1 ▶ 새로운 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

구분	내용
신산업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거점 구축 ■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입지 여건 개선 및 물류 비용 절감 ■ 규제 완화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 보장
선진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범(Global standard) 확립으로 외자유치 여건 개선 ■ 선진기업 유치로 기업간 경쟁 및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주) 자료 : 한국 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남덕우 외, 2003

한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전 국토를 일시에 개혁하고 규제 철폐를 적용하기에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개발보다는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그 효과를 확산해 나가는 방법이 실효적일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다지면서 개혁과 개방에 따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전면 개장에 앞서 정책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을 전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태동과 추진경과

1. 경제자유구역의 태동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2002. 1. 14.)

정부는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본 구상의 배경은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각국이 물동량 선점과 비즈니스 거점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던 당시의 국제적 동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본 구상의 핵심에는 인천 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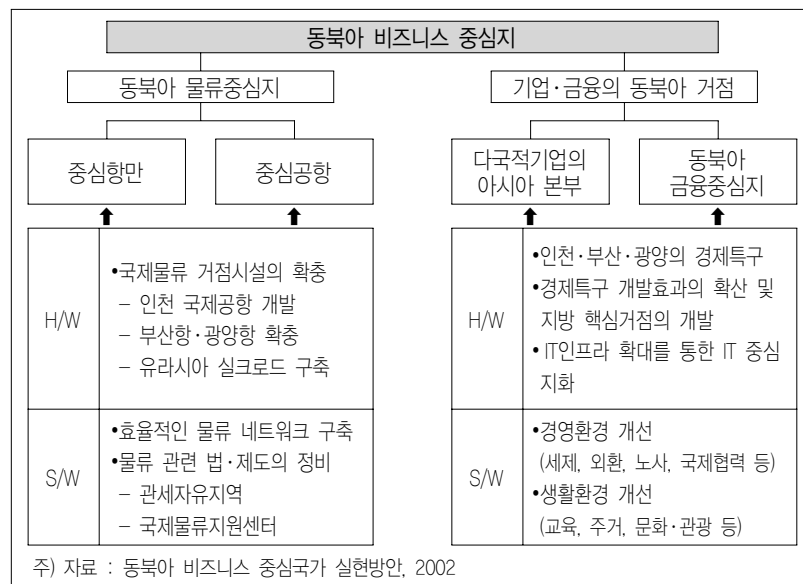


그림 1-1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기본 구상 주요 내용

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2002. 4.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동년 4월 4일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거제 정책 조정 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확정하였다. 기본 계획은 한국의 최대 강점인 전략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고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과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하며, 특히 금융 부문의 외국인 투자도 진작시켜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1-2 ▶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기본 계획	주요 내용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부산·광양항을 확충하여 동북아 중심공항 및 Mega Hub Port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 ■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 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제도 정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공항 인근 지역과 부산 신항·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 ■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외환규제 완화 및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등) ■ 경제특구내에서는 획기적으로 개편된 제도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문서의 영어 작성 등 국·영어 동시사용, 외국 교육·의료 기관의 진입 허용, 고급 쇼핑몰, 골프장 등 소비여가시설 확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별도의 특별행정기구를 설치 <p>* 2002년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음</p>

주) 자료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2002. 7. 29.)

2002년 6월 2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02년 7월 20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물류중심지화, 비즈니스 거점 지역의 개발, IT·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구축,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5개분야에 27개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세부 실행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3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 실행 계획 주요내용

기본 계획	주요 내용
물류 중심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개발 ■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 ■ 물류관련 법·제도의 정비
비즈니스 거점 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 부산항·광양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IT·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 IT인프라 구축 및 동북아 통신망 Hub화 ■ IT·디지털 미디어 집적화 단지 조성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된 고급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 ■ 노동시장 환경 개선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 환경 개선 ■ 경제특구내 영어서비스의 강화 ■ 경제특구내 주요 외국통화의 통용 ■ 경영·생활 애로사항 해소기구 설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확대 ■ 경제 특구내 외국병원 및 약국 진출 허용 ■ 외국 방송의 개방 ■ 경제특구내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지역 인근 의료·교육 시설 설치 지원

주) 자료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2.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구 재정경제부는 '03. 8. 5. 제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구 재정경제부장관)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 송도·영종·청라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지역 은 3개 지구 총 수용인구를 49만명으로 계획하고, 2008년 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홍콩, 싱가포르, 상해 등 세계 경제특구에 대응하여 글로벌 일류기업의 동북아 비즈니스·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고 최고의 생활환경을 구비한 국제 개방도시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후 '03. 10. 24. 제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총 인구 23.5만명으로 2006년까지 1-1단계, 2010년까지 1-2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될 계획으로 21세기형 항만·물류 중심 도시로 건설되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중점 육성토록 하였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총인구 22만명으로 2006년까지 1-1단계, 2010년까지 1-2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되며, 물류중심 도시, 동북아 석유·제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가장 먼저 지정이 완료된 인천이 2003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고, 2004년 3월 24일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2004년 3월 30일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차례로 개청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에 209.4㎢, 사업비 26조5,930억원, 2003~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광대한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수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축소로 현재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 169.5㎢로 변경되었다. 3개 지구 중 송도의 주요개발사업은 국제업무단지, 국제화 복합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랜드마크시티 등이며, 영종은 영종하늘도시, 운북 미단시티,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영종북해리조트 조성 등이고, 청라는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IHP, 로봇랜드, 화훼단지 등이 주요개발사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주력산업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에 걸맞는 기업유치 활동 전개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전략으로 하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세계최고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항공·철도로 연결되는 최상의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항만물류, 조선·자동차·기계 부품의 첨단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 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명품관광레저단지조성의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당초 5개 지역 16개 지구 총 면적 104.8㎢를 개발사업지로 지정된 후 2009년 개발 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23개 지구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개발미흡지구 조정에 따라 보배북측지구와 마천지구가 지구지정 해지되면서 5개 지역 83.1㎢, 21개 지구 33.5㎢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순천과 광양시 및 경남 하동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국제물류 생산기반 및 서남권의 정밀화학 및 신소재산업 거점지역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최초 지정당시 90.38㎢를 개발사업지로 하였으나 이후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지역 등을 제척하여 23개지구에 83.7㎢로 축소운영하고 있다.

표 1-4 ▶ 2003년 최초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청 개요(2013. 8. 31. 현재)

구분	인천청 ('03.8.6. 지정)	부산·진해청 ('03.10.30 지정)	광양청 ('03.10.30 지정)
위치	송도, 청라, 영종	부산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	여수·순천·광양시 및 하동 일원
면적	169.5km ² (당초 209km ²)	83.1km ² (당초 104km ²)	83.7km ² (당초 90.38km ²)
기간	2020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3단계	2020년까지 3단계
주요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국제업무, 첨단산업) ■ 영종(항공물류, 관광, 레저) ■ 청라(국제업무(금융),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신항(해운물류) ■ 과학산단, 미음, 남문(첨단부품) ■ 명지지구(국제업무) ■ 웅동지구(여가·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항(해운물류) ■ 울손산단(소재산업) ■ 화양지구(해양레저)
개청일	2003. 10. 15.	2004. 3. 30.	2004. 3. 24.
청장	이종철	서석송	이희봉

3.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은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도에 인천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 되어 있어 일부 어려운 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소관부처를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 이관(2008. 2. 29.)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확산과 대 중국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정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한 접근을 기했고,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민간 평가단을 구성하고 신청 지자체의 통합 설명회와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2007년 12월 21일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3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표 1-5 ▶ 추가지정 대상 지역 선정 일시(2012. 12. 31. 현재)

'07. 3. ~ '07. 8.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대외경제정책연구원)
'07. 8. 8.	추가지정 타당성 공청회 개최
'07. 8. 17.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확정
'07. 8. 24.	각 지자체에 추진일정·절차 및 평가기준 등을 통보
'07.10. 31.	5개 지역(강원,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남, 전북)에서 지정 신청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평가단 구성
'07.11. 11.	신청 지자체 대상 통합 설명회 개최
'07.11. 18.	신청 지자체 제1차 현장실사
'07.11. 24. ~ 11. 25.	신청 지자체 제2차 현장실사
'07.12.	민간 평가단 평가
'07.12. 21.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3개 지역을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이번 추가 지정은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부처 협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선정과 지정의 2단계로 추진되었다. 즉 우선 지정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부처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하여 후에 일괄적으로 공식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약 4개월 간의 부처협의를 거쳐 신규 지역의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2008년 4월 25일에 열린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함으로써 6개 경제자유구역 체제가 완성되었다. 신규 3개 지역도 공식지정 후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을 2008년 7월~8월 중 개청하였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충남 아산·당진과 경기 평택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항을 통한 대 중국 물류 및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 연계 트러스터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 지정당시 55km²를 개발사업지로 하였으나 이후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역을 제척하여 2013년 5월말 현재 5개지구에 14.9km²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aemangeum Gunsan Free Economic Zone)은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유보되었다가 제22차 (구)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사를 통해 황해, 대구·경북과 함께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어(2007.12.21), 4개 지구(5개 단위지구)에 66.9km²를 지정·고시하였다(2008.7.10). 전라북도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청사선정, 조직 및 기구 운용,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22명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T/F팀)을 발족하고(2008.1) 개청준비를 시작하였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공포하고(2008.7.10), 2008년 8월 28일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라는 슬로건으로 전라북도 사업소로서 전라북도청 18층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였다. 2011년 7월 1일 4개 지구 중 하나인 군산시 조촌동, 옥산면 일원의 군산시 배후지구를 해제함으로써 3개 지구(4개지구)로 구역계가 변경되었고, 면적도 50.39km²으로 변경되었다. 새만금지기도 새만금산업지구 및 새만금관광지구의 명칭이 각각 새만금산업단지과 새만금관광단지로 변경되었다(『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 또한, 군장국이

산단지구도 2011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85호에 의하여 군산2국가산단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1년 7월 8일, 전라북도청에서 군산시 오식도동 한국농어촌공사 건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교육·의료·연구기능이 어우러진 학술·산업 클러스터와 섬유·패션·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내륙 경제자유구역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초(2008.5.6.) 11개 지구에 39,546km², 사업비 4조 6,078억원, 2008~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된 후, 2011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구조 조정 결과 11개 개발사업지구 중 전부 또는 일부 해제 3, 유예 2, 존치 1개소로 결정되어 10개 지구 30.1km² 변경되었다. 이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축소로 현재 10개 지구 30.04km²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6 ▶ 2008년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 개요(2013. 9. 30. 현재)

구분	황해청 (‘08.4.25 지정)	새만금·군산청 (‘08.4.25 지정)	대구·경북청 (‘08.4.25 지정)
위치	경기 및 충남 일원	전북 군산 및 부안 일원	경북, 대구 및 포항 일원
면적	14,46km ² (당초 55,0km ²)	31,86km ² (당초 66,9km ²)	30,1km ² (당초 39,5km ²)
기간	2008~2020	2008~2030	2008~2020
주요 추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악(철강·화학, 기계장비) ■인주(자동차 생산·부품) ■포승(자동차 부품, 물류) ■현덕(자동차 부품, 전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만금 산단(미래형 신산업) ■고군산(국제해양관광) ■새만금 관광단지(복합레저) ■옥산 배후주거 단지(생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성의료(교육·의료) ■경산학원연구(교육·연구) ■대구혁신도시(학술클러스터) ■국제문화산업(게임산업) ■국제패션(섬유·패션) ■테크노폴리스(R&D) ■포항융합기술(R&D) ■구미디지털산업(모바일, R&D) ■성서5차첨단산단 ■영천부품소재산단 ■영천 하이테크파크
개청일	2008. 7. 22.	2008. 8. 28.	2008. 8. 13.
청장	박한규	우시언	최병록

4.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3년과 2008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개발사업이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경기도 등 4개 지역이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는 추가지정을 위해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신청 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및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2011년 7월에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민간평가단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요청을 결정·통보한 후 해당 기관이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보완 요청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2012년 3월경에 4개 기관에서 각각 제출하였으나,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민간 평가단이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차 평가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제척한 후 강원도와 충북에 한해 2차 보완요청 및 수정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25일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원·충북 2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표 1-7 ▶ 강원 등 추가지정 대상지역 선정 일시(2012. 12. 31. 현재)

'09. 3. ~ '10. 5.	4개 지자체(경기·강원·전남·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요청
'11. 4. ~ '11. 6.	지정요건에 따른 평가 실시
'11. 7.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민간평가결과 지적사항 보완조치
'12. 1. ~ '12. 5.	국토부 등 해당기관 협의
'12. 3.	4개 지자체 개발계획 보완 제출
'12. 3. ~ '12. 5.	민간평가단 보완된 개발계획 평가
'12.7.2.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원·충북 추가 보완요청 - 경기·전남은 민간평가결과 60점 이하로 대상 제외
'12. 8.	강원·충북에서 개발계획 보완 후 제출
'12. 9.25.	강원·충북 2개 지역을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이번 지정은 직전 3개 지역의 지정방식과 동일한 선정과 지정의 2단계로 추진되었다. 이는 우선지정 대상지역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모든 지역이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및 행정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후, 대상지역을 최종 지정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 수개월 간의 부처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원·충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할 것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전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 체제가 완성되었다. 아울러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담당할 동해안권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2013년 4월에 개청하였다.

표 1-8 ▶ 2013년 지정 2개 경제자유구역 개요(2013. 6. 30. 현재)

구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13. 2. 14.)	충북 경제자유구역 ('13. 2. 14.)
위치		강릉·동해	청원·충주
면적		8,3km ²	9,1km ²
국제공항·항만		동해항	청주국제공항
개발기간		2013 ~ 24년 (12년)	2013~20년(1단계) (8년)
지구		4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평 4.6km² ■망상 1.9km² ■옥계 0.7km² ■구정 1.0km² 	3개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 메디컬 1.1km² ■리서치 & 관광비즈니스 3.3km² ■에어로폴리스 0.5km² ■에코폴리스 4.25
주요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평(국제업무, 첨단산업) ■망상(해양명품관광) ■옥계(비철금속소재산업) ■구정(교육·문화·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송(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공단지(항공물류, 항공정비) ■충주(자동차전장부품, 바이오 휴양)
총사업비		1조 3,075억원	1조 9,942억원
재원조달	국비	997(7.6%)	2,239(11.2%)
	지방비	997(7.6%)	785(4.0%)
	민자·외자	11,081(84.8%)	16,918(84.8%)
개청일		2013. 4. 30.	2013. 4. 26.
초대청장		김동수	전상헌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및 추진체계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2. 12. 30.)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에서 마련한 경제특구 청사진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구 재정경제부는 2002년 8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2년 9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마쳤다. 그리고 정부는 2002년 10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동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경제특별구역’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해 12월 30일 공포되었다. 시행 시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였다.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유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동 법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었고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등 각종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외국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은 2003년 6월 30일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임대료를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표 1-9 ▶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2002년 제정안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항만, 교통망,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 ■ 필요한 부지의 확보 용이성 및 개발 비용 수준 ■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 외국인의 투자 수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지원내용
지정(해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신청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검토 및 결정 ■ (구)재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 ■ (구)재경부 장관은 필요시 지정 해제 가능
투자 인센티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 기업 * 국내기업은 입주는 가능하나 각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 현금·재정 지원 ■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규제 완화 (타법률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정비법상 행위 제한 배제 ■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시 타 법률 인·허가 의제 ■ 노동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배제 － 유급 휴일 등 배제 － 파견 근로자 기간 및 업무범위 제한 조항 배제 ■ 무신고 외환거래 제한 범위 확대
특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교육·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허용 ■ 해외 의료시설 설립 및 운영 허용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op 서비스 제공 ■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운영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각종 주요 정책사항 심의 및 의결)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위원회 업무 보좌) 및 지역청(실무 행정)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차²⁾ 개정(2005. 1. 27.)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3년 7월 법이 시행된 후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법 제정 당시 공급자의 입장에서 규정된 일부 조항들이 수요자인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로 지적받았고, 필수적인 개선 필요사항이 건의되었다. 이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적극 검토하고 필수적인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동 개정(안)은 2005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제1차 개정 법률은 크게 신속한 개발을 위한 개발 관련 규제완화, 외국 병원 관련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청의 One-Stop 서비스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개발 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기존 33개에서 36개로 확대하였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 기준을 50%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도시로 자리 매김하게 할 상징적인 초고층 건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골프 빌리지와 같은 주택 건축도 허용하였다.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시설인 외국 병원과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여 수요자인 외국 병원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내실있는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역청장에게 청의 조직과 인사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운영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였고, 시·도지사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여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국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학력 위주의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준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의제되는 지정효과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등 초기에 규정된 효과 외에도 유통단지 지정도 추가하여 지정효과를 확대토록 하였다.

제1차 법개정은 제정 당시의 미비점을 크게 보완하였고, 이듬해 각종 대규모 앵커개발사업³⁾ 유치와 세계 유수 병원 및 외국 교육 기관 등과 MOU 체결의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2) 차수는 타 법령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사유는 제외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 등 법 규정사항의 전반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수를 정하였음

3)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개발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주력 개발사업자

표 1-10 ▶ 경제자유구역법 제1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개발관련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허용기준 50% 확대 → 국제도시 형성과 초고층 건물 건축 가능
	골프장내 주택 등의 건축 허용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기존 33개 → 36개)
외국병원관련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청 독립성 확보	구역청장에게 청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 부여
	구역청장에게 시·도지사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인사 운영의 자율성 부여 * 구역청장의 인사권 : 채용권·승진권 없음, 5급 이하의 전보권 →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
	학력위주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기준을 배제 → 국제비즈니스 경험 등 구역청에 적합한 전문 인력 채용·활용 가능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 확대	경제자유구역지정시 유통단지 지정 효과 추가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차 개정(2007. 12. 7.)

2007년 12월 7일 경제자유구역법이 2차로 개정되었다. 제2차 법률개정은 2004년 제1차 법개정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본질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담았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관련 절차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었다.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이 기존 36개 법률 65개 사항에서 38개 법률 72개 사항으로 확대되었고, 부담금 감면도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 하였다. 일정면적 이하의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등 각종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되어 처리기간의 경감 및 지자체의 자율성도 증대되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병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의료기관 진출시 영리법인형태의 의료 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양·온천 등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의 유치가 보다 쉽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선도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진출로 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상승을 꾀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다.

표 1-11 ▶ 경제자유구역법 제2차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개발관련 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36개 법률 65개 → 38개 법률 72개)
	■ 각종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 부담금 감면 확대
외국병원관련 제도개선	■ 외국의료기관 진출시 외국인투자 법인까지 허용
	■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 일정요건(관광분야 5억불 이상 투자 등)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허용
출자총액제한제도 일부배제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기업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차 개정(2009. 1. 30.)

2009년 1월 30일 경제자유구역법이 제3차로 개정되었다. 제3차 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를 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제3차 개정에서는 법 제명을 변경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어,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경자구역 내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경자구역내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시 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조성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두어 단위개발사업지구안 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 1-12 ▶ 경제자유구역법 제3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명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자구역 내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 조성 시 개발계획과 정합성 확보 필요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시 산업부 장관과 협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 공급 시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등 조건부여 및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 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를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 임차인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특례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차 개정(2011. 4. 4.)

제5차 개정은 그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각 지역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내지는 비전제시가 없어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조항을 법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특히 개발사업을 독려·진작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정해제를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발전 방향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으로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사계획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구역 내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 일부터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도록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지정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 또는 외국인전용 보육시설에 운영자금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당해 청에 대하여 일부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영하거나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13 ▶ 경제자유구역법 제3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요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변경) ■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으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및 기업입주수요,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한 지 등
조성용지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지공급계획 포함 ■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안 등을 실시계획에 담아 시·도지사와 협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사유 규정 및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고시일부터 3년 내 실시계획 미신청시 지정해제 간주. 다만 시·도지사 요청과 위원회 의결 시 예외 인정
개발사업시행 및 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등을 받거나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가 구역내 외국인 유치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가능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구역청 직원의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가능 ■ 총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계약직 공무원 임용 가능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중앙행정 기관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조정 필요사항, 외국인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자가 선임된다. 당연직위원은 10개 중앙행정 부처 차관(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교통부)이다.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노동, 환경, 외국인투자, 물류, 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2012년 12월말 현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회의 개최방법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면 또는 서면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안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회의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회의개최 시기는 심의안건 발생시 수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003. 7. 1.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03. 8. 5.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003. 10. 24.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008. 4. 25.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012. 9. 25. 동해안권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 후 2013. 2. 4. 최종 확정·지정 등 국내 8개 지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으며, 각 구역이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지침 및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 등 각종 제도를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등 2012년 12월 말까지 총 55회를 개최한 바 있다.

표 1-14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개최 내역(2012. 12. 31. 현재)

차수	회의 일자	회의 안건(목적)	회의 /서면
1	'03. 7. 1	[보고] • 주요 업무추진계획	회의
2	'03. 8. 5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	회의
3	'03.10.24	[의결] •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안)	회의
4	'04. 5.12	[보고] • 추진현황 및 주요계획 [의결] •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 국고지원기준(안)	서면
5	'04.11. 8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 1-① 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서면

차수	회의 일자	회의 안건(목적)	회의 /서면
6	'05. 8.12	[보고] • 현황 및 계획 • 부산·진해 개발계획 변경추진 [의결] • 인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인천 운북 개발계획 변경(안) • 광양만권 화양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안)	회의
7	'05.11.11	[보고] •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방안 • 외국 의료·교육기관 유치현황 [의결] • 인천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실시 계획승인(안)	회의
8	'05.12.26	[의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①단계 실시계획변경승인(안)	서면
9	'06. 4.25	[보고] •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 설립추진계획 • 각 구역청 업무보고 [의결]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2-1구역 실시계획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송도5구역 실시계획 승인(안)	회의
10	'06. 7. 5	[의결]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산지구 개발계획변경(안)	서면
11	'06. 9.15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1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서면
12	'06.10.20	[보고] • 추진 현황과 주요현안 [의결] • 인천 운북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인천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안) • 광양만권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부산·진해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 부산·진해 남양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회의
13	'06.11.15	[의결] • 인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 계획 승인(안) • 부산·진해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회의
14	'06.11.30	[의결] • 인천 영종지구 영종지역(578만평)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인천 영종지구 가로망 계획 실시계획 승인(안)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	서면
15	'07. 1.15	[의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의곡~과학산단간 도로개설 사업 실시 계획 승인(안)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페로니컬공장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서면
16	'07. 2. 9	[의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실시계획 승인(안)	서면
17	'07. 4.13	[보고] • 지난 위원회 이후 주요 추진 상황 •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 원칙(안) •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업단지 도입 방안 [의결] • 부산·진해 미음지구 개발계획변경(안)	회의

차수	회의 일자	회의 안건(목적)	회의 /서면
18	'07. 5.23	[의결]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19	'07. 8.14	[보고] • 지난 위원회 이후 주요 업무추진 상황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안)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회의
20	'07. 9.14	[의결]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국제 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실시 계획 승인 및 덕천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21	'07.10.31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서면
22	'07.12.21	[보고] • 지난 위원회 이후 주요 업무추진 현황 [의결] •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역 선정(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회의
23	'08. 1.17	[의결]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설립 승인(안)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실시계획(1단계) 승인(안)	서면
24	'08. 2.19	[의결]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울촌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서면
25	'08. 4.25	[보고] • 지난 위원회 개최이후 주요업무추진현황 •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안) [의결]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안)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5·7공구 실시 계획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 승인(안)	회의 서면
26	'08. 9. 9	[의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매립지 및 갈사만매립 배후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안)	서면
27	'08. 9.23	[의결] •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2공구) 실시계획 승인 (안) •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2·4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서면
28	'08.10.31	[보고] • 지난 위원회 개최이후 주요업무추진현황 • 인천 송도지구내 외국병원 유치경과보고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안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안	회의

차수	회의 일자	회의 안건(목적)	회의 /서면
29	'08.12.23	[보고] • 송도국제업무단지 추진상황 및 사업성 검토 [의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규정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국고차등지원 방안(안) • 부산·진해/명지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부산·진해/가주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광양만권/광양지구 포스코터미널 CTS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새만금·군산/산업단지 제1차 준설토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안)	서면
30	'09. 3.19	[보고] • 지난 위원회 개최 이후 업무추진 현황 및 '09년도 업무추진 계획 [의결] • 광양만권/내 하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안) •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 기준' 제정(안) •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제정(안)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을 위한 카드발급 및 관리요령' 제정(안)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회의
31	'09. 4.15	[의결] •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조세감면 의결(안) • 인천/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서면
32	'09. 5.27	[의결] • 부산·진해/개발계획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승인(안) • 광양만권/개발계획변경 승인(안)	서면
33	'09. 7.17	[보고] • 지난 위원회 이후 업무추진 현황 및 '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 [의결] • 부산·진해/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 인천/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회의
34	'09.11.13	[의결] • 새만금·군산/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1공구 매립 실시계획 승인(안) • 광양만권/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 승인(안) • 인천/송도지구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안) • 인천/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안) • 인천/영종지구(용의·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 부산·진해/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계획 협의(안)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개정(안) • 독일 에어랑엔-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FAU) 부산분교 설립 승인(안)	회의
35	2010. 3. 5	[의결] • 인천/ 영종지구 용유 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 도시(테스코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개발계획 변경승인(안) • 부산진해/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광양만권/신덕지구 해룡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안)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국고차등지원 방안 개정(안)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관리지침 제정(안)	서면

차수	회의 일자	회의 안건(목적)	회의 /서면
36	2010. 4.29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용 요령 개정(안)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안)	서면
37	2010. 5. 7	[의결]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주)대우건설 컨소이엄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안)	서면
38	2010. 6.25	[의결] • 채드워 송도국제학교 설립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안학원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울촌2산업단지울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변경(안)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회의
39	2010. 8.27	[의결] • 2010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회의
40	2010.12.28	[의결] • 내실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방안(안)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주)셀트리온 조세감면 의결(안)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안)	회의
41	2011. 3.29	[의결] • ‘내실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서면
42	2011. 5.31	[의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 및 신대덕레베후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회의

차수	회의 일자	회의 안건(목적)	회의 /서면
43	2011. 7.13	[의결]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지역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보완조치 결과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안)	회의
44	2011. 8.30	[의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45	2011.11.24	[의결] •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안) • 인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및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 광양만권 신덕지구 해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46	2011.12.20	[의결] • 부산진해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대구경북 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47	2012. 2. 1	[의결]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검토 방향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방향 •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인천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 대구경북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 부산진해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 광양만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회의
48	2012. 4. 3	[의결]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월로펌프(주) 7년형 조세감면 의결(안)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안)	회의
49	2012. 7. 2	[의결]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지역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안) •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회의
50	2012. 8. 6	[의결]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학부과정 증설(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안)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포승,현덕지구)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51	2012. 9.10	[의결] • 서부산 유통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52	2012. 9.25	[의결]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안)	회의

차수	회의 일자	회의 안건(목적)	회의 /서면
53	2012.10.11	[의결] • 삼성바이오에피스(주) 조세감면 의결(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무의) 개발계획 변경(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보고] • 경자위 보고자료(보고안건)	회의
54	2012.11. 5	[의결]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서면
55	2012.12. 6	[의결] •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만도브로제의 '경자유역 7년형 조세감면(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무의) 개발계획 변경(안)	회의

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는 2002년 12월 4일 경제자유구역 준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후 직제 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직후인 2003년 7월 10일 **舊**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신설하였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과 기획,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협력,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한 시·도와의 실무협의,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과 관계부처간 협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외국학교·병원 등 프로젝트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 안건 상정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주관·운영하면서 청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단장 이하 6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 물류 관계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09. 2. 29.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로 이관 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부서의 명칭은 업무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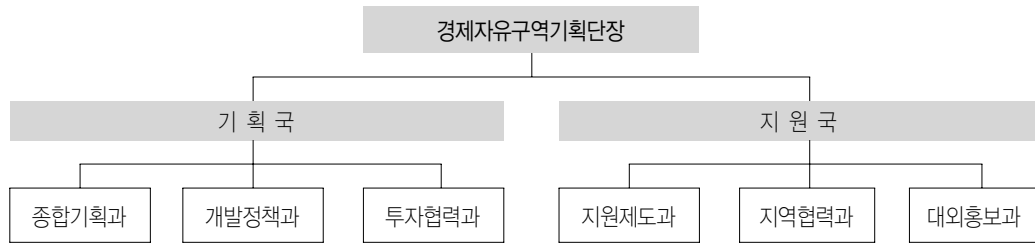


그림 1-2 ▶ 창설 당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직도



그림 1-3 ▶ 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직도

표 1-15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역대 단장

	역대 기획단장		재임 기간
1		오갑원(구 재정경제부)	2003.7 ~ 2004.10
2		조성익(구 재정경제부)	2004.10 ~ 2007. 4
3		권태균(구 재정경제부)	2007. 4~ 2008. 2
4		서석송(구 지식경제부)	2008. 3 ~ 2008. 8

	역대 기획단장	재임 기간
5	 박청원(구 지식경제부)	2008. 10. ~ 2010. 2.
6	 권평오(구 지식경제부)	2010. 2. ~ 2011. 5.
7	 심학봉(구 지식경제부)	2011. 6. ~ 2011. 10.
8	 김성진(산업통상자원부)	2011. 11. ~ 현재

4.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에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법령상 기구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안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게 한다.

***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제51조

자문회의는 국토개발·도시계획·환경·교통·물류·투자유치·에너지·디자인·정책·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심의·의결은 반드시 사전에 자문회의를 거처도록 제도화(경미한 사항은 제외) 하였다.

2005년 7월 최초로 운영되기 시작한 자문회의 '13년 6월 현재 50차례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총 122개의 안건에 대해 자문하였다.

표 1-16 ▶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개최 내역(2013. 6. 30. 현재)

회수	개최일자	심의 안건
제1회	'05. 7.26.	①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② 운북지구 개발계획변경(안) ③ 화양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제2회	'05. 9. 9.	①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안) ② 영종지구(용유역세권) 개발계획 변경(안) ③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안) ④ 화양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제3회	'05.10.12.	①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안)(재심)
제4회	'06. 1.20.	① 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송도국제업무지구 내 어민생활대책용지 실시계획 승인(안) ③ 화양지구 실시계획 승인(안) 주요변경사항 보고
제5회	'06. 3. 2.	① 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재심의) ② 인천 송도5지구 실시계획변경(안) ③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보고)
제6회	'06. 4.27.	① 남산지구(스키돔) 개발계획변경(안) ② 신대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③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실시계획변경(안) ④ 영종지구 개발계획변경(도로개설) 및 실시계획(안)
제7회	'06. 6.22.	①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②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안) ③ 의곡-과학산단간 도로개설(안) ④ 영종지구 교통(가로망)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제8회	'06. 7.27.	①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②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③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안) ④ 남양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⑤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제9회	'06. 8.24.	① 영종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②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제10회	'06. 9.28.	① 부산진해 서부산유통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② 인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
제11회	'06.11.2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현안사항 보고
제12회	'07. 3.2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현안사항 보고
제13회	'07. 8.10.	① 경제자유구역 주택공급 제도 개선 방안 ② 인천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 화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④ 부산진해 보배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⑤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회수	개최일자	심의 안건
제14회	'07. 9. 7.	①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② 인천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③ 광양 갈사만 3호선 실시계획 및 덕천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제15회	'07.10.26.	① 인천 송도 개발계획 변경 ② 부산진해 문화지구 실시계획 승인
제16회	'07.00.00.	① 추가지정 경과보고 ② 인천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④ 부산·진해 문화지구 실시계획 승인(안)
제17회	'08. 2. 1.	① 인천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② 부산·진해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③ 광양만권 울촌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제18회	'08. 3.26.	①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②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③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④ 인천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5·7공구(첨단클러스터) 실시계획(안) ⑤ 인천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실시계획(안)
제19회	'08. 6.27.	① 인천 송도지구 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제20회	'08. 9. 4.	①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재)
제21회	'08.10.22.	① 경제자유구역 확대기준(안) ②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③ 광양만권 갈사만매립지 및 매립배후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제22회	'08.12. 5.	① 부산·진해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② 부산·진해 가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 ③ 새 만금·군산 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1-①단계) 승인(안) ④ 광양만권 포스코터미널 CTS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
제23회	'09. 1.30.	①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 사업지구 확대기준(안)
제24회	'09. 3.12.	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웅천지구 신설
제25회	'09. 6.19.	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안)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메디시티 신설) 승인(안) ③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5.7공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
제26회	'09. 9.29.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개발계획(변경)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 미수립지역 개발계획(변경) ③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변경) ④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

회수	개최일자	심의 안건
제27회	'09.10.27.	① 인천 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개발계획(변경)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 미수립지역 개발계획(변경) ③ 인천 송도지구(6.8공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 ④ 광양만권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제28회	'09.12. 9.	① 다쏘시스템 R&D센터 유치 승인(안) ② GE Global R&D센터 유치 승인(안)
제29회	'10. 1.15.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공항복합도시(BC-II지역) 개발계획(변경)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개발 계획(변경)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계획(변경) ④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룡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로지구 개발계획(변경)
제30회	'10. 2.19.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공항복합도시(BC-II지역) 개발계획(변경)
제31회	'10. 4.29.	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 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학원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 ③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④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2산단 및 율촌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변경
제32회	'10. 6. 3.	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제33회	'10.10.26.	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③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안) ④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제34회	'11. 4.20.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제35회	'11. 6. 7.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바이오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제36회	'11. 7.28.	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룡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③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
제37회	'11.10.24.	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로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승인(안)
제38회	'11.12.28.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③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④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회수	개최일자	심의 안건
제39회	'12. 2.27.	①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안) 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포스코터미널CTS 개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제40회	'12. 4.17.	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③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덕례, 성황, 두우, 용강, 덕천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제41회	'12. 6.13.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③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제42회	'12. 9.20.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제43회	'12.10. 9.	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③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울촌2산단 개발계획 변경(안)
제44회	'12.11. 1.	①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여객터미널 및 아암물류단지 복합지원용지 적정규모 검토(안)
제45회	'12.12.12.	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제46회	'13. 1.31.	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제47회	'13. 2.14.	①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선정” 검토(안)
제48회	'13. 3. 7.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역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제49회	'13. 3.12.	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안)
제50회	'13. 6.20.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아암물류단지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안) ②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송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③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5.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지역별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외자유치, 개발추진 및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에 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10월 15일 개청하였으며, 법적형태는 인천광역시외의 출장소이다. 기구는 4본부 1담당관 16과 6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3월 30일 개청하였으며, 법적형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조직은 2본부 3부·3실 1관·8과·1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3월 24일 개청하였으며, 법적형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조직은 2본부 5부 1담당관, 1사무소, 10과 8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7월 22일 개청하였고 기구는 2본부 1담당관·5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도 8월 13일 개청하고 2본부 3부·3실, 1관·4과·10팀·1소, 1옴부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해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해당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8월 28일 개청하였으며 2본부 6부 16팀으로 되어 있다.

※ 2013. 10. 4.자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폐지(2013. 9. 12.자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개발청 개청)

아울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4월 30일 개청하였으며, 기구는 2본부 5과 1담당관 15담당 63명으로 구성되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4월 26일에 개청하였으며, 기구는 1본부 3부, 1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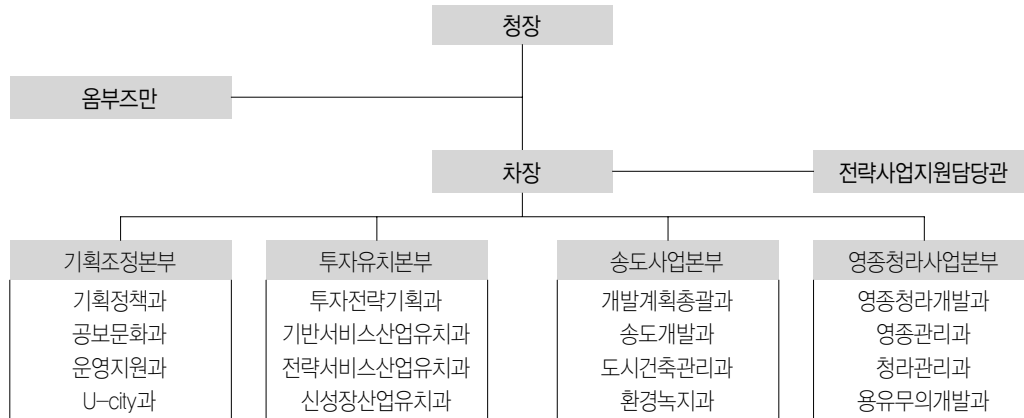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필두로 하여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역청은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발맞추어 조직을 다양하게 개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내 산업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외자유치의 첨병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2013.9.13현재)

(1) 기구 및 정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 출장소로 설립되었으며, 2003. 10. 15.에 3국 12과 1담당관 46팀 286명(정원)으로 조직이 신설되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IFEZ 개발전략 및 차별화 전략 실현을 위해 여러번의 기구 개편을 거쳐 현재 4본부 1담당관 16과 66담당 324명(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 기구표 : 4본부 1담당관 16과 66담당(324명)



■ 인력(정원/현원) : 324/315명

구분	총원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334/328	2/2	4/4	17/17	66/64	102/103	99/85	28/30	0/4	16/19
일반직	283/278	1/1	3/3	14/14	55/54	84/85	84/70	26/28	0/4	16/19
개방·계약직	51/50	1/1	1/1	3/3	11/10	18/18	15/15	2/2	0/0	0/0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기구	정원	정원변동내역	변동 사유	세부 내용	비고
2003.10.15	3국 12과 1담당관	286명		청 설치조례,규칙 공포(03.10.13)	청 신설	
2004. 6.14		307명	21명 증원	행자부 정원 승인	특례사무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	
2004.11. 8		310명	3명 증원	행자부 정원 승인(부청장)	차장(부청장) 직제 신설	
2005. 4.25	3국11과 1담당관 1사무소	288명	1명 증원 23명 감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사무이관 (지방세 등 10개 법률사무 구로 환원, 6개 법률사무 추가)	특례사무변경에 따른 인력 증원 및 감소 (인천시, 중구, 연수구)	
2005. 7.25		289명	1명 증원	인천시 조정	공원녹지관련 녹지직렬 보강	
2006. 2.13		313명	24명 증원	행자부 정원 승인	공원녹지, 특례사무변경관련 인력, IT cluster 인력 증원	
2006. 5.29		314명	1명 증원	행자부 정원 승인	부동산 대책 관련 인력 증원 (인천시)	
2006.7.18	2국 1본부 10과 5팀	337명	23명 증원	행자부 정원 승인	영종지구 사업시행, 청라지구 개발사업 시행개선, 경영재정의 업무 강화	
2007. 5.15	2국 1본부 11과 4팀 1담당관	351명	15명 증원 1명 감소	인천시 조정	u-City 정책과 신설 등 인력증원	
2007.10.22	3국 1본부 11과 4팀 1담당관	352명	1명 증원	개발2국장 신설	개발국 개발1국, 2국을 분리(3급 확보)	
2008. 8.18		340명	12명 감축	행안부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시 분청과 협의에 따라 공석정원 중심 감축	
2009. 2.25	4본부 1담당관 14과	339명	5명 감축 4명 증원	인천시 조정	5명 감축,4명 증원 환경녹지과 신설 등	
2010. 3. 1	4본부 1담당관 15과	342명	3명 증원	인천시 조정	3명 증원	
2010. 4.26		343명	1명 증원	인천시 조정	1명 증원	
2011. 2.17	4본부 2담당관 15과	333명	10명 감축	인천시 조정	시 조직개편 감축	
2011. 5.18		331명	2명 감축	인천시 조정		
2011. 8.24		320명	11명 감축	영종지구 일부해제 고시에 따른 사무이관	중구청 업무이관(인력감소)	
2012. 2.29		322명	2명 증원	인천시 조정		
2012. 8.13		324명	2명 증원	인천시 조정		
2013. 2.25	4본부 1담당관 16과	334명	10명 증원	인천시 조정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485,927	1,122,971	925,296	568,762	598,620
특별회계	459,511	1,092,051	892,563	558,753	578,162
용지매각수입	265,987	887,134	704,236	271,323	442,444
이자수입및연체료	9,000	1,700	1,000	4,200	6,327
전년도이월금	—	—	—	—	20,000
국고보조금	28,573	37,289	84,889	52,732	21,480
일반회계전입금	22,506	20,446	41,074	25,100	51,565
기타	133,445	145,482	61,364	205,398	36,346
일반회계	26,416	30,920	32,733	10,009	20,458
세외수입	17,854	7,420	7,633	6,409	20,458
보조금	8,562	11,500	5,700	1,000	—
지방채	—	12,000	19,400	2,600	—
기타	—	—	—	—	—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564,436	1,171,243	942,348	597,867	579,162
특별회계	459,511	1,092,051	892,563	558,753	578,162
경상예산	44,501	158,143	189,980	155,368	108,675
인건비	20,529	20,695	20,936	20,312	20,097
경상적경비	23,972	137,448	169,044	135,056	88,578
사업예산	227,033	414,757	408,590	327,591	420,184
채무상환	—	—	1,137	—	16,162
예비비	584	36,570	56,873	4,536	6,482
기타	187,393	482,580	235,983	71,258	26,659
일반회계	104,925	79,192	49,785	39,114	1,000
경상예산	16,012	4,137	3,880	3,904	—
사업예산	75,257	64,536	35,294	20,461	1,000
채무상환	13,611	9,209	10,611	13,431	—
기타	45	1,310	—	1,318	—

(3) 재정운영 방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주거·상업용지 등의 매각 수입으로 기반시설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초기 기반조성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수익금으로 일반회계의 사업을 부담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자금흐름이 어려운 국면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컨셉도 기존의 하드웨어측면에서 교육 및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가미하고 개발이 많이 진행된 송도지역에서 개발속도가 느린 영종·청라지역으로 개발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당장 2016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1조 9,80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년간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라 용지매각 수입에 의한 사업재원 조달구조가 비탄력적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발굴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먼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카지노복합사업 등 맞춤형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공급용지를 기반으로 인천투자펀드를 조성 조달자금으로 기반시설을 개발 해외투자기업들을 유치한다.

단기 자금수요에 구애받지 않는 중기(5년)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구간(~2016년)을 커버하되 인천시 재무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GCF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및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4) IFEZ BI

- 제작연혁 및 소개
 - 2008년 07월 03일 : BI 제작
 - 2008년 10월 02일 : BI 제작완료
 - 2008년 10월 03일 : BI 시행
 - 2010년 05월 04일 : BI 업무표장등록
- 의의
 - 세계의 비즈니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모여드는 교류를 맞물린 3개의 선들이 파도치며 한 점으로 모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첨단지식의 국제도시 송도, 세계 물류 대동맥 영종, 비즈니스오asis가 행복한 청라로 서로 교류하며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하는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핵심도시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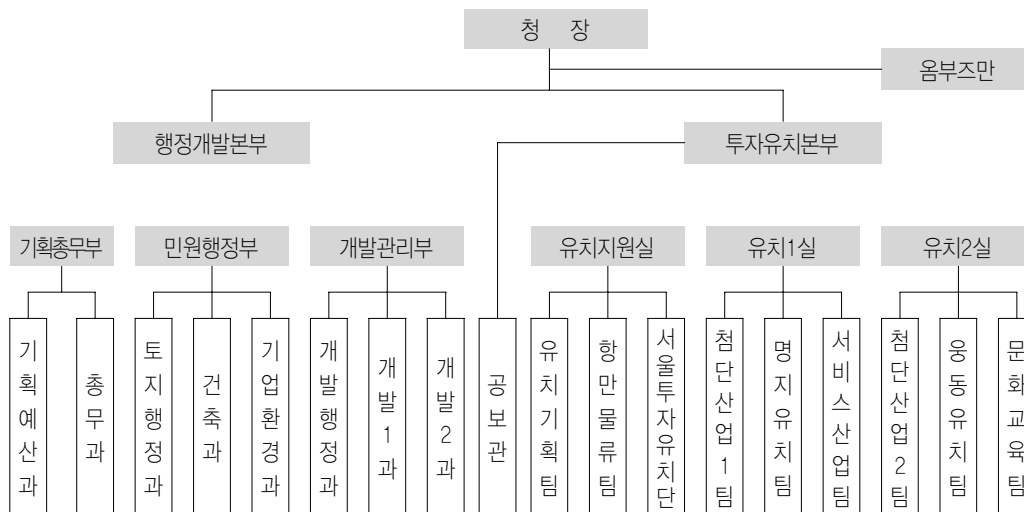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 (2012. 12. 31. 현재)

(1) 기구 및 정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 3. 25에 2본부, 3부·3팀, 8과·1관·1옴부즈만 155명으로 조직이 신설된 후 2005. 5. 27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특례사무 개정에 따른 직렬·직급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06. 3. 3에 개발업무 확대에 따른 1명 충원을 통해 15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다. 그 후 2006.8. 27 2차 조직개편, 2009. 4. 14 3차 조직개편, 2010. 9. 16 4차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현재 2본부, 3부·3실, 1관·8과·1옴부즈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 기구표 : 청장, 2본부, 3부·3실, 1관·8과·1옴부즈만



■ 인력(정원/현원) : 156/152명

구분	총원	1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156/152	1/1	2/2	6/6	19/18	39/35	64/74	15/6	-	10/10
일반직	131/131	-	1/1	4/4	13/13	28/28	60/69	15/6	-	10/10
개방·계약직	25/21	1/1	1/1	2/2	6/5	11/7	4/5	-	-	-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정원변동내역	정원	변 동 사 유	세 부 사 유	비 고
2004. 3. 25		155명		청 신설	
2005. 5. 27		155명	특례사무 개정에 따른 직렬 · 직급 조정		
2006. 3. 3	1명 증원	156명	행자부 정원 승인 (지적7급)	개발업무 확대에 따른 총원	부산(증1)
2006. 8. 25		156명	기구 조정에 따른 부산 · 경남 인력조정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67,928	184,706	126,804	139,956	66,912
임시적세외수입	24,795	85,691	52,597	61,269	42,320
자치단체부담금	24,410	84,934	52,066	60,463	41,772
전년도이월금	169	504	487	655	522
기타잡수입	—	13	44	151	26
전입금 등	216	240	—	—	—
국고보조금	43,133	99,015	74,207	78,687	24,592

■ 세출예산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67,928	184,706	126,804	139,956	66,912
경상경비	4,410	5,315	4,746	5,089	4,357
개발사업비	63,090	179,254	121,494	134,553	62,344
예비비 등	428	137	564	314	211

(3) 재정운영 방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50%와 사업구역(행정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50%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 지자체에서 각 1/2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5개 지역 21개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하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재정상황으로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정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의 추가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지구개발 가속화를 위하여 기반시설(도로)사업 추진에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으며, 명지국제신도시, 웅동관광레저단지 조성,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사업별 투자유치활동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더불어 BJFEZ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국내·외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민원행정, 직원복지후생 등 행정운영 경상경비에 자원배분을 통하여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이라는 우리 청의 비전 달성을 위해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4) CI



■ 의미

자유로운 무역의 기회 및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무대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Merit를 상징화하였으며, 세계의 리더로 성장하는 기업의 길잡이로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BJFEZ의 비전적이고 진취적 이미지를 표현함.

- 색상 : 황금색을 기본으로 부와 미래 희망을 표시.
- 형상 : 넘실대는 파도(허브 항만)와 비상하는 갈매기의 날개짓을 형상화.

■ 제작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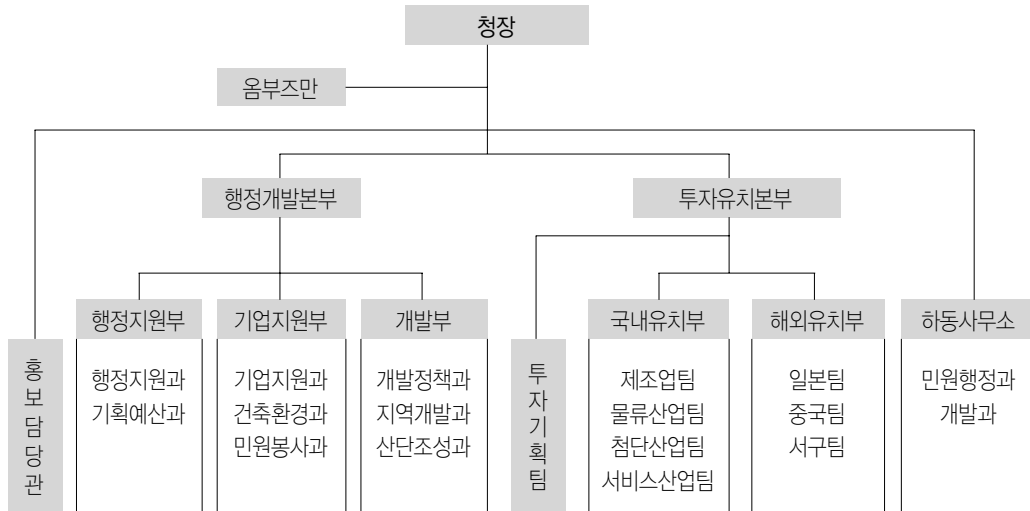
- 제작기간 : 2005. 1. 6 ~ 6. 10(6개월간)

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FEZ) (2012. 12. 31. 현재)

(1) 기구 및 정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 승인된 기구는 2본부, 3부, 3팀, 8과, 1관, 1지소 158명(정원)이었으나, 2005년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한 시군과 사무조정 및 투자유치본부 3개팀을 3개부로 조정하는 2본부 6부 8과 9팀 1관 1지소 158명(정원)으로 조직기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후 2006년 4월 28일 정원 1명 추가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3월 13일에는 하동지소를 하동사무소로 승격하고, 2009년 2월 3일에는 구역내 입주기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지원부서를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2년 9월 11일에 행정개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개편하여, 현재는 2본부, 5부, 1관, 1사무소, 10과, 8팀 159명의 정원을 갖추게 되었다.

■ 기구표 : 2본부 5부 1관 1사무소 10과 8팀(159명)



■ 인력(정원/현원) : 159/129명

구분	총원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159/129	1/1	2/2	6/5	20/20	43/34	66/46	7/12	-/1	14/8
일반직	138/111	-/-	1/1	5/4	13/14	35/29	63/42	7/12	-/1	14/8
개방·계약직	21/18	1/1	1/1	1/1	7/6	8/5	3/4	-	-	-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정원변동내역	정 원	변 동 사 유	세 부 사 유	비 고
최초 2004. 1.27.		158명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	청 신설	
2005. 5.19.		158명	기구 및 조직 개편	1청장 2본부 6부 8과 9팀 1관 1지소	
2006. 2.10.		158명	기구 및 조직 개편	팀별 명칭 및 공보관 직제변경	공보관 청장 직속 배치
2006. 4.28.	1명 증원	159명	정원 1명 증원	하동지소 지적 6급 1명 증원	
2006.10.31.		159명	정배수담당 신설	단지조성과 정배수담당 신설	
2008. 3.13.		159명	기구 및 조직 개편 (하동사무소 승격)	2본부 5부 1사무소 9과 9팀 1관	경상남도 개방형직위 1명 일반직 전환
2008. 9.22.		159명	기구 및 조직 개편 (직제개편)	하동사무소 투자유치팀 직제변경	
2009. 2. 3.		159명	기구 및 조직개편 (기업지원부서 신설)	2본부 5부 1사무소 10과 8팀 1관	
2010. 8.30.		159명	기구 및 조직개편 (투자유치본부 개편)	2본부 5부 1사무소 10과 7팀 1관 1단	
2012. 9.11.		159명	기구 및 조직개편 (투자유치본부 개편)	2본부 5부 1사무소 10과 8팀 1관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16,973	97,973	127,524	128,571	182,395
특별회계	84,091	77,713	98,630	85,340	138,501
용지매각수입	65,033	63,816	81,871	70,724	129,187
이자수입및연체료	1,381	511	442	650	610
전년도이월금	7	—	—	—	131
국고보조금	16,803	12,732	12,500	9,000	74
일반회계전입금	—	—	—	—	—
기타	867	654	3,817	4,966	8,499
일반회계	32,882	20,260	28,894	43,231	43,894
세외수입	15,309	6,847	6,948	6,525	6,964
보조금	17,573	13,413	21,946	36,706	36,930
지방채	—	—	—	—	—
기타	—	—	—	—	—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116,973	97,973	127,524	128,571	182,395
특별회계	84,091	77,713	98,630	85,340	138,501
경상예산	3,496	2,817	2,335	2,280	3,258
인 건 비	3	5	5	5	3
경상적경비	3,493	2,812	2,330	2,275	3,255
사업예산	64,480	57,457	70,189	62,024	62,249
채무상환	15,384	12,434	4,406	2,646	4,573
예비비	724	1,200	1,700	—	14,302
기타	7	3,805	20,000	18,390	54,119
일반회계	32,882	20,260	28,894	43,231	43,894
경상예산	4,151	4,429	4,231	6,446	10,599
사업예산	17,601	13,710	22,619	35,215	31,879
채무상환	—	—	—	—	—
기타	11,130	2,121	2,044	1,570	1,416

(3) 재정운영 방향

2004. 3.24일 개청 이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정부의 지원금(국고보조금), 조합원인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2005년도 중반까지 일반회계만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5. 9. 8일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울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편입).

울촌지방산업단지는 1992. 6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전라남도에서 개발해 왔는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운영해왔던 “울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관리주체의 명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2005. 9. 8일자로 전라남도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다.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비는 사업구역(행정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분양선수금 및 매각대금 수입과 지방채 발행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외에 울촌제1산단 조성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산단내 간선도로 등 일부분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4) CI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지정 당시 인천과 부산·진해권에 비해 대외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는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홍보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CI(Corporate Identity)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일반 공모과정을 거친 후 2005년 4월 CI 개발용역에 착수하여 3개월 뒤인 2005년 7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있는 심볼(Symbol), 로고(Logo), 마스코트(Mascot), 캐릭터(Character), 슬로건(Slogan) 등 8건에 대해서 업무표장(상표)등록을 하기 위해 2005년 7월 29일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특허청 심사결과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로고, 캐릭터 등 6건은 2006년 10월 20일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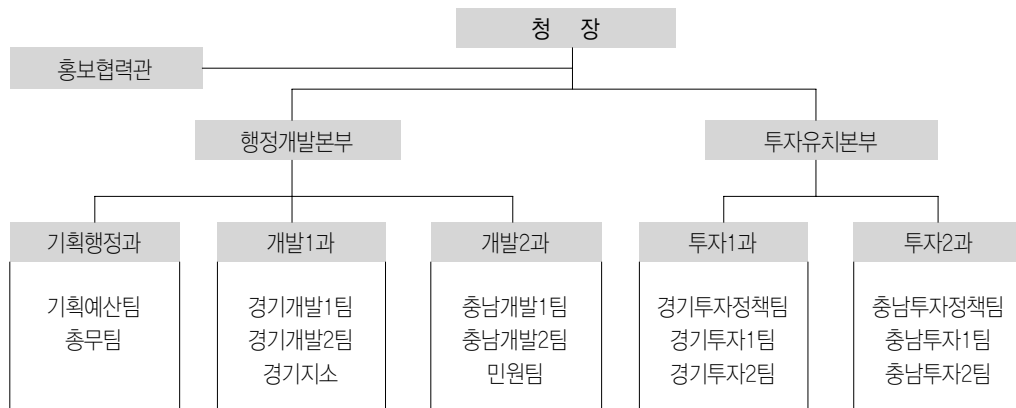
	<p>〈상 표 명〉 : 로고(Logo) 〈등록번호〉 : 42-211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고 상단의 물결 및 역동적인 생명체는 해양도시, 자유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하며, 상단의 적색원은 떠오르는 광양만권의 새로운 역동성, Global Rising을 의미함. 마크 전체적으로는 광양만권의 자유로운 물류교환과 인적자원의 이동을 통해서 Global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p>〈상 표 명〉 : 마스코트(Mascot) “파도리(Padori)” 〈등록번호〉 : 42-210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경제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마스코트 “Padori”는 파도형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파도모양의 머릿결은 역동성과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음. 가슴에 위치한 별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 해양경제도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푸른색은 Global Standard Service를 상징함.
	<p>〈상 표 명〉 : 캐릭터(Character) 〈등록번호〉 : 42-211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단 Blue man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과 지역민을 상징하며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안정적 인프라를 상징함. 상단 Green man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고객들을 의미하며, 이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모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Orange star로 표현해 Global 광양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시각화함.
<p>Mesmerizing GFEZ</p>	<p>〈상 표 명〉 : 슬로건(Slogan) 〈등록번호〉 : 42-211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로고(Logo)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알리는 대표적인 메시지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기회의 땅, 즉 투자의 최적지” 임을 의미함.
	<p>〈상 표 명〉 : 영문 Signature 〈등록번호〉 : 42-210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그니처는 마크와 로고타입을 조직적으로 조합시킨 것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각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통합, 형성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국문 시그니처와 함께 사용됨.
	<p>〈상 표 명〉 : 국문 Signature 〈등록번호〉 : 42-2108호</p>

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YFEZ) (2012. 12. 31. 현재)

(1) 기구 및 정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간 자치단체 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7월 11일 2본부, 6과, 17팀, 129명으로 조직이 신설되었다. 그 후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2012년 5월, 조직개편을 통해 2본부, 5과·1관, 14팀, 129명으로 운영중이다.

■ 기구표 : 2본부 5과 1관 14팀(129명)



■ 인력(정원/현원) : 129/83명

구분	총원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129/83	1/1	2/2	6/5	20/14	40/25	40/23	7/5	-	13/8
일반직	105/75		1/1	4/4	15/14	30/21	35/23	7/4		13/8
개방·계약직	24/8	1/1	1/1	2/1	5/0	10/4	5/0	0/1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정원변동내역	정 원	변 동 사 유	세 부 사 유	비 고
최초 2008.07.11		129명	조합기구·정원승인 (행정안전부, 2008.06.03)	청 신설	
2008.1.1. 이후 ~ 2012.12.31.까지					
2012.5.1	정원변동없이 기구개편	129명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정 개정(2012.05.01)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기구조정(3팀 감축)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3,158,580	5,260,000	5,946,000	4,721,000	3,737,619
세외수입	2,767,237	4,474,943	5,211,700	4,161,000	3,317,619
보조금	391,343	785,057	734,300	560,000	420,000
기타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3,158,580	5,260,000	5,946,000	4,721,000	3,737,619
경상예산	3,066,155	4,690,000	4,666,000	4,393,106	2,920,424
사업예산	50,000	470,000	1,210,000	250,000	755,000
채무상환	-	-	-	-	-
기타	42,425	100,000	70,000	77,894	62,195

(3) 재정운영 방향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충청남도)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는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구역청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운영하고, 사업비는 개발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만을 중점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4)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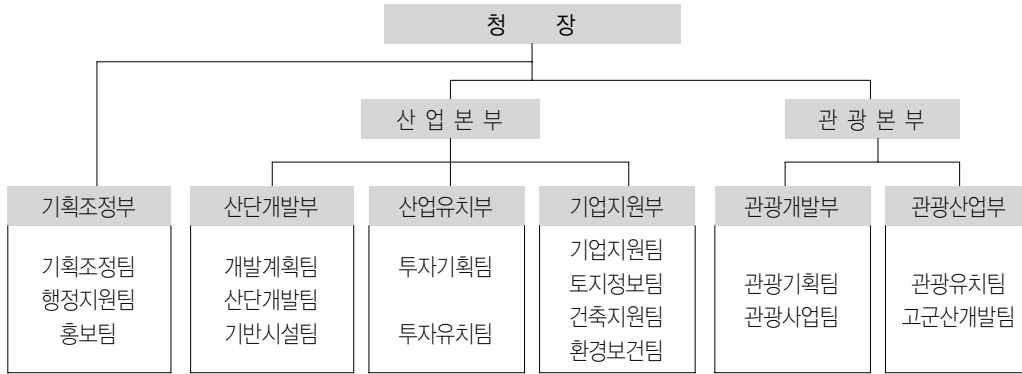


형태적으로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휘돌아 어우러지는 모습을 단순한 이미지로 형상화 하여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상징하고, 칼라표현에 있어서는 오렌지(Orange)와 노랑(Yellow)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파랑(Blue)을 포인트로 적절하게 배치하여 열정과 냉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SGFEZ) (2012. 12. 31.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는 전라북도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15조)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2008.7.10.)가 제·개정되어 1청장 2본부 5부 16팀 73명(개방직·계약직 11명 포함)으로 확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를 위해 2008년 1월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2팀 4담당 16명으로 발족하여, 개청 이후 지구별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활동 등 업무량 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4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개청 시(2008.8) 2본부 5부 16팀 73명에서 2010년 말 정원조정(79명) 및 2011년 7월조직변경을 거친 후, 2011년 말에는 2본부 6부 16팀 78명을 정원으로 두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청장 직속기관으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부를 두어 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감독원의 지휘·감독 및 홍보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인 사업개발과 지구별 독립을 위해 산업본부와 관광본부의 2부를 두었다. 산업 본부는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산단개발부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산업유치부, 군산2국가산단 민원업무와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부의 3부를 두었다. 관광본부는 새만금관광단지의 관광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 하는 관광개발부와 고군산군도지구의 관광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관광산업부를 두었다. 기획조정부는 3개팀, 산업본부 3개부는 9개팀으로 나뉘고, 관광본부 2개부는 4개팀으로 나뉘며 따로 새만금 TF팀을 추가하였다.

■ 기구표 : 2본부 6부 16팀(77명)



■ 인력(정원/현원) : 77/74명

구 분	총원	1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일반직 (정/현원)	68/67	-	2/2	5/5	16/15	17/14	19/17	2/7	7/7
계약·개방형 (정/현원)	9/7	1/1	-	1/1	2/1	3/3	2/1	-	-
합 계 (정/현원)	77/74	1/1	2/2	6/6	18/16	20/17	21/18	2/7	7/7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정원변동 내역	정 원	변 동 사 유	세 부 사 유	비 고
최초 2008. 7.10		73명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청 신설	
2009. 4.23	6명 확대	79명	본격적인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개편(1부2팀증)	도시개발부 업무에서 관광개발부 업무분리	4급1, 5급2 6급2, 기능1
2010. 2. 4	-	79명	새만금방조제 개통이후 새만금관광지구의 차질없는 개발추진과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의 투자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시설지원팀을 폐지하고 업무를 건축시설팀으로 이관, 관광산업부를 관광개발팀을 신설하여 3팀으로 확대	
2010.11. 1	-	79명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 기능별로 조직개편,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는 산업본부에서, 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는 관광본부에서 개발과 투자유치를 동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기획조정부는 3개팀, 산업본부 3개부는 9개팀, 관광본부 2개부는 4개팀으로 정비	
2011. 7.15	1명 감축	78명	관광본부에서 부별로 추진하던 개발과 투자를 사업지구별로 나누어 개발과 투자유치를 1개부에서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	1청장 2본부 6부 16팀 77명으로 정비	7급1
2011.12.23	1명 감축	77명			기능1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345,000	635,000	894,000	2,312,000	2,803,000
세외수입			160,000		
보조금	345,000	635,000	734,000	2,312,000	2,803,000
기타					

■ 세출예산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2,722,018	7,209,791	7,569,778	11,094,581	10,433,899
경상예산	2,722,018	7,152,691	7,510,778	8,382,401	8,485,899
인 건 비	289,744	4,064,724	4,341,981	4,593,812	4,580,726
경상적경비	2,432,274	3,087,967	3,168,797	3,788,589	3,905,173
사업예산	0	57,100	59,000	2,712,180	1,948,000
기타					

(3) 재정운영 방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총 사업비 4조 1,750억 원(국비 5,375 지방비 1,012 민자 3조 5,363)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비는 2조 6,095억 원으로 국비 4,602억 원, 민자 2조 1,493억 원이며 국비는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이다.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간선도로 2,483억 원, 공동구 809억 원, 용수공급시설 322억 원, 폐수 종말처리장 60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388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재협약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새만금관광단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총 사업비 9,518억 원 중 분양 수입금 5,205억 원, 기채발생 2,665억 원과 간선도로, 배수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636억 원, 지방 1,012억 원을 확보하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군산군도지구는 6,137억 원으로 공공 137억 원, 민자 6,000억 원으로 계획되었고 상·하수도,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 부분에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내에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2007. 2월 개발이 완료되었고 용지비 1,360억 원과 조성비 6,648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008억 원으로 조성되었다. 새만금관광단지는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추진 중으로 사업시행자 확정 이후 지경부 방침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2013년부터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군산군도지구는 당초 민자사업만으로 기반 시설 및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상하수도,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 부분에 추가로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4년도부터 민간 자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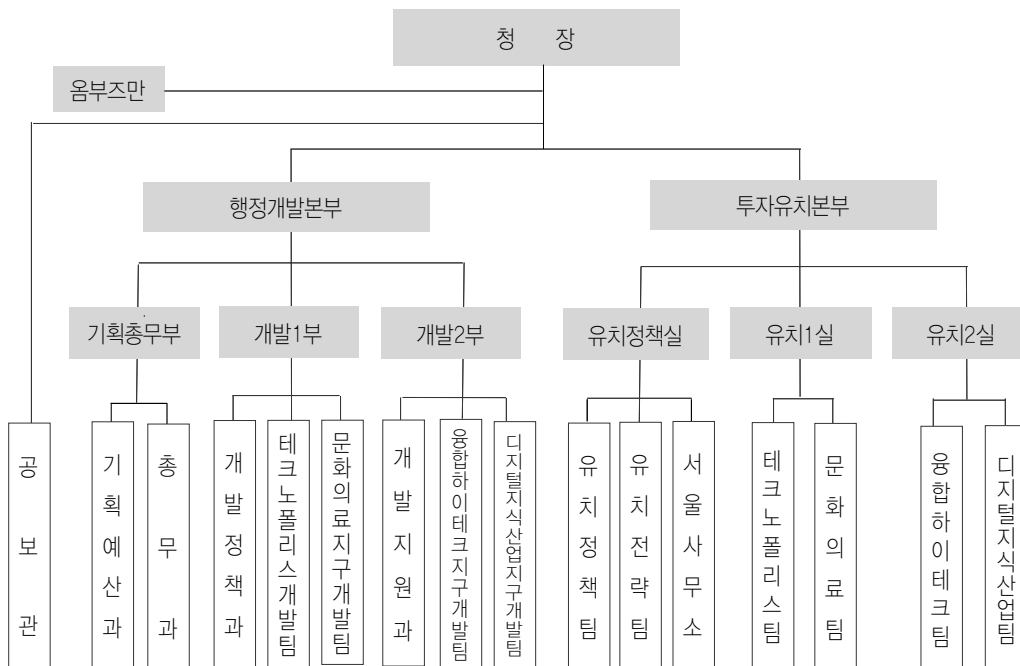
새만금 이는 브랜드 비전과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쉽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만금민간위원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은 'Creating Tomorrow'로 선정되었다. 새만금 '아리울'의 시티마크는 Communication Concept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상징이며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물의 도시' 새만금의 지형적 특성과 자연과 인간이 상생·융합하는 글로벌 녹색 터전으로서의 지향점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CI 심벌의 컬러 중 밝은 녹색은 지형, 녹색도시를 의미하고, 회색은 항구, 글로벌 도시를 의미하고, 청색은 미래의 발전과 풍요를 이루는 경제, 산업, 문화, 관광, 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를 의미하고, 밝은 청색은 무한한 자원, 물, 수변도시를 의미하고, 노란색은 인간중심 휴먼도시를 의미한다. 새만금 브랜드 네임과 CI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새만금 심벌을 활용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CI 개발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0년 4월 청원들을 대상으로 심벌마크와 SGFEZ 글자색상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 심벌에 로고타입을 단일색으로 하는 안을 선호하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C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SGFEZ의 기관마크는 수변과 자연 지형에서 오는 이미지를 역동적으로 시각화하여 물 흐르듯 유연한 움직임이 있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향한 푸른 꿈이 흐르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DGFEZ) (2012. 12. 31. 현재)

(1) 기구 및 정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6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구는 청장, 2본부, 3부·3실, 1관·1옴부즈만·7과·7팀·1지소, 정원은 128명으로 승인받아 2008년 7월 3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을 제정·공포하고, 2008년 8월 13일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11월 3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기존 민원부 축소, 개발부 인력 재배치, 포항지소 폐지 및 서울사무소 신설로 청장, 2본부, 3부·3실, 1관·1옴부즈만·8과·6팀·1소 체재로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1일 보다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개발 및 투자유치 성과제고를 위하여 개발지원부서의 통폐합, 개발부서의 지구별 기능 통합, 유치부서의 인력·기능 보강 등으로 현재는 청장, 2본부, 3부·3실, 1관·4과·10팀·1소, 1옴부즈만의 기구와 128명의 정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기구표 : 2본부, 3부·3실, 1관·4과·10팀·1소·1옴부즈만



■ 인력(정원/현원) : 128/128명

구분	총원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128/128	1/1	2/2	6/6	17/16	31/31	56/60	7/4		8/8
일반직	113/113		1/1	5/5	12/15	29/29	50/53	5/2		8/8
개방·계약직	15/15	1/1	1/1	1/1	2/1	2/2	6/7	2/2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정원변동내역	정 원	변 동 사 유	세 부 사 유	비 고
최초 2008.7.31		128명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제정 공포(08.7.31)	청 신설	
2008.8.13 ~ 2012.12.31					

(2) 예산규모

■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3,778,491	45,839,700	41,770,408	37,983,982	65,939,771
세외수입	3,415,000	15,507,312	21,356,008	18,415,982	29,090,771
보조금	363,491	30,332,388	20,414,400	19,568,000	36,849,000
기타					

■ 세출예산

(단위:천원)

회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회계	3,778,491	5,884,530	41,770,408	37,983,982	65,939,771
경상예산	3,778,491	3,920,961	3,493,278	4,297,283	5,220,434
사업예산		1,963,569	38,277,130	33,686,699	60,719,337
기타					

(3) 재정운영 방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50%와 사업구역(행정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50%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1/2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5개 지역 10개 자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재정상황으로는 원활한 개발사업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의 추가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CI(Corporate Identity)

《심벌마크》



DGFEZ 심벌마크는 둥근 원안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모양의 아이콘으로, 국제적 교육수준 등 지식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글로벌 지식 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DGFEZ의 특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밝고 다양한 컬러를 아이콘에 활용함으로써 건강, 의료, 문화창조, 첨단 IT 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인프라가 구축된 비즈니스 최적지인 DGFEZ를 표현하고 있다

《DGFEZ 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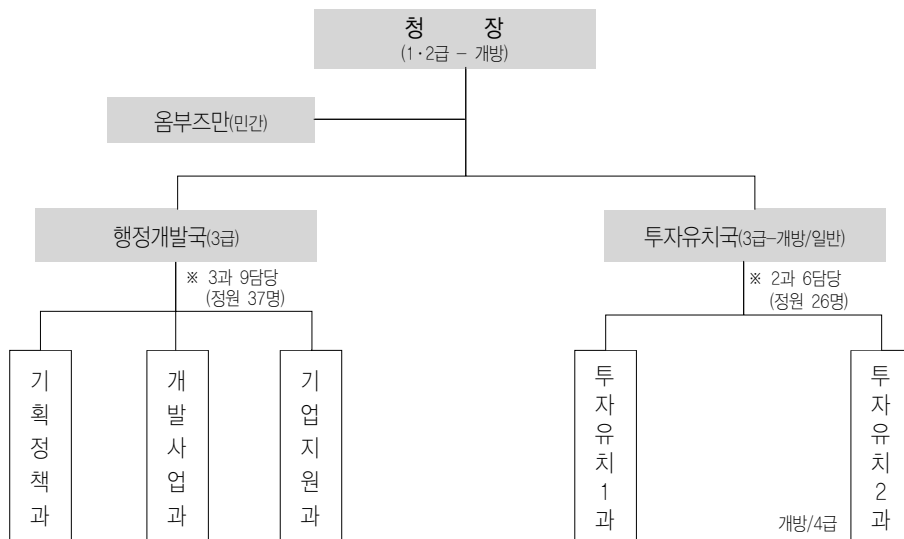


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EFEZ) (2013. 4. 30. 현재)

(1) 기구 및 정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 출장소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2본부 5과 1담당관 15담당 63명(정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 기구표 : 2본부 5과 1담당관 15담당(63명)



■ 인력(정원/현원) : 63/63명

구분	총원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63/63	1	3	5	15	25	12	2	0	1
일반직	55	1	2	4	14	20	11	2	-	1
개방·계약직	8(1)	-	(1)	1	1	5	1	-	-	-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정원변동내역	정 원	변 동 사 유	세 부 사 유	비 고
최초 2013. 4. 30.		63명	청 설치조례, 규칙	청 신설	

(2) CI(Corporate Identity)



영문 첫글자인 알파벳 'e'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EFEZ의 도전 정신을 고래 모습으로 상징화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안착과 강원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열정의 색깔인 붉은색(Red)으로 표현하였다.

■ 로고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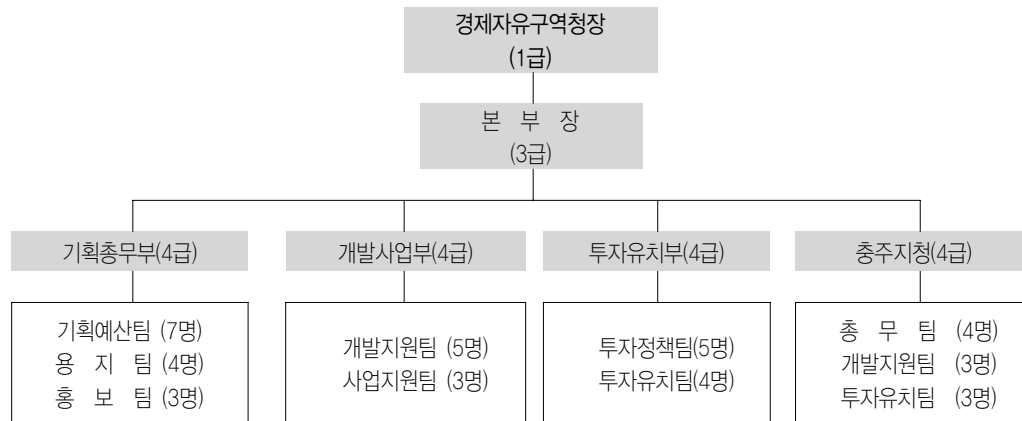
① 국문	② 영문
동해인권경제자유구역청	East coast Free Economic Zone
③ 국영문 혼합형	
동해인권경제자유구역 East coast Free Economic Zone	동해인권경제자유구역청 East coast Free Economic Zone

아. 충북경제자유구역 (CBFEZ) (2013. 4. 30. 현재)

(1) 기구 및 정원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 115조에 의해 도 출장소로 출범 되었으며, 당초 안전행정부에서 총 63명 (1청장, 2본부, 5부)으로 승인하였으나,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상황에 맞춰 우선 총 47명(1청장, 1본부, 3부, 1지청)으로 출범, 향후 본격적인 개발과 함께 총 정원을 맞출 계획이다.

■ 기구표 : 1본부, 3부, 1사업소 / 10팀



■ 인력(정원/현원) : 63/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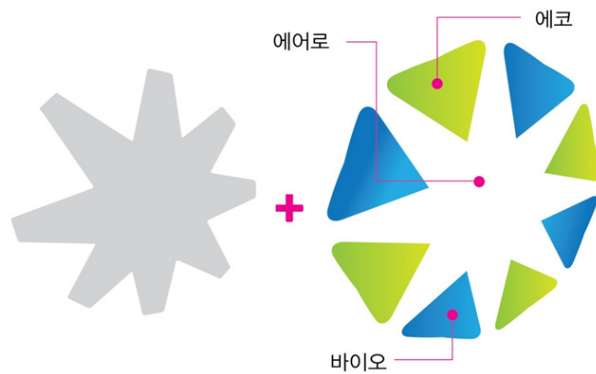
구분	총원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47	1	1	4	10	16	12	1		2
일반직	46		1	4	10	16	12	1		2
개방·계약직	1	1								

■ 기구 및 인력 변동 현황

일 자	정원변동내역	정 원	변 동 사 유	세 부 사 유	비 고
최초 2013.4.26.		63명	청 설치 조례, 규칙	청 신설	

(2)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 제작 컨셉]



-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모티브인 바이오·에어로·에코를 의미하는 3개의 상징이 하나로 모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 짐을 이미지로 표현
- 전체적인 컨셉은 태양을 상징화하였으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음(충북경제의 희망)을 의미

시그니처(영문조합)	시그니처(국문조합)
<p>BASIC SYSTEM 영문조합 기본형</p>	<p>BASIC SYSTEM 국문조합 기본형</p>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FREE ECONOMIC ZONES
10 YEARS HISTORY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비전

제1절

경제자유구역이란

1.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통칭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국내 타 지역과는 달리 일정한 경제 활동 부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특별 지역이 존재한다. 경제특구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단일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점차 복합기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인센티브와 각종 재정 지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규제 적응을 배제하는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주거시설 및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도시 서비스업, 해외교육기관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복합형 경제특구로 볼 수 있다.

표 2-1 ▶ 경제특구의 유형 구분

구분	내용	사례
무역 중심형	일반적인 자유무역지역 형태로 지리적 이점, 물류 인프라 등을 활용한 국가간 교역기능을 위한 지역	한국 자유무역지역 미국 외국무역지역 일본 수입촉진지역
생산 중심형	저렴한 생산비용, 세제 혜택 등을 이점으로 기업의 생산 거점을 유치하는 지역	한국 외국인투자지역 멕시코 마길라도라 중국 초기 경제특구
금융 중심형	금융관련 제반 규제와 조세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국제금융 기능 유치	바레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복합형	교역, 생산, 금융 등이 결합된 형태로 제조업 외에 서비스 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역	홍콩, 싱가포르 중국 푸둥신구 두바이

주) 자료 : 한국 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남덕우 외, 200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외자유치 전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유치 전략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력, 값싼 지가 등을 경쟁력으로 일대일 접촉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이었다면 경제자유구역은 도시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그 도시의 경쟁력이 외자 유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주거·상업 시설, 관광·산업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경영 환경과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표 2-2 ▶ 기존 외자유치 방식과 경제자유구역 비교

구분	기존 외자유치 방식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저렴한 노동력 값싼 지가	첨단 산업 인프라 질 높은 생활환경
외자유인	의도적인 접촉을 통한 특정 기업 단일 유치 (조세감면 등 혜택이 주요 요인)	산업 집적 효과,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도시 자체의 경쟁력이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연쇄 입주 유도
주요 유치업종	제조업 (특히, 공장 등 생산시설)	첨단 산업 금융, 컨설팅 등 도시 서비스업 세계 유수 교육 및 의료시설 다국적 기업 연구개발센터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완화의 실험장(Test Bed)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험무대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 등과 달리 비교적 넓은 지역단위로 지정되어 구역내에서 다양한 차원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규제완화와 개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효과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교훈들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2. 국내 유사제도와와의 비교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한국에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먼저 국내의 기업을 불문하고 제조업이 공장 등 공업 시설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고 개발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Industrial Complex)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지역(Foreign Investment Zone)이라 한다. 외국인 투자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비슷해서 일견 동일한 제도처럼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히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경영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설과 의료기관까지完비한 최적의 정주 여건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지역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궁극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이 어우러져 자유로운 물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자유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도 유사한 경제특구이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 진흥을 목적으로 국내 수출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공항과 항만에 인접한 지리적 공통점이 있으며, 실제로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이 포함되어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등 대외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특구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유사한 특구 간 통합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통합 시에는 지정과 운영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각 각의 제도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장점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문별로 가장 적합한 특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통합을 논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표 2-3 ▶ 국내 유사 제도와 경제자유구역 비교

구 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 정 권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적 용 법 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1호 및 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 정 목 적	외자유치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외자유치	외자유치 및 국제교역 활성화
지 정 현 황	인천, 부산·진해, 광양·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천안, 대불, 구미, 사천 등	마산, 익산, 군산, 양산, 부산항 등
입주 대상	내국·외국인 투자기업 (단, 내국기업은 인센티브 미적용)	외국인 투자기업	내국·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시 3년간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시 3년간 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관세 유보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 외국 의료기관(영리 포함) 설립 허용 기반시설 국고 지원 임대료 감면 노동규제 완화 (의무 고용 배제 등) 무신고외환거래(1만불 한도) 공문서 외국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훈련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 지원 진입도로, 용수 등 인프라건설 지원 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시설 국고 지원 의무고용제 배제 기술개발 지원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3. 외국사례와의 비교

외국에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로 조성된 경제특구의 사례가 많다. 아일랜드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특구를 만들고 운영하여 그 성과를 확산시키며 발전하였고, 홍콩과 싱가포르도 6~70년대부터 전 지역을 특구화 하였다. 90년대 들어 푸둥 신구와 같은 복합형 특구를 성공리에 조성한 중국과 사막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두바이는 특구 운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에 조성된 해외 경제특구의 경우 대부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복합형 특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부 지역을 제한적으로 특구화하여 입주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며 효율적 운영과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제공을 위해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개념상 경제자유구역과 가장 유사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첨단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다수 입주하여 있으며 전 세계의 고부가가치 인력들이 선호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추고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이들 해외 경쟁국의 사례를 잘 살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표 2-4 ▶ 외국 사례와의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해	두바이	아일랜드
특구운영 (시작일)	6개 지역 (’03·’08년)	전국	전국	푸둥신구 (’90년지정)	자유무역 지대	전국
전담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EDB (경제개발청)	Invest HK	푸둥신구 투자유치반	관리조직 일원화 (항만+세관+자유 무역지대관리청)	IDA (산업개발청)
인센티브	조세감면 재정지원 규제완화	조세감면 재정지원 규제완화	규제완화	재정지원 규제완화	무세금 재정지원 규제완화	재정지원 규제완화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경과하였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필두로 같은 해 10월에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을, 2008년 4월에 황해, 새만금 및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2013. 2월에 동해안권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각각 지정한 후, 지속적인 개발노력과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3년 8월 현재 총 8개구역(448km²) 101개 지구에서 활발한 외국인투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시행과 토지조성 및 주거시설·상업시설·공장입주 등 개발 소요 기간이 15년에서 20년이상 걸리는 장기 개발사업으로서, 초기에 성과를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및 부동산 경기둔화와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까지 전체 개발 사업지 중 44.4%가 개발에 착수되었거나 개발이 완료되었다.

또한 2003년 구역지정 이후 구역 내 외국인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삼성바이오에픽스 등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대학 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서 외국인투자액이 매년 10억달러 이상씩 급증, 2012년말까지 총 67억8천만 달러가 구역내에 투자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단지 및 지역 특구 등 유사특구의 난립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은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FDI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조성' 및 '중국의 빈하이 신구 본격개발' 등 각국의 경제특구 조성경쟁은 지속·심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첨단 제조업 유치에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획기적인 변화 및 활성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3.0 시대를 열기 위하여 발전비전을 그간의 '동북아 지역의 허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새로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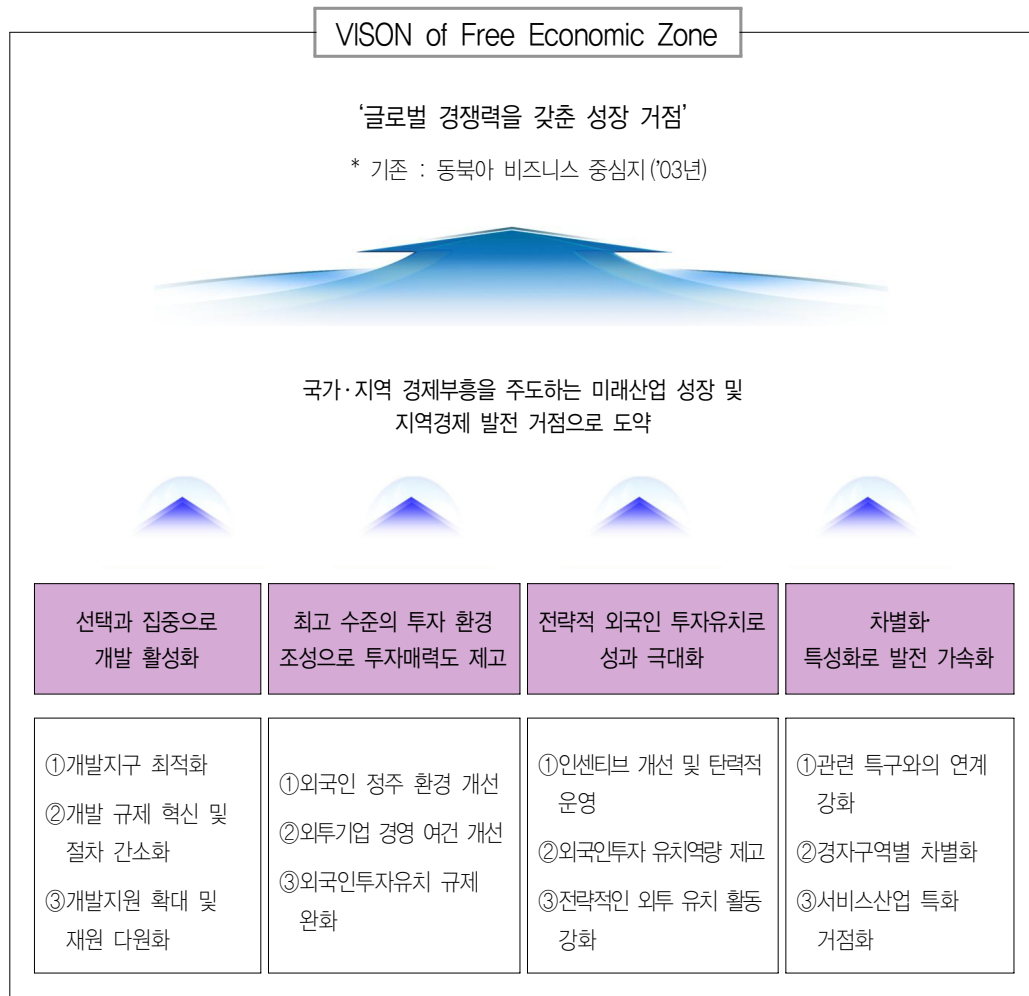


그림 2-1 ▶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제3절

경제자유구역별 현황 및 개발방향

2013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총 8곳으로 2003년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구역이, 2008년에는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구역이, 2013년에는 강원도 및 충북 등 2개 구역이 각각 지정되어 각각의 구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 8월 11일 제2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동해안과 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하며, 세계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중이다. 특히 2012년도에는 국제환경기금(GCF)사무소를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이외에도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24일 제3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되었다. 구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여건을 활용하여 환적화물의 거점, 물류·첨단 산업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될 것이다.

2008년 4월 25일에 지정된 황해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은 각각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충남 아산·당진과 경기 평택 일원에 국제 수준의 첨단기술 산업클러스터와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부가가치 물류기지를 육성하여 환황해안권 첨단산업 성장의 국제협력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여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고군산도 일원의 자연환경을 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동남 내륙지역을 기반으로 국제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 기관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 유치하고, 첨단 IT,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인근의 자동차·항공 산업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지원하는 부품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연구분야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13년에 추가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 개발·활용을 통한 국내경제의 발전 및 통일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중부 내륙 교통요지에 위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표 2-5 ▶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구 분			추진기간	면 적	사업비	외자유치실적(목표)
현행 경제 자유 구역	1차 (’03)	인천	’03 ~ ’20	170km ²	78.0 조원	19.3억불(91억불)
		부산·진해	’03 ~ ’20	83km ²	11.9 조원	13.2억불(46억불)
		광양만권	’03 ~ ’20	86km ²	12.4 조원	7.3억불(25억불)
	2차 (’08)	황해	’08 ~ ’20	14,46km ²	4.7 조원	0.1억불(18억불)
		대구·경북	’08 ~ ’20	33km ²	7.9 조원	0.5억불(20억불)
		새만금·군산	’08 ~ ’20	50km ²	5.2 조원	3.8억불(50억불)
	합 계		—	436km ²	120.1 조원	—
추가 (3차)	동해안	’13 ~ ’24	8,25km ²	1.3 조원	— (30억불)	
	충북	’13 ~ ’20(1단계)	10,77km ²	2.9 조원	— (20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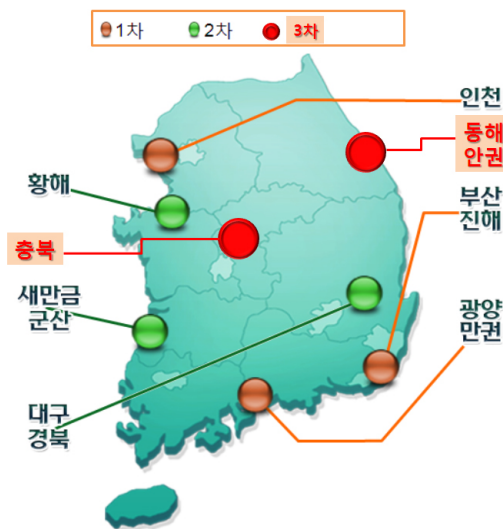


표 2-6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총괄표(2012. 12. 31. 현재)

구분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인천
명칭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인천
위치	충남(당진·아산) 경기(평택)	대구, 경북 (포항·구미·영천·경산)	전북(군산·부안)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
면적	14.9km ² (451만평)	30.04km ² (909만평)	50.4km ² (1,528만평)	169.5km ² (5,136만평)
공항항만	평택·당진항	대구국제공항	군산군장신항	인천공항·인천항
개발시한	2020	2020	2030	2020
지구	5개 지구 • 송악 6.0(182) • 인주 3.4(104) • 포승 2.1(63) • 현덕 2.3(70) • 한중 1.1(32)	10개 지구 • 대구 10.8(327) • 포항 3.8(114) • 구미 4.7(142) • 영천 6.9(208) • 경산 3.9(118)	4개 지구 • 군장 17.4(528) • 새만금 28.6(867) – 산업/관광 • 고군산 44(133)	27개 지구 • 송도 53.3(1,615) • 영종 98.4(2,982) • 청라 17.8(539)
재원	47,615억원	79,592억원	39,479억원	915,504억원
재원 조달	국	3,364(7.1%)	8,162(10.2%)	5,238(13.3%)
	지방	2,484(5.2%)	7,722(9.8%)	1,140(2.9%)
	만·외	41,767(87.7%)	63,708(80%)	33,092(83.8%)
기본구상	• 철강산업 연계 클러스터 • 미래형 자동차 산업, 첨단 물류유통 • 한중일 글로벌중소기업 특화단지 • 한중 교류 특화단지	• 서비스(교육, 의료, 게임, 패션디자인, SW, R&D) • 제조(IT, 융복합, 부품소재, 그린에너지)	• 제조(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부품) •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관광) • 대중국 관광레저	•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거점 •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 • 국제공항·물류 • 레저관광

구분		부산·경남	전남·경남	강원도	충북
명칭		부산·진해	광양만권	동해안권	충북
위치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진해구)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군)	강원(강릉, 동해)	충북(청원, 충주)
면적		83.1km ² (2,518만평)	85.1km ² (2,579만평)	8.3km ² (250만평)	9.08km ² (275만평)
공항항만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여수공항	동해항	청주공항
개발시한		2020	2020	2024	2020
지구		21개 지구 • 신항만 4.6(139) • 명지 9.0(273) • 지사 7.4(224) • 두동 3.3(100) • 웅동 9.2(279) • 기타 49.6(1,503)	23개 지구 • 광양 15.1(458) • 울촌 27.8(842) • 신덕 20.0(606) • 화양 10.0(303) • 하동 12.2(370)	4개 지구 • 북평 4.6(139) • 망상 1.9(55) • 옥계 0.7(23) • 구정 1.1(33)	4개지구 • 오송 4.41(133) • 내수 0.47(14) • 충주 4.20(127)
재원		152,314억원	189,243억원	13,075억원	19,942억원
재원 조달	국	29,915(19.6%)	55,160(29%)	997(7.6%)	2,239(11%)
	지방	22,298(14.6%)	58,036(31%)	997(7.6%)	785(4%)
	민·외	100,101(65.8%)	76,047(40%)	11,081(84.8%)	16,918(85%)
기본구상		• 부산신항 거점 물류·유통 • 국제업무, 해사 • 첨단부품소재 및 R&D • 여가, 휴양, 레저	• 국제물류 생산기반 • 정밀화학, 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육성 • 위락 관광기능 확충	• 첨단소재산업, 물류·비즈니스 산업 • 의료관광, 해양관광 등 명품관광산업 • 비철금속산업, 초경량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 •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	• BT기반의 융합산업 육성 • 중부권 거점공항 및 항공클러스터 조성 • 자동차 관련전자부품 및 친환경 에너지 특화단지

※ 동해안권 및 충북은 2013. 3. 31. 현재

1. 인천경제자유구역 (2012. 12. 31.현재)

가. 지역현황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구, 서구 일원

① (국내여건) IFEZ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의 우수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첨단산업 근로자의 IT, BT, NT 등 지식기반 산업관련 지식경험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공항서비스 세계 1위, 국제화물운송 세계2위의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항공 네트워크, 물동량이 연간 20% 성장하고 2020년까지 최신식 인텔리전트 터미널이 갖춰져 있는 인천항을 통한 해상 네트워크, 유라시아대륙과 연결되는 철도 네트워크와 한국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시스템 등 이상적인 물류기반을 갖추고 있다.

② (국외여건) IFEZ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동북아지역은 아시아 주요경제국인 중국, 일본, 홍콩, 러시아 등을 포함한 세계 경제 규모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핵심지역이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을 가진 61개 도시가 항공편으로 3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역동적인 아시아 비즈니스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2) 인 구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26,616	63,463	80,575	118,188	158,229	
송 도	26,616	33,293	41,425	55,178	61,608	
영 종	-	30,170	34,687	37,235	41,170	
청 라	-	-	4,463	25,775	55,451	

(3) 도로

(단위 : km)

구 분	노선명	노선수	도로폭(m)	연 장(km)	비 고
지방도	광로	20	9~70	41.97	
	대로	99	25~35	75.58	
	중로	318	12~23	128.88	
	소로	866	4~10	86.92	

(4) 철도

(단위 : km)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연장선	동막역 ~ 국제업무지구역	6.5	인천타워역 연장예정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	인천공항 ~ 서울역	61	-
자기부상열차	인천공항 ~ 용유역	6.1	2013.9월개통예정

(5) 공항

(단위 : 백명)

청사면적 (㎡)	계류장면적 (㎡)	활주로길이	연도별 수송인원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32,372.42	3,412,890	1:2활주로 : 3,750m 3활주로 : 4,000m	29,974	28,550	33,479	35,062	38,971	

(6) 항만

구분	항내수면적 (km ²)	부두연장 (m)	동시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천톤/년)	컨테이너 하역능력	수심 (m)
인천신항	-	1,600	6	46,800천톤/년	120만 TEU	14~17

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인프라를 경쟁력 기반으로 지정학적, 환경적, 사회·인문학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개발전략 수립과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곳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별 복합개발 전략 수립

표 2-7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구 분		송도	영종	청라
위 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 중구 영종·용유 일원	인천 서구 경서·연희·원창동 일원
기본 현황	면적(km ²)	53.3km ²	98.5km ²	17.82km ²
	사업비(억원)	21조 5,442억원	19조 7,106억원	6조 7,071억원
	사업 기간	총기간 2003~2020	2003~2020	2003~2015
	(년)	단계별	1단계 2003 ~ 2009 2단계 2010 ~ 2014 3단계 2015 ~ 2020	
	계획인구(인)	257천명	294천명	90천명
개발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 인천테크노파크 • NSIC(송도개발유한회사) • 송도랜드마크시티(유) • 국토해양부, IPA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도시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리포인천개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주요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업무단지 • 지식정보산업단지 • 첨단바이오단지 • 첨단혁신클러스터 • 송도랜드마크시티 • 인천신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 영종하늘도시 • 미단시티 • 용유무의 문화·관광 • 레저 복합도시 • 영종복합리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금융)단지 • 테마파크형 골프장 • 화훼단지 • 첨단산업단지 • 로봇테마파크 • 유통산업 등

(2) 지구별 개발방향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53.3km² · 인구 : 25.7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98.4km² · 인구 : 29.4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17.8km² · 인구 : 9만명
국제비즈니스와 첨단지식 기반산업 중심지 조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물류·관광도시 건설	국제업무(금융)·레저 및 첨단산업 중심지 개발



국제비즈니스·바이오·교육(송도), 항공물류·복합리조트(영종), 금융·유통(청라)
연계 건설로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광역 클러스터 완성

〈송도지구〉

-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숙박시설인 호텔의 조속한 건립 및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 동아제약 등의 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에 활성화에 기여
- 최근 부동산위축에 따른 주택수요변화에 적합한 주택계획 반영과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배치로 정주환경 활성화에 기여
- 아암물류단지(9공구) 본격적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영종지구〉

-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은 사업명칭 변경, 외국인 투자유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유보지 확대, 사업지구 내 중심부에 제척된 생산녹지를 편입 조치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 운북복합레저단지개발사업은 단지 중심 CORE 주변 상업 등 공공서비스 기능 배치, IUDC(주거지역 등 자족기능 도입), LUDC(레저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한 시설 도입·집적화)

〈청라국제도시〉

- R&D 및 첨단산업용지(IHP)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 계획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국내기업 세제혜택 부여 및 대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여 자동차관련 R&D·부품소재 첨단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국제업무, 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단지 등의 청라국제도시 개발 컨셉에 부합되는 청라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차별화, 상징성을 부여 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도모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2012. 12. 31. 현재)

가. 지역현황

(1) 위치

- ① (국내여건) 국내의 양호한 생산기반과 숙련된 노동력, 물류 및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신제품 테스트시장, 신제품 생산 및 개발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남권 산업지대의 배후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형성의 핵심 배후지역으로 관련 산업간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하며,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쟁력은 세계1위 수준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 ② (국외여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2,000km 이내에 인구 14억명에 달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이며, 지역내 국가간 교역,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3대 경제축으로 성장중인 지역의 중심이며, 특히 부산 신흥만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허브 항만으로 세계적 환적항으로서의 우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유라 시아를 잇는 대륙철도(TCR, TSR)연결시 중국의 대규모 시장 확보는 물론 유럽까지 시장 확대가 가능한 동북아 육상화물 수송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인구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70,186	74,252	87,261	89,930	93,104	
부산 강서지역	28,871	31,870	42,634	44,055	45,906	
경남 진해지역	41,345	42,382	44,627	45,875	47,198	

(3) 도로

구 분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국도	2호선	마산~진해~부산	62.25	
	14호선	마산~창원~김해~부산	71.46	
	25호선	진해~창원~밀양	71.33	
	35호선	부산~양산	36.12	

(4) 철도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비고
신항 배후철도	삼랑진-녹산	38.8 (구역내 6.1)	10.12: 복선비전철 개통 11.12 : 복선전철개통

(5) 공항

청사면적 (㎡)	계류장 (㎡)	활주로 (m)	연도별 수송인원(천명)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87,947	382,594	2,743×43 3,200×60	7,202	6,870	8,161	8,749	9,196	

(6) 항만

구분	부지면적 (km ²)	부두길이 (m)	동시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수심 (m)
부산 신항	1,780천	5.45km	5만톤급 13척	965만 TEU	16~18

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4년 7월 계획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달성과 체계적인 발전 그리고 사업지구별 기능 특화를 위해 행정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기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5개 지역 16개의 사업지구들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5개 지역 21개의 사업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지역, 명지지역, 지사지역, 두동지역, 웅동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중심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완될수 있도록 기능을 배치하고, 자연절약형, 직주근접형,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기업의 유치는 물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집중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① 신항만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서 신항만배후지 북측과 남측지구 및 부두를 포함한 총 면적 4,573천㎡이며, 물류·유통 및 국제업무·해사 거점으로 개발된다.

- ② 지사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생산과 R&D기능을 담당하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송정지구, 첨단생산 기능을 담당할 생곡·명동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첨단생산 및 주거 지역인 미음지구를 포함하여 총 면적 7,372천㎡로 조성되고 있다.
- ③ 명지지역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르노삼성자동차 등 주변 기존 생산기능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신호산업단지와 화전지구, 명지지구, 서부산유통단지를 포함한 총 면적 9,010천㎡로 조성되며,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며,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외국인 주거단지의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되고 있다.
- ④ 웅동지역은 총 면적 9,215천㎡으로 향후 신항만의 성장 가능성과 기능의 보완을 위해 조성되며 물류·유통 및 여가·휴양, 관광시설을 갖추게 된다.
- ⑤ 두동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생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주지구, 문화관광자원을 역할을 하게 될 문화지구, 첨단생산시설이 들어설 두동지구와 전문교육 및 R&D 기능을 담당하는 보배지구로 구성되며 총 3,310천㎡로 조성된다.

표 2-8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구 분			신항만지역	지사지역	명지지역	웅동지역	두동지역
위 치			진해구 용원동 강서구 송정동, 천가동	강서구 지사동, 미음동, 송정동, 생곡동	강서구 명지동, 신호동, 화전동, 녹산동, 대저2동	진해구 남양동, 남문동, 수도동, 체덕동, 웅천동	진해구 두동 가주동
기본 현황	면적(km ²)		4.6km ²	7.4km ²	9.0km ²	9.2km ²	3.3km ²
	사업비(억원)		15조 2,314억원				
	사업 기간	총기간	2003 ~ 2020				
	(년)	단계별	1-1단계 2003 ~ 2006, 1-2단계 2007 ~ 2015, 2단계 2016 ~ 2020				
계획인구(인)			24만명				
개발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도시공사 국토해양부 부산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 부산도시공사 원자력산업개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H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항만공사,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시 LH 동아학숙
주요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유통 국제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 R&D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업무 의료·교육·물류 첨단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휴양 첨단산업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생산 국제업무 주거

(2) 지구별 개발방향

명지지구는 국제업무시설, 외국 의료·학교, 컨벤션, R&D, 수변도시 등 국제업무 신도시 조성과 해사업무 종사자, 외국인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지 조성에 목적이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학교·병원 등 생활기반시설과 부산 신항과 연계된 해운클러스터, R&D센터 등 국제비즈니스 시설을 갖춘 정주환경 조성을 통하여 세계속의 동북아 중심 국제도시가 될 것이다.

웅동지구는 신항의 부족한 물류와 유통기능을 지원하고, 구역 내 거주하는내·외국인의 여가 및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퍼블릭골프장, 호텔, 병원, 학교 등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미음지구는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생산 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 기지와 지식기반 산업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개발이 진행중이다.

남문지구는 신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 및 첨단소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지구내 R&D·신항 종사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 중이며, 외국인 투자지역에 첨단 제조 외투기업을 유치 하여,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지역연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중이다.

생곡지구는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도모 및 부산과학산업단지와 미음지구 등과 연계한 첨단생산 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2012. 12. 31. 현재)

가. 지역현황

(1) 위치

- ① (국내여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최남단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부산·경남권, 서로는 광주·목포 광역권, 남으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북으로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인접하고 있다. 서울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40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2011년 4월 광양~전주(순천~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303km로 단축되게 되었으며, 국토 균형발전의 하나의 축일 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과 함께 우리나라 3각 물류수송체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 ② (국외여건) 동북아시아 태평양의 기간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과 태평양 지역 주요항만의 연결축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유럽항로는 부산보다, 북미와 일본항로는 인천보다 더 유리한 위치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의 교역규모가 커질수록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양항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인구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764,377	761,582	741,611	775,842	774,125	
여수시	297,178	293,546	295,878	295,538	295,215	
순천시	271,035	271,106	247,195	273,805	275,451	
광양시	142,399	144,629	146,679	152,167	152,224	
하동군	53,765	52,301	51,859	54,332	51,235	

(3) 도로

(단위 : km)

구 분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논산 ~ 순천	194.0	
	남해고속도로	순천 ~ 부산	168.1	
	순천~완주고속도로	광양 ~ 전주	117.8	
	영암~순천고속도로	영암 ~ 순천	106.8	
국도	국도 17호선	여수 ~ 용인	406.0	
	국도 2호선(우회)	순천 월전 ~ 광양 진정	22.3	
	국도 17호선(우회)	순천 신성 ~ 순천 선평	13.2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여수 원래 ~ 광양 중마	9.6	

(4) 철도

(단위 : km)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전라선	익산~여수	194.2	
경전선	목포~부산	300.6	
전라선 복선화	익산~순천	154.2	
경전선 복선화	광양~진주	51.5	2015 준공 예정
광양 컨부두 인입철도	초남~컨부두	7.1	

(5) 여수공항

청사연면적 (㎡)	계류장 (㎡)	활주로 (m)	연도별 수송인원(천명)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13,300	41,868	2100×45	641	613	657	627	632	

(6) 항만

구분	항내수면적 (km ²)	부두연장 (m)	동시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천톤/년)	컨테이너 하역능력	수심 (m)
계	122.99	18,994	84	195,765	5,400천/TEU	13~40 (최대 30만톤 선박 입출입 가능)
광양항	118.003	11,912	48	77,835	5,400천/TEU	
여수항	4.987	7,082	36	117,930	—	

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전라남도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및 경상남도 하동군 등 2도 4개시군 일원 85.12km²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업경영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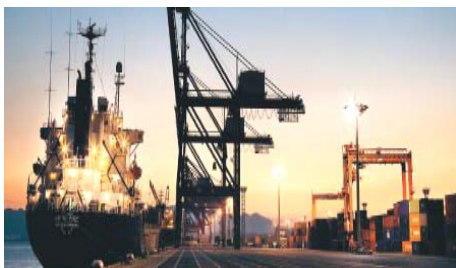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표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하위 목표로 국제물류 및 생산거점 육성과 생산기반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유사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표 2-9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구 분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위 치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길동, 도이동, 금호동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군
기본 현황	면적(k㎡)		15.11k㎡	27.86k㎡	19.99k㎡	9.99k㎡	12.17k㎡
	사업비(억원)		2조 1,799억원	3조 7,700억원	4조 1,159억원	1조 4,433억원	2조 8,199억원
	사업 기간 (년)	총기간	2003 ~ 2020				
		단계별	1단계 2003 ~ 2010, 2·3단계 2011 ~ 2020				
		계획인구(인)	65.9천명	27.2천명	4.7천명	1.1천명	9.6천명
개발사업시행자			• 국토부 • 여수광양항만공사 • 전라남도 • 광양시 등	• 국토부 • 전라남도 • 여수광양항만공사	• 전라남도 • 순천시 • 광양시 • (주)광양개발 • 순천에코밸리(주) • (주)대우	• 일상해양산업(주)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개발사업단(주) • 대송산업개발(주)
주요개발계획			• 컨테이너부두 • 항만배후부지 • 복합물류	• 조선·기계 • 항만개발 • 생산·물류	• 주거지원 • 교육·의료 • 소재산업	• 관광레저 • 해양스포츠, 휴양	• 조선산업 • 연구·교육 • 주거·휴양

(2) 지구별 개발방향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 확보를 개발전략으로 삼고 있는 광양지구의 개발방향은 국가의 Two-port 체제에 맞는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환적화물 활성화를 위한 기능 유치와 함께 제철관련 재료 및 비철금속 거점화를 통한 물류기능 유치이며, 이를 위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1·2단계, 포스코터미널 CTS, 황금산업단지 및 성항국제비즈니스파크 등 6개 단지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울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울촌지구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석유화학 단지와 철강 등 기반산업 관련 공장유치를 통한 생산기능 활성화,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를 위한 기능 유치를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울촌 Ⅰ·Ⅱ·Ⅲ 산업단지 조성, 울촌 항만부두 건설 등 4개 단지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정주를 위한 교육·의료허브로 거듭나게 될 신덕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배후 기능 유치와 교육·주거·레저 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대배후단지,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용강그린테크밸리,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신대휴먼그린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등 8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레저·관광허브로 성장하고자 하는 화양지구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관광·레저, 스포츠, 휴양기능을 유치하여 본격적인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과 지원기능의 역할을 하게 될 하동지구는 광양제철과 연관된 선박관련 산업유치와 주거·업무·레저기능이 조화된 배후지원 기능 유치를 위한 방향으로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덕천에코시티, 두우레저단지, 대송산업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4. 황해 경제자유구역 (2012. 12. 31. 현재)

가. 지역현황

(1) 위치

- ① 경기·충남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당진시 일원은 서해안고속도가 관통해 수도권 및 호남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에 평택·당진항이 위치하여 인천항의 포화된 수도권 항만물동량 수송을 분담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향후 대중국에 대한 물류 전진기지로의 부상이 기대되고 있다.
- ② 그리고, 저렴한 지가 및 풍부한 노동인력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투자 여건으로 외국인 투자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경기·충남 접경지역에는 자동차, 전자정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집적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첨단기술산업분야 클러스터 육성을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2) 인구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805,253	825,213	842,345	879,589	898,069	
평택시	417,503	421,231	419,457	440,183	447,337	
당진시	139,421	141,952	148,337	153,995	159,005	
아산시	248,329	262,030	274,551	285,411	291,727	

(3) 도로

(단위 : km)

구 분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고속도로	서해안	전남무안 ~ 서울금천	340.8	
	평택~제천	평택 ~ 충주	57.8	
	당진~상주	당진 ~ 상주	171	
일반국도	1	목포 ~ 신의주(판문점)	496.6	
	32	태안 ~ 대전	171.7	
	38	서산 ~ 동해	300.3	
	82	평택 ~ 화성	13.1	
국가지원지방도	23	천안시 ~ 자유IC	116.7	
	70	구룡리 ~ 신동면	138.9	
	82	포승읍 ~ 죽산면	89.3	

(4) 철도

(단위 : km)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경부선	서울 ~ 부산	441.7	
경부고속선	서울 ~ 부산	346.4	

(5) 항만

구분	항내수면적 (km ²)	부두안벽 (m)	동시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천톤/년)	컨테이너 하역능력	수심 (m)
평택·당진항	98,972	9,330	58	69,978	960	11~18

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첫째,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이다. 산업 중심의 지식창조형(생산·교역+R&D기반+첨단산업클러스터+지식네트워크)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국제적 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對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이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에 대처하고, 날로 증가하는 대중국 교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평택·당진항의 항만기능 강화도 병행될 예정이다.

표 2-10 ▶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구 분		송악지구	인주지구	포송지구	현덕지구
위 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	충남 아산시 인주면 갈매리 일원	경기 평택시 포송읍 희곡리 일원	경기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원
기본 현황	면적(km ²)	6.02km ²	4.05km ²	2.07km ²	2.32km ²
	사업비(억원)	1조8,993억원	1조3,395억원	8,458억원	6,604억원
	사업 기간	총기간 2008 ~ 2020	2008 ~ 2020	2008 ~ 2020	2008 ~ 2020
	단계별	1단계 2003~2014 2단계 2015~2020	1단계 2003~2014 2단계 2015~2020	1단계 2003~2013 2단계 2014~2020	1단계 2003~2014 2단계 2014~2020
계획인구(인)		28천명	4천명	6천명	3천명
개발사업시행자		(주)당진테크노폴리스	—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
주요개발계획		• 철강화학 클러스터 • 유통물류 • R&D등	• 자동차생산 부품 • 유통물류 • R&D등	• 자동차부품 • 외국인임대 전용단지 • R&D등	• 자동차부품 • 전자정보 • 기계금속

(2) 지구별 개발방향

(가) 송악지구

철강·화학 클러스터 및 외국인 정주공간 기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할 계획이다. 철강제품 유통센터 집적지, 철강제조업 단지, 철강관련 물류센터등이 입주될 예정이고 화학, 특수철강 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단지(R&D)와 주거, 병원, 국제학교 등 외국인 정주공간도 조성된다.

(나) 인주지구

미래형 자동차산업 및 명품주거·휴양도시에 중점을 두어 개발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 연구·생산시설이 들어서고 자동차생산 및 부품 등 글로벌 자동차 관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명품 전원주거단지도 조성된다.

(다) 포송지구

특화 주거단지, 자동차부품 복합단지, 평택항 지원 물류단지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축의 중심기능 및 대중국 상업업무·물류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종사자 및 평택항 이용자를 위한 주거·업무 기능 지원과 평택·당진항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된다.

(라) 현덕지구

글로벌(한-중-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중·일지역의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제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분야별 협동조합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집적화 유도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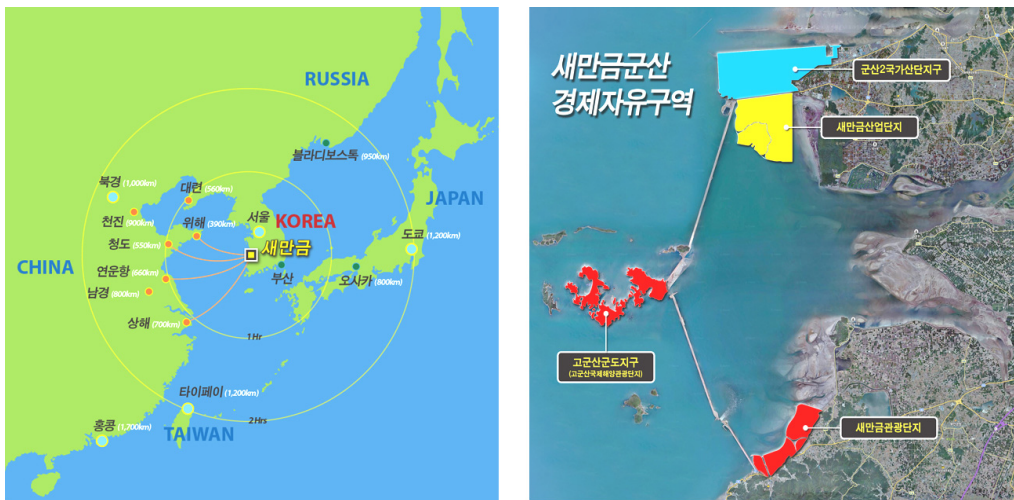
(마) 한중지구

한중교류특화 및 중국투자 촉진지구로 조성된다. 수도권 지역의 첨단 자동차부품 메카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평택·당진항 개발과 관련해 항만 연관 대중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5.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2012. 12. 31 현재)

가. 지역현황

(1) 위치



- ① (국내여건) 새만금사업은 동북아 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부상할 ‘글로벌 명품 도시’를 건설하고자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지 283㎢와 담수호 118㎢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지역의 각 용지는 첨단농업기능, 산업기능, 관광·레저기능, 물류·유통기능, 국제업무기능, 과학·연구기능, 신재생 에너지기능, 주거기능의 8개 기능을 특화하였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의 선도사업을 주도하면서 환경해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급부상하고 있고, 새만금 지역의 위상을 ‘가능성’의 단계가 아닌 구체적인 ‘가시화’의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산업용지를 새만금 산업지구로, 복합도시용지의 일부분을 새만금 관광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매립공사 및 기반공사,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이라는 광대한 토지, 공간적 입지 그리고 물류 인프라를 완비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구비한 곳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미래형 신산업의 집적토대를 형성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우호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북 지역 내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다면 전북 경제의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전북권은 서해안 발전축을 따라서 ‘L’자형 광역 산업벨트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격자형 국토공간구조에서 대전·충청권, 광주·전남권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 (국외여건) 동북아경제권은 아시아의 동북부지역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해 있으며, 세계인구의 22.2%, 세계 GDP의 18.6%, 세계 무역량의 16.0%를 담당하고 있는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권 중 환황해권은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의 서해안권 및 남해안권을 비롯하여 중국의 동해안권 (랴오닝성·허베이성·산둥성·장쑤성·저장성·베이징시·톈진시·상하이시 등), 일본의 큐슈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52개이고, 반경 1,200km 이내 7억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이 수치는 미국과 EU의 인구 보다 많다. 환황해권은 한국·중국·일본이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국·일본이라는 주요 경제대국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지역의 중심지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인구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군산시	263,845	266,922	272,601	275,449	278,341	-
부안군	61,323	60,661	60,597	59,555	59,080	-

(3) 도로

(단위 : km)

구 분	노선명	구 간	연 장	비 고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전주-서울	207.9km	-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서울	214.5km	-
국도	국도4호선	군산-서천	17.2km	-
	국도21호선	군산-보령	61.9km	-

(4) 철도

(단위 : km)

노선명	구 간	연 장	비 고
군산선	군산-익산	23.1km	-
옥구선		11.6km	비정기화물노선
장항선	군산-장항	11km	-

(5) 군산공항

청사면적 (㎡)	계류장 (㎡)	활주로 (m)	연도별 수송인원(천명)					비 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853	13,758	94,568	100	156	175	172	162	-

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일원에 4개 지구 총 50.39㎢를 지정하였다. 총 4조 1,75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정부의 새만금개발계획에 맞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과 관광의 2가지 분야로 크게 나뉜다. 2개 분야는 군산2국가산업단지·새만금지구(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의 3개 지구(4개 단위지구)로 되어있으며 산업집적 및 개발효과의 극대화 가능성과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친환경 지식기반산업 입지여건과 교통접근성, 자연경관과 해양레저 등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 정주환경 조성여건 등의 기준에 의해 지구를 나누었다. 각 단위지구별 특색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지구별 특화개발 방향을 갖고 있고, 각기 자원마련, 토지이용, 부지확보, 환경조성 계획 등이 세워져 있다.

표 2-11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구 분		새만금지구		고군산군도지구	군산2국가 산단지구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새만금지구 관광단지		
위 치		군산시 인근 새만금간척지 일원	부안군 인근 새만금간척지 일원	군산시 옥도면	군산시 오식도,비응도동
기본 현황	면적(km ²)	18.7	9.9	4.36	17.4
	사업비(억원)	26,095	9,518	6,137	8,008
	사업 기간 (년)	총기간	2008~2018	2008~2019	2008~2020
		단계	1단계 : '08~'14 2단계 : '11~'18	I 단계 : '08~'13 II 단계 : '12~'19	I 단계 : '90~'02 II 단계 : '90~'04 III 단계 : '90~'06
	계획인구(인)		30,107	1,500	
개발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개발계획 (km ²)		산업물류 9.8 상업업무 1.1 주택건설 0.6, 공공시설 7.2	관광시설 4.8 상업업무 0.3 주택건설 0.2 공공시설 2.7 기타시설 1.9	공공편익 2.98 운동오락 0.18 휴양문화 0.56 숙박시설 0.23 상가시설 0.02 기 타 0.39	산업시설 11.1 공공시설 4.2 상업시설 0.2 항만시설 1.5 주거시설 0.4

(2) 지구별 개발방향

(가) 새만금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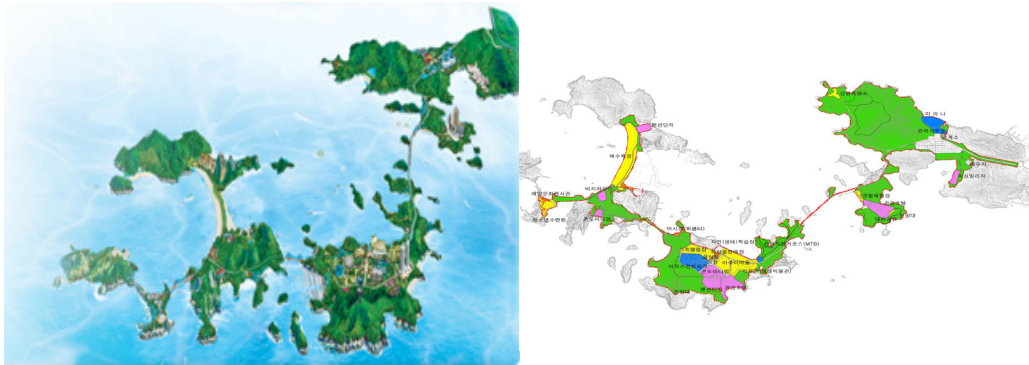
미래형 신산업과 특화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제2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새만금 간척지 일원 18.7km²이며, 2018년까지 2조 6,095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된다. 새만금산업단지는 단순히 제조업 생산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산업+업무+상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산업도시로 투자환경과 정주환경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첨단부품소재, 기계·조선, 미래형자동차, 태양광·풍력 등의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식 창조형 산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한다. 녹색기술과 첨단산업이 만나는 글로벌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 창조형 산업과 환경친화형 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도입시설은 산업 생산시설을 비롯하여 국제 업무와 연구개발을 담당할 시설이며, 군산제2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생산 기능과 R&D 국제 업무 등의 연계를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부품소재·기계·자동차·조선 등 미래형 첨단산업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새만금 간척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변 녹지체계를 형성하고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을 녹지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나) 새만금관광단지

새만금명품복합도시와 연계하여 레저파라다이스로 조성될 새만금관광단지는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새만금마스터플랜의 명품복합도시개발을 선도해 나가게 된다. 새만금 간척지 중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인접한 9.9km²(1단계 1.0km², 2단계 8.9km²)를 2019년까지 9,518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게 되며 대규모 골프단지,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문화·공연시설 등을 도입하여 체험·체류형의 관광·레저공간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휴양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 고군산군도지구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신비로운 푸른 섬 고군산군도는 군산시 옥도면의 60여 개의 섬이 잘 어우러져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 섬 중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의 4,36km²에 2020년까지 6,137억 원을 투자하여 새만금방조제,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고군산군도는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조성된다. 이곳에 호텔, 마리나, 카지노, 워터파크, 갯벌 체험장, 생태·해양박물관 등을 도입하여 고군산군도를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과 대중국 교류증가에 대비한 국제적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라) 군산제2국가산업단지



군산시 오식도동과 비응도동 일원의 군산제2국가산업단지는 총면적이 17.4km²로 지난 2007년 6월 개발이 완료된 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주요 유치업종은 섬유제품, 펄프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을 제외한 전 업종이고 현재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253개 업체는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업체는 88, 미착공 기업이 37, 휴·폐업이 7개 업체이다. 또 동 기준 내 생산 및 수출실적을 살펴 보면 생산액은, 22,616억 원, 수출액은 1,052백만 달러, 고용인원은 9,169명이다.

6.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2012. 12. 31. 현재)

가. 지역현황

(1) 위치

(가) 대구광역시

- 국토공간상 동남부 내륙에 입지하고 전통적으로 영남권의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국토 영남권 중심도시임.
- 경부선 축 상에 입지하여 고속철도(KTX)로 서울은 1시간 40분, 부산은 1시간 거리이며, 경부·중앙·중부내륙·88·신대구부산·대구포항 고속도로 등 발달된 고속교통망의 요충지로서 매우 양호한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음.
- 낙동강 중·하류에 입지하여 배후에 광활한 토지자원을 보유하고,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기에 유리함.
- 중심도시로서의 위치와 양호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물류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근 칠곡군 지천면에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를 건설 중임.

(나) 경북 포항시

- 포항시는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청송군, 영덕군, 서쪽에는 영천시, 남쪽에는 경주시,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하고 있음.
- 동해안의 관문으로 공항·항만·도로·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안권의 중심도시이고 북한, 러시아, 일본을 아우르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대구까지 대구포항간 고속국도를 경유 40분정도 거리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철강공단(POSCO)과 영일만항, 포항공단(POSTECH), 한동대학교 등 산업시설과 R&BD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

(다) 경북 구미시

-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쪽에는 칠곡군, 서쪽에 김천시, 북쪽에는 상주시, 동북쪽으로는 군위군 및 의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김천·상주를 포함하는 경북서부지역의 중심산업도시이며, 대구까지는 경부고속도로를 경유 30분정도 거리임.
- 기존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유등 광역교통망이 잘 구비되어 있음.
- KTX전용선 완공 후, 경부선을 활용한 구미~대구~경산 구간의 광역전철망이 구축될 예정으로 대구권과의 접근성이 더욱 양호해져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라) 경북 영천시

- 경상북도 남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주 등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 특히 포항 영일신항 건설은 영천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대구선과 중앙선 철도의 분기점이고, 경부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경유하는 양호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음.
- 향후 대구선과 중앙선이 복선전철화 될 경우 대구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마) 경북 경산시

- 경상북도의 남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남쪽으로는 청도군, 동북쪽으로는 영천시 등과 인접하여 있음.
- 포항, 경주, 울산, 부산 등 남동쪽 지역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대구광역시와 연접하여 대구의 일상생활권내에 속해있어 대도시 근교도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님.
- 이러한 위치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산시는 근교 대학도시, 근교 주거 및 공업, 근교 농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농복합 도시라고 할 수 있음.

나. 여 건

(1) 인 구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372,569	2,381,093	2,412,937	2,430,135	2,438,970
대구 수성구	451,732	456,196	461,988	461,083	459,779
대구 동구	330,996	331,421	337,529	341,206	342,092
대구 남구	175,317	171,873	171,197	169,095	168,715
대구 달성군	171,001	176,135	178,899	180,351	184,366
경북 포항시	508,119	509,475	514,755	517,088	518,913
경북 경산시	237,423	236,459	240,459	243,684	246,358
경북 구미시	393,959	396,419	404,920	413,446	416,949
경북 영천시	104,022	103,115	103,190	104,182	101,798

(2) 도 로

(단위 : km)

구 분	노선명	구간	연장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대구 ~ 경북	155.4
	구마고속도로	현풍 ~ 금호	36.1
국 도	국도3호선	김천~대구~경주	30
	국도4호선	경남~대구~칠곡	585.8

(3) 철 도

(단위 : km)

노선명	구간	연장
경부선	서울 ~ 부산	441.7
대구선	가천 ~ 영천	29

(4) 공 항

청사연면적 (㎡)	계류장 (㎡)	활주로 (m)	연도별 수송인원(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6,617,283	41,582	123,975	114만8	114만8	114만8	114만8	114만8

다. 개발방향

(1) 기본방향

- 세계경제가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향후 지식기반 경제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임. 이에 물류 및 서비스 중심의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식 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
- 지식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 3대 목표와 전략을 수립함.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 모델도시 정립
 - 내륙의 입지여건과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
 -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형 경제자유구역 모델 구축
- 대구경북의 공동추진 지역간 상생번영을 도모하고 경제통합 실현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광역적 공간 영역화와 지역별 기능특화 및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대구와 경북이 서로 협력

표 2-1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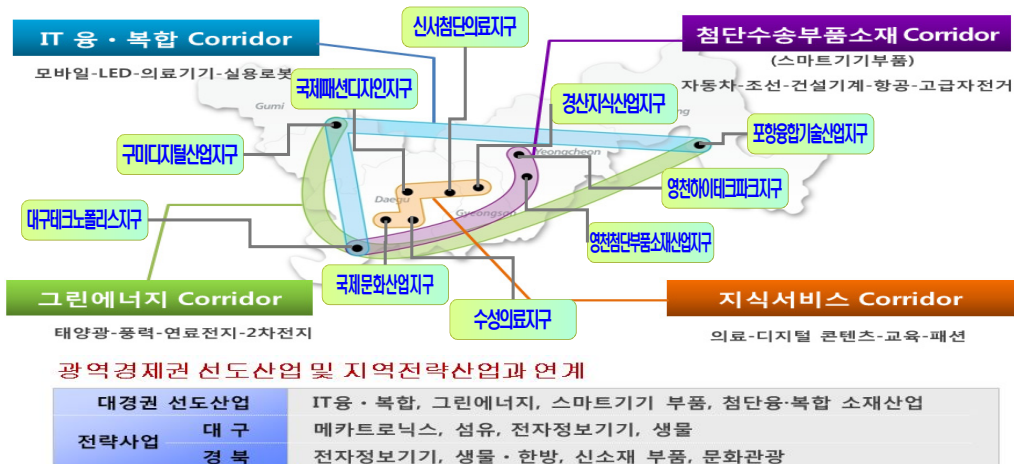
구 분			국제패션디자인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위 치			대구 동구 봉무동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기본 현황	면적(km ²)		1,176km ²	1,054km ²	7,269km ²
	사업비(억원)		12,500	4,072	17,313
	사업 기간 (년)	총기간	2003 ~ 2015	2007 ~ 2013	2006 ~ 2013
		단계별	1단계	1단계	1단계
	계획인구(인)		14,500	2,596	50,217
개발사업시행자			(주)이시아폴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패션, 어패럴산업단지미디어산업단지첨단IT지식산업단지공동주택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클러스터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동차산업단지전기, 전자산업단지바이오산업단지정보통신산업단지

구 분			수성의료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위 치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 남구 대명동	경북 구미시 산동면, 금전동
기본 현황	면적(km ²)		1,219km ²	0.007km ²	4,702km ²
	사업비(억원)		7,717	1,666	13,040
	사업 기간 (년)	총기간	2008 ~ 2016	2008 ~ 2014	2011 ~ 2020
		단계별	1단계	1단계	2단계
	계획인구(인)		6,216	2,596	28,826
개발사업시행자			대구도시공사	미선정	한국수자원공사
주요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료관광단지국제화교육단지IT기반 지식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창조산업단지게임컨텐츠 콤플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태양광산업단지첨단IT산업단지국제교육단지

구 분			경산지식산업지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위 치			경북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경북 영천시 금호읍, 채신동	경북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경북 포항시북구 흥해읍
기본 현황	면적(km ²)		3,917km ²	1,468km ²	5,400km ²	3,756km ²
	사업비(억원)		10,363	2,062	4,965	6,426
	사업 기간 (년)	총기간	2011 ~ 2020	2008 ~ 2013	2011 ~ 2020	2008 ~ 2013
		단계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계획인구(인)		2,158	—	3,380	1,708
개발사업시행자			(주)경산지식 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계부품특화산업단지첨단메디컬신소재 산업단지그린부품소재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첨단산업단지부품소재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동차부품산업단지항공부품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융합산업단지글로벌교육문화타운국제업무단지글로벌 빌리지

(2) 지구별 개발방향

- IT융합(모바일, LED, 의료기기, 로봇)
 - (지역산업동향) 모바일은 수익창출단계, LED는 성장준비단계, 의료기기·로봇은 상용화가 필요한 초기단계임
 - (타깃분야) 모바일관련 SoC, Display 부품, LED 모듈 및 부품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기기 및 로봇으로 확대
 - (해당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수송용부품소재(자동차, 조선, 건설기계, 항공기)
 - (지역산업동향) 자동차·조선은 수익창출단계, 건설기계는 성장 준비단계, 항공기는 상용화가 필요한 초기단계임
 - (타깃분야) 자동차 전장, 지능형 조선부품, 건설기계 부품소재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항공전자로 확대
 - (해당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그린에너지(태양광, 이차전지, 연료전지)
 - (지역산업동향) 태양광·이차전지는 수익창출단계, 연료전지는 상용화가 필요한 초기단계임
 - (타깃분야) 태양광 소재 및 공작기계, 이차전지 소재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연료전지로 확대
 - (해당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 지식서비스산업 (S/W, 게임, 캐릭터, 디자인, 의료, 글로벌교육)
 - (지역산업동향) S/W, 게임, 디자인은 수익창출단계, 캐릭터, 의료, 교육은 국제화가 필요한 초기단계임
 - (타깃분야) 모바일용 S/W, 3D용 S/W, 게임, 캐릭터, 디자인에 집중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및 글로벌 교육으로 확대
 - (해당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 수성의료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 경산지식산업지구
- 지구별 핵심유치업종



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2013. 3. 31. 현재)

가. 지역현황

(1) 위치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일원

① 지정학적 입지여건

- 환동해 각 국의 연안개발과 특구 운영 경쟁에서 우위 확보 필요
 - 블라디보스톡, 훈춘, 나진·선봉, 원산, 부산, 사카이, 니가타 선상에서 동해지역만 누락되어 있음.
 - 특히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계된 GTI(대두만강 개발계획)의 추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 북평을 중심으로 망상까지 약 6km, 옥계까지 약 12km, 구정까지는 약26km에 위치하며, 대상지 주변에 산업단지 및 도시지역이 있음.
- 동해안권의 초경량소재 및 비철금속소재 산업은 동남권의 자동차부품,대경권의 철강, 수도권 및 충청권의 전자부품, 호남권의 자동차 및 신소재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임.

② 지정학적 현황 등

- 동해안권은 최고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경량소재산업 발전의근간이 되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의 보고로서 백운석은 전국 생산량의50%정도를 차지
- 강릉-원주 간 철도예정선이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내로 통과하며, 동해항을 통해 물류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등도 강원 도 동해안권의 교통·물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
-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전통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동해안권의 강릉, 동해는 사계절 복합관광 인프라의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

(2) 인구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계	314,051	312,735	313,739	313,375	311,638	-
동해시	95,652	95,271	95,236	95,804	93,897	-
강릉시	218,399	217,464	218,503	217,571	217,741	-

(3) 도로

(단위 : km)

구 분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국도	국도7호선	북평지구내	L=1.61km	-
	국도7호선	망상지구내	L=0.98km	-
	국도7호선	옥계지구내	L=0.51km	-
	국도7호선	동해 ~ 옥계	L=8.5km	-

(4) 철도

(단위 : km)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인입철도	북평지구내	L=1.3km	-

(5) 항만

구분	항내수면적 (km ²)	부두연장 (m)	동시접안능력 (척)	하역능력 (천톤/년)	컨테이너 하역능력	수심 (m)
계	23.4	5,493	26	45,291	238	30
동해항	13.5	3,412	15	30,074	150	9.5
옥계항	5.6	940	5	8,482	55	11.5
묵호항	4.3	1,141	6	6,735	33	9

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 새롭게 부상하는 환동해 경제권을 선점하고 한·중·일·러간 FTA 대비와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동해안권의 풍부한 첨단소재 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거점을 조성, 강원 경제의 역동성 제고

표 2-13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구 분		북평C지구	망상플로라시티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구정탄소제로시티
위 치		동해시 북평동, 송정동	동해시 망상동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기본 현황	면적(km ²)	4.61km ²	1.82km ²	0.71km ²	1.11km ²
	사업비(억원)	7,855억원	2,666억원	1,004억원	1,551억원
	사업 기간	총기간 2013 ~ 2024	2013 ~ 2024	2013 ~ 2024	2013 ~ 2024
	(년)	단계별 -	-	-	-
	계획인구(인)	3천명	1천명	-	5천명
개발사업시행자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주요개발계획		• 환동해 물류·비즈니스 • 첨단부품소재산업 • 페로알로이 산업	• 환동해권 명품 해양 관광·휴양도시 • 세계적 화훼관광지	• 마그네슘, 리튬 등 초경량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글로벌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2) 지구별 개발방향

(가) 북평 “C(국제복합산업) 지구” · 첨단부품산업, 물류비즈니스 거점

- 개발규모 : 동해 북평 · 송정동 4.61km²
- 사 업 비 : 7,855억원
- 개발계획
 - 첨단부품소재산업 및 물류 · 비즈니스 거점 조성
 - 환동해 비즈니스 센터, 출입국관리소, 수출입 물류기지
 - 지역자원을 활용한 페로알로이 및 첨단소재부품 산업 육성
 - 북평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국제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
 - R&D와 생산이 연계된 자족적 클러스터 형성

(나) 망상 “플로라 시티” · 꽃과 해변의 동북아 명품 관광지

- 개발규모 : 동해 망상동 1.82km²
- 사업비 : 2,666억원
- 개발계획
 - 관광과 화훼수출이 결합된 신개념 복합관광모델로 지속성장 가능
 - 세계화훼전시장, 테마파크, 국제화훼거래소, 치유관광, 해변관광
 -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로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4계절 관광거점 육성 필요

(다)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 지구” ·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 지대

- 개발규모 : 강릉 옥계 0.71km²
- 사업비 : 1,004억원
- 개발계획
 - 마그네슘, 리튬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첨단소재산업 육성
 - 포스코 마그네슘·리튬, 영풍 아연 등 첨단녹색소재의 생산·공급기지
 -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 초경량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라) 구정 “탄소제로 시티” · 국제기준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개발규모 : 강릉 구정 1.11km²
- 사업비 : 1,551억원
- 개발계획
 - 핵심 정주지구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저층·저밀도 주거시설, 에듀 파크,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한 거점지역 확보
 - 전통적인 교육·문화연구 도시의 특성 도입

8. 충북경제자유구역 (2013. 3. 31. 현재)

가. 지역현황

(1) 위치

- ① **(국내여건)**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요충지이며, 지방공항 중 국제선 정기화물기가 유일하게 취항하는 청주국제공항과 세종시와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KTX오송역이 있으며, 충청내륙·제천~평창고속화도로, 동서5축 고속도로, 천안~청주공항 전철 등이 통과하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 ② **(국외여건)** 사통팔달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으로 전국 최적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을 활용할 경우 전국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하며,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할 경우 주변국 중국(상하이, 베이징), 러시아(하바롭스크), 일본(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대도시 권역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

(2) 인구

(단위 : 명)

구 분	2013년도
계	363,182
청원	154,703
충주	208,479

(3) 도로

(단위 : km)

구 분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고속도로	경부(1호)	추풍령~옥산	88,670	-
	당진~상주(30호)	남이~마로	43,630	-
	중부(35호)	현도~삼성	52,720	-
	중앙(55호)	대강~봉양	51,310	-
국도	국도1호	오송~오송	1,000	(목포~신의주)
	국도3호	연풍~감곡	68,116	(남해~초산)
	국도4호	옥천~추풍령	62,207	(군산~경주)
	국도17호	현도~광혜원	66,408	(여수~용인)
	국도25호	마로~내수	65,067	(진해~청주)
	국도36호	오송~단양	158,301	(보령~울진)
	국도38호	감곡~송학	73,533	(서산~동해)
	국도59호	대강~가곡	58,238	(광양~양양)

(4) 철도

(단위 : km)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경부선고속선	영등포~오송	124.6	-
호남선	오송~목포	231	17년도 완공예정
충북선	조치원~봉양	115	-
중앙선	청량리~제천(봉양)	137.5	-

(5) 공항

청사연면적 (㎡)	계류장 (㎡)	활주로 (m)	연도별 수송인원(천명)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2,406	91,047	2,744×60 2,744×45	1,042	1,023	1,296	1,337	1,308	-

나. 개발방향

(1) 기본방향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주시·청원군 일원 3개권역(9,08km², 274만평)에, 2020년까지 1조 9,942억원을 투입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경영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표는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장이며, 하위목표는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복합항공 산업 육성”, “국토 중심의 친환경 생태클러스터 조성”으로 이는 유사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자유경제구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표 2-14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현황

구 분			바이오밸리		에어로폴리스지구	에코폴리스지구
			바이오메디컬지구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위 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충북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신안리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장천리
기본 현황	면적(km ²)		1.13km ²	3.28km ²	0.47km ²	4.2km ²
	사업비(억원)		919억원	10,964억원	1,468억원	6,591억원
	사업 기간 (년)	총기간	2013 ~ 2020	2013~2020	2013~2020	2013~2020
		단계별	—	—	—	—
		계획인구(인)	—	30천명	—	19천명
개발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 충북개발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
주요개발계획			• 바이오연구 •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연구	• 바이오산업 • BT, IT, 첨단관련 업종	• 복합항공단지 • 항공정비, 물류	• 바이오휴양 • 자동차전장부품

(2) 지구별 개발방향

충북경제자유구역은 4개 지구로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 밸리」는 글로벌 차세대바이오 신약 및 IT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육성 (4.41km², 133만평),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에어로 폴리스」는 항공정비, 항공여객 및 물류, 쇼핑등이 어우러지는 복합항공단지로 육성 (0.47km², 14만평), 친환경 생태 클러스터 구현을 위한 「에코 폴리스」는 바이오 휴양산업 및 그린대체연료를 활용한 차량용 전장부품산업단지로 조성된다. (4.20km², 127만평)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FREE ECONOMIC ZONES
10 YEARS HISTORY

제3장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성과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제도개선

1.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마련(2006. 11. 21.)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 및 국가경제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 11월 21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 부담 경감’,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 총 3개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개선하였다

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부담 경감

환경영향평가 부담 경감, 외국인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의료 및 교육환경 조성, 외국인 주거여건 개선, 부담금 경감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대상사업의 규모를 명시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면제범위를 규정토록 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내 매립지 위에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개발 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원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견이나 조건이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나 평생교육단체의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 학교법인과 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등을 비과세하기로 하였다.

셋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대학원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여 해운물류대학분교 같은 소규모 대학원대학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변경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특별 공급 세부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특별공급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국제업무지구, 관광·레저지구, 상업지구 등에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 유도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매우 커 경제자유구역 용지의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일반 지역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 등은 부담금이 면제되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등은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 감면되는 역차별이 발생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시설 중 일반지역에서 100% 감면되는 부과대상 시설은 100% 감면되도록 조치하였다.

나.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입지·기본계획 등 필수규제의 사전검토로 신속한 개발 추진,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확대, 실시계획 처리절차 간소화 등의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일부 개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 사업계획 수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규정이 없어 구역 지정 후 개별 사업자가 개별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 부처 반대로 인허가가 보류되어 사업 추진 지연 및 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구역지정시 입지·기본계획 등 필수 규제 사전 검토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수규제 사항은 구역 지정효과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변경요청을 하면 해당 시·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변경을 신청하나 경미한 개발계획을 제외한 모든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통상 7개월 내외가 소요되었다. 개발계획 변경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개발계획 변경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개선하였다.

셋째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경부장관이 변경 승인할 수 있으나 경미한 개발계획의 범위가 좁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심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도 개발계획 변경 승인대상이 되는 등 단순 사실관계 변동까지 포함하여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면적변경 기준을 구역 전체 면적이 아닌 지구별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개발 사업 세부 계획 변경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개발 계획 변경에 자의적 운용 소지가 있었다.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권한을 현행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환경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결과 및 개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시행 면적의 단순한 면적 증감 등의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규정을 개발계획이 수립된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으로 변경하는 등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현행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 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같음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처리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부처 사전협의는 30일 이내에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30일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정 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서 협의기간 30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허가 의제처리시 관계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도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하였다. 농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 지역 변경·해제,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정비계획 승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하였다.

여섯째,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중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권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였다. 또한 시·도지사의 보전산지전용허가 위임범위를 현행 10만 ~ 20만㎡에서 3만 ~ 50만㎡로 확대하였다.

일곱째,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개선하였다.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나,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실시계획도 개발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시계획 승인시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현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도지사에게 이임하고 2010년까지 전염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대규모 사업부지의 매각방식 전환방안 강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 허용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고 사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각종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정책적 이견사항이 지속적 발생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부처의 이견사항 발생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구역 전체의 개발계획이 지연되었다. 사업추진상 정책 이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규모 매립지를 일괄적으로 수익계약 형태로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제 개발이익이 대부분 개발 사업자에 귀속되어 국부유출 및 특혜시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사업 부지의 매각방식 전환방안 강구 및 매각계약 체결 이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침에 반영하도록 의결하였다.

셋째,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재정 및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부여하고 한도액내에서는 구 행자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나 경제자유 구역청은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의 제약을 받아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구역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별도로 경제자유 구역 개발채권 발행을 허용하였다.

표 3-1 ▶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선조치사항

개선분야	개선조치사항	주관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부담 경감방안	•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대상사업의 규모를 명시	환경부
	•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 마련	환경부
	•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	건교부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취득세 등)를 비과세	안행부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제토록 명시)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내에 소규모 외국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 (예: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	교육부

개선분야	개선조치사항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세부자격 기준 마련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자유구역내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시설 중 일반지역에서 100% 감면되는 부과대상시설은 100% 감면 	농림부 산림청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지정(개발계획 확정)시 입지·기본계획 등 필수규제 사전검토를 위해 관계행정 기관 협의절차를 신설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등 필수규제 사항은 구역 지정 효과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변경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하수도법 제5조의2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기재부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수시 개최방안 강구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정비 및 권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권한을 현행 기재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확화 현행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같음 	건교부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처리 관련 협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서 협의기간(30일)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심의제” 도입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 제3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계획,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농림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의제처리사항 권한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처리 대상 중 아래사항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최종 경제자유구역청장)로 위임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시·도지사의 보전산지전용허가 위임범위 확대 (현행 1만㎡~20만㎡ → 3만㎡~50만㎡) 	농림부 건교부 산림청

개선분야	개선조치사항	주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승인시 처리기간을 단축(현행 6개월 → 5개월) -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단계적으로 현행 '기재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미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2007년부터 위임 • 201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전면 위임 	기재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상 정책적 이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사업부지 매각방식 전환방안 강구 및 매립지 매각시 계약체결 이전에 재경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채권 발행 허용 	안행부

2.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7. 8. 17.)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초기 3년간은 제도 구축과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 위주의 제도 개선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진척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투자 인센티브, 학교와 병원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본격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 8월 17일 열린 제1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자유치 본격화에 대응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여건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해외유수기업 유치시 인센티브 확대', '학교·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유치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주택공급 확충' 방안등을 마련하였다.

가. 조세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

경쟁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 물가, 임대료 등을 감안시 강력한 조세 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감면혜택이 부족하고 국내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보다 조세감면혜택이 미약하여 조세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수단으로 활동되지 못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 조세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중복 지정없이 동 지역 수준의 조세감면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업종을 현행 물류, 제조, 관광업에서 R&D를 추가하도록 하였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특별히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 범위내에서 감면혜택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조세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나.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 지원

경제자유구역 사업 진전에 따라 외국 교육·연구기관 진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기관을 유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경자법 등 관련법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예산은 없는 상태였다.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앵커 대학·연구소에 대해 토지·건물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외국인 이주·정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고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지원한도는 지자체 지원금액 이내로 설정하는 지자체와의 매칭펀드 조건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설립 준비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 연구소 등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해 외국 우수 연구소 등 비영리 외국기관의 진출시 외국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개정을 추진하였다.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에도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법적근거 등이 미약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범위를 현행 미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외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종사자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미분양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지역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인하하는 지역 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련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3.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2013. 7. 15.)

가.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인천, 광양만권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필두로 2013년 현재까지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추진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이 필요하였다.

또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비전 부재, 구역별 차별화 미흡, 일부 구역의 개발 지연 및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2011. 4. 4.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제시 등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2013. 7월에 수립하게 되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정책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여건을 반영한 구역별 차별화로 체계적·효율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역주민 등 정책수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 주요 내용(정책과제)

(1)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 활성화

첫째,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최적화하도록 하였다. 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발지역을 축소 조정토록 하였다. 특히 단계별 이행계획으로서 2014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내 개발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고(1단계) 2014년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법상 지구해제 의제 제도를 엄격히 적용(2단계) 및 2014년 9월까지 3년 연속 최하위등급 평가지구 등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구를 지정해제(3단계)토록 하였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규제 완화 및 개발절차 간소화이다. 개발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협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이 신속히 되도록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일괄 승인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개발자원 확대 및 자원조달 다변화를 꾀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펀드 조성, 지방채·공사채 및 해외자본 등 여러 방식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매력도 제고

첫째,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교육·의료·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우수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수요 및 중점 유치업종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유치와 자립능력 강화·지원으로 실질적인 국제 교육도시로 조성하고,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우선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의료수요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외국의료 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력공급 및 물류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기업 유치·정착을 위하여 직업교육과정 신설 및 서비스산업 전문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공항·항만 등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의 규제개선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외에도 의료 헬스케어 시범지구(송도) 및 복합리조트 시범지구(영종도)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3)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로 성과 극대화

첫째,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및 탄력적 운영이다. 국내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 장기임대산자에 대한 입주자격을 부여하거나 일정비율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 투자자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입지·비용 등을 일괄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투자유치 역량 제고이다.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여 구역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투자유치 민간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아웃소싱 추진 및 공동 IR과 국제포럼 로드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성과지향적인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미 및 한·EU FTA 등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4) 차별화·특성화로 발전 가속화

첫째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전략이다. 기존 지역발전전략 및 특화도 등을 감안하여 구역별 3개 이내의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 유치업종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을 클러스터화함으로써 구역 내 산업을 특화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예) 인천(항공물류·바이오·지식서비스), 부산진해(복합물류·기계부품·휴양), 광양만권(석유화학소재·철강연관 산업·항만물류) 등

둘째 타 특구와의 연계강화이다. 외투자 유치 목적 특구인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등과는 각 특구 지여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연관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셋째,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이다. GCF와 연계하여 송도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물류서비스 및 레저·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3-2 ▶ 주요 정책과제

연번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비 고
1	자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산업부·구역청	
2	지구해제 의제 유보요건 마련	산업부	
3	개발 규제 완화(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산업부	
4	외국교육기관 설립 제도 개선(탄력적 재정지원 등)	산업부·기재부	
5	외국의료기관 특례 개선(해외원격 진료 허용 등)	산업부·복지부	
6	외투자업 정착지원 종합센터 개설	산업부·구역청	
7	외투자업 조세감면 제도운영 개선	산업부·기재부	
8	구역청 전문인력 채용확대 유도 규정 마련	산업부	
9	외투자 유치 목적 특구 내실화 로드맵 마련	산업부	
10	중점유치업종 핵심프로젝트 발굴·선정	산업부	
11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요건 명확화	산업부	
12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	산업부	
13	GCF 연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화 방안 마련	산업부	
14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산업부·국토부	
15	국내병원 외국인의료서비스 개선	산업부·복지부	
16	경자구역 평가지표 개선 및 MBO 평가 도입	산업부	
17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부	
18	국내기업 인센티브 지원 검토	산업부·기재부	
19	경자지역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검토	산업부·안행부	
20	경자구역 개발펀드 조성 검토	산업부·기재부	
21	외국인 주거·문화시설 확충	산업부·구역청	
22	체류형 의료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산업부·문화부	
23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선진화	국토부	
24	구역청 전문인력 확충	산업부·구역청	
25	GCF 연계 글로벌 금융특구 조성	산업부·금융위	

4. 경제자유구역 홍보활성화 방안 (2013. 4. 11)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해외홍보 및 국내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4년도부터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동홍보와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홍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간의 경제자유구역 홍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장기 홍보전략 등 방향성 없이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홍보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잠재투자자 등에 대한 타깃마케팅과 이슈중심의 기획홍보보다 단순 이미지 전달을 위한 광고에 치중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다소 유리되는 측면이 있었고, 홍보콘텐츠 또한 타깃별·지역별 차별화가 부족하고, 각각의 홍보물간 연계 및 통합정도도 부족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홍보의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홍보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13.4.11)에 보고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략적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매년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계획’을 개편하여 ‘연도별 경제자유구역 홍보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연도별 홍보시행계획을 통해 매년도 경제자유구역 홍보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사업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매년 말 홍보시행계획의 실행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다시 차년도 홍보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홍보시스템의 선순환체계를 확립되었다.

또한 홍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부서장과 정책홍보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홍보협의회’를 신설하였으며, 제1차 회의를 2013.4.3일 개최하여 ‘2013년 경제자유구역 홍보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나. 타깃마케팅 및 기획홍보 강화

경제자유구역 홍보의 주요 타깃이 되는 핵심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핵심고객에 대해서는 뉴스레터 및 이슈페이퍼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등 타깃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홍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광고에 치우쳤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공동홍보 및 자체홍보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경제자유구역 핵심메시지 및 주요 타깃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달 등 기획홍보에 집행함으로써 홍보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의 활용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하였다.

다. 정책홍보 강화 및 홍보콘텐츠 내실화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분석보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동 보도자료 배포, 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기고 등 정부,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정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책보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공급자보다는 수요지향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활용하고, 제작한 각종 홍보물간 연계와 통합성도 확보하는 등 홍보콘텐츠의 내실화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적인 이미지형성을 위해 제작한 경제자유구역 통합브랜드(KFEZ)를 각 경제자유구역 홍보에 공통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가 경제자유구역 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절

경제자유구역별 개발현황 (2012. 12. 31. 현재)

1. 인천 경제자유구역

가. 개발 총괄 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총 27개 단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7개 단위지구(어민생활대책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시가지조성단지, 영종 운서지구, 영종 운남지구, 공항배후지원단지)는 개발 완료하였고, 국제업무단지 및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등 11개 단위지구는 개발 추진 중이며, 신항물류단지A(1단계) 및 아암물류단지 등 9개 단위지구는 미착공 지구입니다.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 송도지구

- 사업규모 : 53.3km²
- 계획인구 : 257천명
- 시 행 자 : 인천시, 해양수산부, NSIC(유),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재)인천TP등
- 주요사업 : 국제업무단지(5.7km²), 지식정보산업단지(2.4km²), 바이오단지(1.3km²), 첨단산업클러스터(14.6km²), 송도국제화복합단지(1.4km²), 송도랜드마크시티(5.8km²), 아암물류단지(5.0km²), 인천신항물류단지(30선석) 등



(가) 국제업무단지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에 인천광역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의하여 2003년부터 송도국제도시 1·3공구 및 2·4공구 일원에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국제전시교류시설 및 지원시설, 녹지를 기반으로한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되어 컨벤시아,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채드웍송도국제 학교, 센트럴공원, 잭 니콜라우스 골프장 준공되었고, 국내외앵커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의 2010년 입주를 시작으로, 이어 롯데쇼핑타운, 이랜드리테일와 계약체결,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엔지니어링, 대우 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기업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그림 3-1 ▶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나) 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여 문화, 관광, 상업, 업무, 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한 포트만 컨소시엄(Portman Holdings,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의 합작법인)에 의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랜드마크시티로 조성될 송도6·8공구의 공유 수면매립은 2012년 6월 준공되었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2 ▶ 인천타워



그림 3-3 ▶ 송도 6,8공구

(다)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는 테크노밸리와 송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단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개발컨셉으로 인천광역시에 의해 2004년부터 조성되어, 테크노파크단지에는 벤처기업 40여개가 입주해 있고, 현재 IBM, 만도+Hella, 휴니드+Boeing, SBS+Orix, Gudel, 교보데이터센터, A-Machine, Fibox, 일진반도체, 제이엠테크노, 경신, 세미크론, 리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 아시아나IDT, CJ시스템즈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IT·BT 등 첨단산업 R&D 및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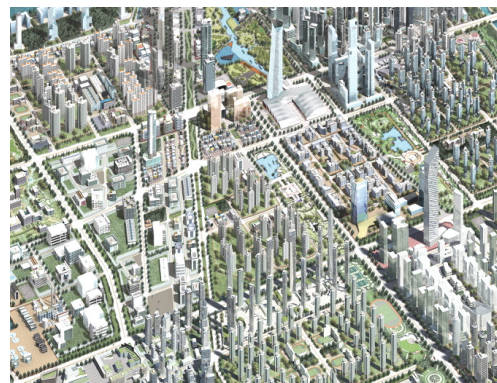


그림 3-4 ▶ 지식정보산업단지

(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지역 고등 교육의 질적 향상, 시설 확충 및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 역할을 하는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 단지는 2010년 1단계 캠퍼스를 완공하였으며 2013년 1월 2A단계 캠퍼스 완공, 2014년 1월 2B단계 캠퍼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2013년 3월부터 본교 신입생 2,000명이 RC(Residential College)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신입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하우스에 함께 거주하며 이끌어주는 교수(RM : Residential Master)의 지도와 우수모범 선배(RA : Residential Assistant)의 도움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국제캠퍼스의 HE1(사회기여) 교과목은 국제캠퍼스가 일종의 사회 투자(Social Investment) 프로그램으로 인천시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연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본 교과목에 참여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인천 초·중·고교, 특수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멘토링, 예체능 활동 지도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게 되었다.

본 교과목을 통해 연세대 학생이 인천지역 청소년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인천 지역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고등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마)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세계 유수 명문외국대학들이 향후 입주할 예정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2,000명을 수용하는 1단계 1공구(강의연구동 및 기숙사 등)와 외국대학 공동사용시설인 1단계 2공구(중앙도서관, 체육관, 강당 등)를 완공하였으며, 1단계 3공구를 2013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다.

2012년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대학 분교인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컴퓨터과학 및 기술경영 대학원과정을 2012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2013. 3월부터는 학부과정(기술경영학과)을 개설한다. 전체 교과정은 본교인 뉴욕주립대 스톤브룩(SUNY Stony Brook)에서 직접 파견된 교수진에 의해 본교와 똑같이 운영된다.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는 2014년 봄 학기 학부과정 개교를 목표로 교육과학기술부 설립 승인 신청을 통해 최종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벨기에 겐트대학교(Ghent University)와 미국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는 2014년 학부 및 대학원과정 개교를 목표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림 3-6 ▶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바) IFEZ Arts Center

IFEZ Arts Center 건립은 아트센터 문화단지 공사비 내역서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적정한 사업비 확정을 위해 설계경제성(VE) 검토를 거쳐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IFEZ 아트센터 문화단지 건립을 위한 추가합의서 체결을 위해 법률자문, 정책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합의서 체결 완료(9.4)하였고 2012. 9월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림 3-7 ▶ 아트센터

(사) 첨단 및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첨단산업(바이오·의약, IT·부품, 항공 및 자동차 등) 투자유치는 지구별 산업특성에 따른 단지 조성을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산업시설용지 면적 917.8천평 중 492.9천평이 기매각되어분양률이54%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기업 25개업체(투자금액 7,447억원), 외국기업29개업체(투자금액 51,518억원)으로 원활한 투자유치가 진행 중이다.

2003년 개청이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보잉트레이닝센터, 만도브로제, 앰코 등 글로벌 기업 및 국내대기업 유치로 IFEZ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최근 독일 BMW사 드라이빙센터건립 MOU 체결('12.8), 일본 티오케이첨단재료(주) 제조 및 R&D 시설 착공('12.9), 자동차 촉매분야 세계1위기업 유미코사 MOU체결('12.12) 등 외투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유치기업들의 시설 준공으로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향후에는 GCF와 연계한 녹색기후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녹색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예정이며, 바이오산업의 유치영역 확장하여가치사슬을 수직 확대할 것이며, 양보다는 질적인 글로벌 브랜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화 단지



송도(IT/BT산업클러스터)

- 사업기간 : 2008 - 2014
- 면 적 : 2,018,688.3㎡
- 바이오/의약, IT/부품소재, 디지털 콘텐츠 산업 관련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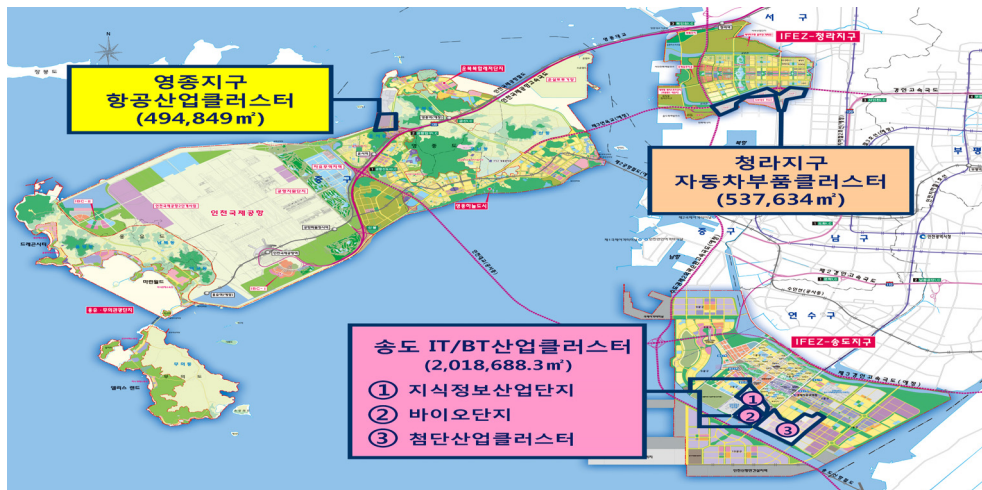
영종(항공산업클러스터)

- 사업기간 : 2008 - 2014
- 면 적 : 235,864㎡
-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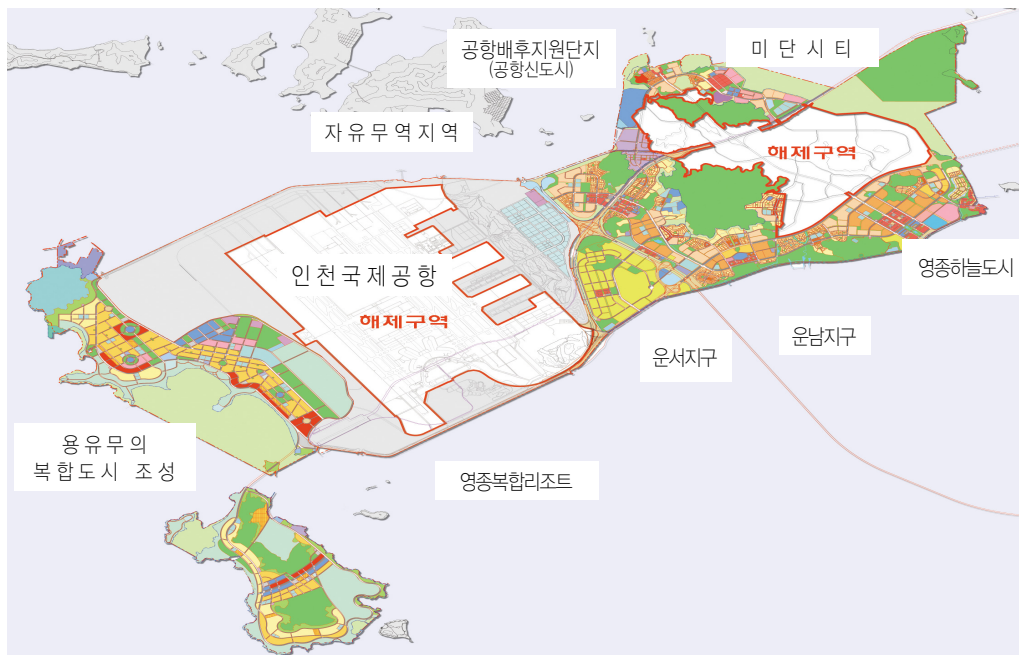
청라(자동차부품클러스터)

- 사업기간 : 2006 - 2014
- 면 적 : 555,436㎡
- GM과 연계한 글로벌 차세대 자동차 부품, IT, (신)소재, 로봇 관련 첨단 산업 유치



(2) 영종지구

- 사업규모 : 98.4km²
- 계획인구 : 294천명
- 시 행 자 :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주) 등
- 주요사업 : 영종하늘도시 개발(19.3km²), 미단시티(2.7km²), 영종복합리조트(3.7km²),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24.4km²) 등



(가)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중구 운서, 운남, 운북, 중산동 일원 약 19.3km²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공항지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 및 정주여건 조성, 영종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하고자, 2006.12.05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7년부터 보상 및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12월 1단계(6,015,015.2m²) 지역에 대한 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단계(9,601,208.6m²) 지역에 대한 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투자실적으로는 2010년 영종하늘도시 산업시설용지 지역에 항공운항훈련센터(미국 Boeing), 항공엔진정비센터(미국 P&W)를 유치하였으며, 3단계 영종복합리조트 지역에 대하여 인천월드시티(Universal Entertainment Corporation(일본, USA)), Mall of Korea(Triple Five Worldwide Development Company Limited)에 대하여 카지노,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3-8 ▶ 영종하늘도시

(나) 미단시티 조성(운북복합레저단지)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영종지구 운북동 897번지 일원에 주거, 레저, 비즈니스, 문화시설, 외국인학교, 다국적 문화빌리지 등 국제적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6년 국제공모를 통해 개발사업자를 선정한 국내 첫 사례로, 외국기업인 홍콩 리포그룹과 국내 도시공사 등 11개사가 합작하여 2007년 3월 미단 시티개발(주)를 설립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기반시설은 2011년 12월 완료되었으며 세부 앵커사업별로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카지노업계 1위 기업인 시저스(Caesars) 및 리포(Lippo) 컨소시엄과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카지노 사업은 미단시티 부지에 VIP호텔, 비즈니스호텔, 리조트 콘도, 카지노(외국인 전용), 쇼핑몰, 공연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종지역의 콘도 등 투자상품 구매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12월 중국의 유력기업과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MOU가 체결되어 최근 높아가는 한류 붐을 타고 중국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9 ▶ 운북복합레저단지

(다) 영종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영종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영종하늘도시 1-③단계 부지 내 실내외 테마파크, 특1급호텔·외국인전용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이 포함된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10월 인천경제청은 카지노 슬롯머신, 카지노 리조트사업, 미디어사업 등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글로벌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일본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사는 2014년 내 문화체육관광부에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토지소유주인 NH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림 3-10 ▶ 영종복합리조트

(라) 왕산마리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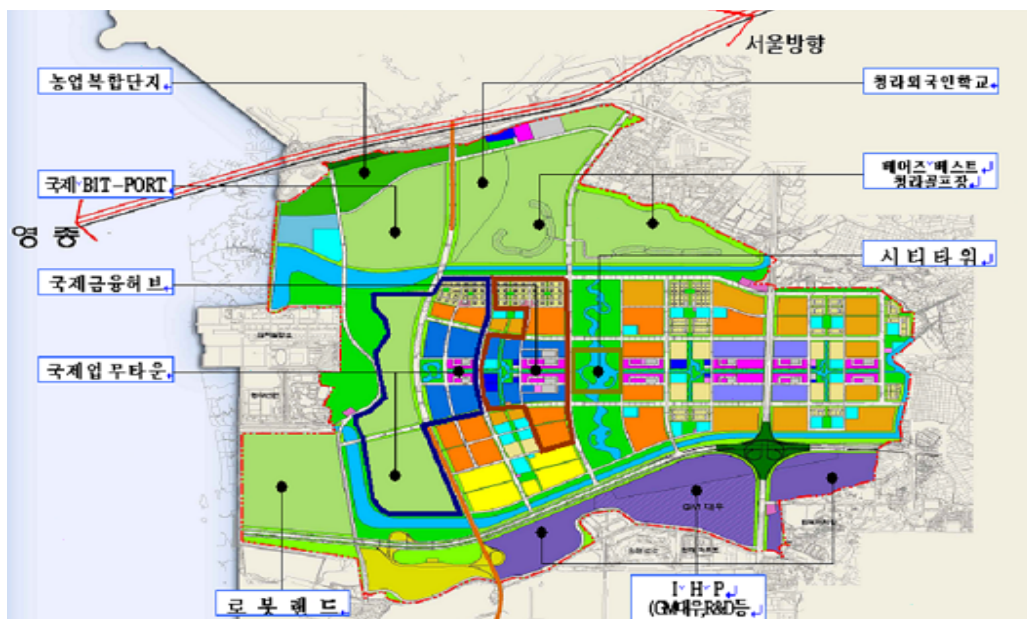
해양레저 관광을 위한 마리나 조성사업은 2012년 7월30일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8월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로 요트경기장 건설추진에 총력을 기하여 2014년 6월 시운전 및 시범경기를 펼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3-11 ▶ 왕산마리나

(3) 청라국제도시

- 사업규모 : 17.8km²
- 계획인구 : 90천명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사업 : 국제업무타운(1.27km²), 시티타워(0.03km²), I·H·P(1.13km²), 로봇랜드(0.77km²), 하나금융(0.25km²), 글로벌유통산업메카(0.55km²), 달튼외국인학교(0.04km²), 친환경복합단지(0.41km²), 베어즈베스트 골프장(1.49km²) 등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0.57km²) 등



(가) 국제업무타운 조성

청라국제도시의 핵심 앵커시설인 국제업무타운은 1,274천m²의 규모로 동아시아 투자허브 구축을 위한 국제 업무 시설과 관광·휴양, 쇼핑, 문화 및 주거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one-stop 복합기능을 갖춘 친환경 국제도시로 2020년 완료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견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됨.



그림 3-12 ▶ 국제업무타운

(나)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하나금융타운은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서 그룹 Head Quarter, 금융 R&D센터, 금융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수시설, IT센터 및 그룹 콜 센터 등 핵심 전략기반시설들이 통합 설치된다. 또한 이러한 핵심시설 이외에도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설치, 그룹 임직원 가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3-13 ▶ 하나금융타운

(다) 시티타워

청라국제도시 중앙공원 내에 건립되는 시티타워는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보석을 상징화한 타워형태의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여 높이 450m 규모의 관람, 전시, 문화 및 위락시설 등이 어울어진 청라국제도시의 상징물이자 도시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앵커시설로 주변지역에는 복합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사업성 확보를 통한 자립적 유지관리 기능을 갖춘 특화된 첨단복합 타워로 201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림 3-14 ▶ 시티타워

(라) IHP(Incheon Hi-Tech Park) 조성

청라국제도시 남측에 조성되는 IHP는 청라국제도시의 산업기능 보완을 위해 화훼단지에서 1,132천㎡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반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만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2011.08.01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국내기업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앵커기능의 대기업 입주 가능해져 외국투자기업 및 국내기업간 시너지 창출 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 촉진은 물론 정보통신, 자동차, 로봇산업, 신소재, R&D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경제자유구역내 유치함으로써 도시첨단산업 단지와 주거가 어울려진 고품격 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그림 3-15 ▶ GM대우 R&D센터

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가. 개발 총괄 개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총 21개 단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신호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남양지구, 화전지구, 서부산유통지구, 신항북측배후부지 등 6개 단위지구는 개발을 완료하였고, 미음지구, 남문지구, 생곡지구, 문화지구, 명지지구, 웅동지구, 명동지구 등 7개 단위지구는 개발 추진중이며, 남산지구, 와성지구, 두동지구, 보배캠퍼스지구, 가주지구, 웅천지구, 신항남측배후부지, 송정지구 등 8개지구는 미착공 지구입니다.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 신항북측배후지

- 사업기간 : 2000~2014
- 사업규모 : 3,083천 m^2
- 시 행 자 : 해양수산부(부산신항만(주)), 부산도시공사
- 주요사업 : 주택 319천 m^2 , 상업 359천 m^2 , 산업 1,206천 m^2 , 공공 1,199천 m^2



그림 3-16 ▶ 신항북측배후부지

신항 북측배후부지는 308만 m^2 의 면적으로 부산 강서구 송정동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의 공유수면 및 서측의 욱망산과 동측의 견마도를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다. 항만에 인접하여 수출입 화물의 일괄처리를 위한 물류·유통시설과 주거·상업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족적인 복합 시가지로 개발하는항만배후부지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중심항(Hub Port)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할 것이며, 또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항만지역의 북측배후지는 2008년 5월까지 1단계 물류부지 72.7만 m^2 가 완공되었으며, 2010년 12월 2·3단계 237만 m^2 를 준공하였다. 당초 2014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신항 지역의 조기 준공을 통한 세계적 경쟁항만으로서의 선점권 확보 및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2년 12월 308만 m^2 전체가 준공되었다.

(2) 신항남측배후지

- 사업기간 : 2016~2020
- 사업규모 : 1,490천m²
- 시 행 자 : 해양수산부(부산신항만(주)), 부산항만공사
- 주요사업 : 상업 145천m², 산업·유통 885천m², 공공 460천m²



그림 3-17 ▶ 신항남측배후지

신항 남측배후지는 남 '컨' 부두의 접적인 배후지로서 반경 10km권역 내 지구별산업단지 및 녹산 국가산업단지, 거제도와 연계한 산업 및 물류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하고, 남컨테이너부두의 원활한 물류처리를 위해 항만물류기능을 집중 배치토록 계획하였다. 2011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5월에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립사업이 승인되었다.

남측 배후지는 2020년까지 완공(1,490천m²)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3) 신호산업단지

- 사업기간 : 1993~2007
- 사업규모 : 1,251천m²
- 시 행 자 : 부산광역시
- 주요사업 : 주택 447천m², 상업 67천m², 산업·유통 69천m², 공공 473천m², 기타 195천m²

신호산업단지는 쇠락화를 견뎌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와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부지를 포함한 94만평을 부산시에서 1993년 지방공단으로 승인을 득하여 이듬해 1994년 부산시건설본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그림 3-18 ▶ 신호산업단지

1995년 7월 1공구 1,643천㎡(르노 삼성자동차 부지)를 착공하여 1997년 12월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4개 공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 중 르노삼성자동차 부지를 제외한 1,477천㎡가 2003년 10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4공구인 철새인공서식지, 2공구 이주단지 및 산업단지는 1997년 12월 2001년 6월 각각 준공되었고 2007년 1월 전체사업이 준공되어 9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86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4) 부산과학산업단지

- 사업기간 : 1992~2008
- 사업규모 : 1,962천㎡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부산광역시
- 주요사업 : 주택 209천㎡, 상업 34천㎡, 산업·유통 1,031천㎡, 공공 688천㎡



그림 3-19 ▶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는 '90년 9월 정부(과학기술체)의 「전 국토 기술지대망 계획」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의 과학단지조성 후보지가 선정되어, '92년 12월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661만㎡(200만평)규모의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2001년 8월에 사업시행자를 부산광역시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 신청 후 2002년 11월 5일에 공사착공하기에 이른다.

2004년 3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서 관련 업무가 부산광역시에서 구역청으로 이관되었고, 2004년 4월에 자동차부품 협동화사업이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산업용지 변경 및 신규 입주계약을 시작하여 2004년 9월 331천㎡에 52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다. 2005년 11월 30일에 지정고시된 외국인투자 지역 30천㎡에 10여개 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 준공하여 현재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관련 기업 17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5) 화전지구

- 사업기간 : 2003~2010
- 사업규모 : 2,448천㎡
- 시 행 자 : 부산도시공사
- 주요사업 : 주택 134천㎡, 상업 72천㎡, 산업·유통 1,424천㎡, 공공 818천㎡



그림 3-20 ▶ 화전지구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315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28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화전지구는 지리적으로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일원의 르노삼성자동차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계획상 기존 신호산업단지(르노삼성자동차 부지)와의 연계개발, 첨단생산을 위한 공업용 토지이용 및 일부 지역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산업단지이다. 2005년 12월 30일 16개 개발지구내 처음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6년 8월 공사 착공을 하였다. 2009년 12월 부지

(6) 서부산유통지구

- 사업기간 : 2003~2012
- 사업규모 : 828천㎡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사업 : 주택 24천㎡, 산업·유통 543천㎡, 공공 261천㎡



그림 3-21 ▶ 서부산유통지구

서부산유통지구는 유통시설 집적화로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항만 및 공항과 연계한 물류단지 조성에 목적이 있다. 2007년 9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1년 12월 부지 조성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의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2012년 12월에 준공하여 18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9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7) 명지지구

- 사업기간 : 2003~2017
- 사업규모 : 6,405천㎡(1단계 4,483천㎡, 2단계 1,922천㎡)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사업(1단계) : 주택 957천㎡, 상업 733천㎡, 산업 99천㎡, 공공 2688천㎡, 기타 6천㎡



그림 3-22 ▶ 명지지구

명지지구는 2004년 6월 개발제한 구역해제를 신청하여,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0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 7월 명지 서측 308필지 123만㎡의 문화재구역을 해제하여 본격적인 지구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다.

(8) 미음지구

- 사업기간 : 2008~2013
- 사업규모 : 3,599천㎡
- 시 행 자 : 부산도시공사
- 주요사업 : 주택 5천㎡, 상업 20천㎡, 산업 2,005천㎡, 공공 1,569천㎡



그림 3-23 ▶ 미음지구

미음지구는 2002년초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신항만 개발에 따른 유발 인구 및 서부산권내 기존공단 종사자들의 수용과 부산시 주택보급률 제고에 부응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다가 경자구역 출범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주거 및 자원 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2008년 사업 착공 후 첨단생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11년 공동 주택 용지의 산업용지로 용도전환 하였고, 2011년 12월 332천㎡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2년말 현재 9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9) 명동지구

- 사업기간 : 2009~2015
- 사업규모 : 494천m²
- 시 행 자 : 원자력산업개발 주식회사
- 주요사업 : 주택 4천m², 산업 310천m², 공공 161천m², 근생 19천m²



그림 3-24 ▶ 명동지구

명동지구는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명지, 화전, 미음지구 등의 부족한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고시를 통해 원전부품 소재 단지의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로 개발방향을 잡고 2012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는 등 본격적인 지구 개발에 나설 것이다.

(10) 송정지구

- 사업기간 : 2016~2020
- 사업규모 : 1,490천m²
- 시 행 자 :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 주요사업 : 상업 145천m², 산업·유통 885천m², 공공 460천m²



그림 3-25 ▶ 송정지구

송정지구는 신항만을 중심으로 국제 해사 및 업무클러스터 조성 and 경제 자유구역내 종사자의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자원과 문화 시설을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정주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11) 생곡지구

- 사업기간 : 2009~2013
- 사업규모 : 557천 m^2
- 시 행 자 : 부산도시공사
- 주요사업 : 주택 17천 m^2 , 상업 8천 m^2 , 산업 382천 m^2 , 공공 150천 m^2



그림 3-26 ▶ 생곡지구

생곡지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 동 일원에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개발 가능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557천 m^2 규모로 계획되었다. 2009년 7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으며, 이후 2012년 10월 생곡지구 개발계획의 변경, 201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추진중이다.

(12) 남양지구

- 사업기간 : 2003~2009
- 사업규모 : 293천㎡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사업 : 상업 9천㎡, 산업·유통 133천㎡, 공공 151천㎡



그림 3-27 ▶ 남양지구

남양지구는 진해시 남양동 일원의 마천산업단지 좌측에 위치하며 294천㎡의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계획되었으며, 2004년 3월 6일 개발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가 지정되었다. 첨단산업단지(메카트로닉스, 신소재)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2007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1월 준공하였다.

(13) 남문지구

- 사업기간 : 2006~2013
- 사업규모 : 1,088천㎡
- 시 행 자 : 경상남도개발공사
- 주요사업 : 주택 279천㎡, 상업 58천㎡, 산업 186천㎡, 공공 565천㎡



그림 3-28 ▶ 남문지구

남문지구는 신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 및 첨단소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지구내 산업시설 종사자와 신항 종사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된 산업시설 및 주거단지이다. 2007년 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 되어 2008년 8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71천㎡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2년 12월 산업용지 확대를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여 2012년 12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14) 웅동지구

- 사업기간 : 2004~2018
- 사업규모 : 6,448천㎡
- 시 행 자 : 경상남도개발공사·창원시(여가·휴양), 해양수산부(물류)
- 주요사업 : 여가휴양 2,258천㎡, 물류 4,190천㎡

웅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내 종사자와 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여가·휴양시설 확충과 신항의 물류처리를 위한 물류·유통시설의 구축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 일원의 공유수면에 계획된 총면적 6,448천㎡의 여가·휴양 및 물류단지이다. 2003년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8월 우리 청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종합관광레저개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는 2008년 1월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여가·휴양부지 개발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여가·휴양부지 3,860천㎡중 2,258천㎡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개발토록 협의하였다. 또한 여가·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0년 SPC((주)진해오션리조트)를 설립하였으며, 2012년 4월 물류부지 1,015천㎡ 조성을 완료하였고, 11월 웅동1지구(여가·휴양부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물류 배후부지는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9 ▶ 웅동지구

(15) 보배캠퍼스지구

- 사업기간 : 2004~2018
- 사업규모 : 6,448천㎡
- 시행자 : 경상남도개발공사·창원시(여가·휴양), 해양수산부(물류)
- 주요사업 : 여가·휴양 2,258천㎡, 물류 4,190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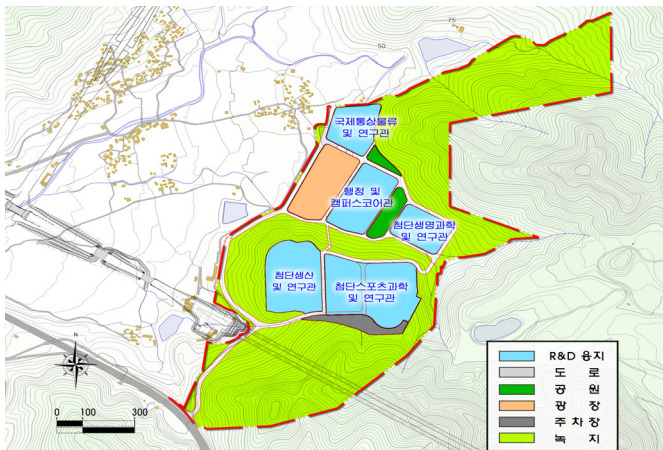


그림 3-30 ▶ 보배캠퍼스지구

보배캠퍼스지구는 국제물류 전문 인력과 첨단소재 관련 과학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R&D 기능으로 개발코자 계획되었다.

2012년 4월 도입시설 재조정 협의를 하였으며, 2012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였으며, 곧 지구 개발에 착공할 예정이다.

(16) 문화지구

- 사업기간 : 2007~2013
- 사업규모 : 165천㎡
- 시 행 자 : 창원시
- 주요사업 : 도요지복원 57천㎡, 기타 108천㎡



그림 3-31 ▶ 문화지구

문화지구는 1997년 1월 30일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도요지를 복원·정비하여 과거 우리 도공들이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전승시키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였다. 진해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2008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1년 전시관, 체험공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단계(웅천도요지 복원사업)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17) 두동지구

- 사업기간 : 2004~2015
- 사업규모 : 1,521천㎡
- 시 행 자 : 미정
- 주요사업 : 주택 402천㎡, 상업 52천㎡, 산업 317천㎡, 공공 750천㎡



그림 3-32 ▶ 두동지구

두동지구는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성을 고려한 첨단소재 부품의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LH 사업추진 전략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LH사업계획과 병행하여 환지개발 방식 등 다각적인 조기개발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 남산지구

- 사업기간 : 2006~2015
- 사업규모 : 122천m²
- 시 행 자 : 미정
- 주요사업 : 상업 22천m², 여가·휴양 58천m², 공공 42천m²



그림 3-33 ▶ 남산지구

남산지구는 웅동지구(여가·휴양) 및 웅천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산지 지형으로 조망권이 우수하여 관광 명소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시행자의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2011년 10월에 지정 취소가 되었으며 현재 전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특화된 메디컬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19) 웅천지구

- 사업기간 : 2009~2013
- 사업규모 : 469천m²
- 시 행 자 : 미정
- 주요사업 : 관광 252천m², 공공 217천m²



그림 3-34 ▶ 웅천지구

웅천지구는 산림·해안 등 본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색있는 리조트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결여로 2012년 1월에 지정 취소가 현재 사업시행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20) 와성지구

- 사업기간 : 2009~2015
- 사업규모 : 796천m²
- 시 행 자 : 창원시
- 주요사업 : 산업 175천m², 관광 377천m², 공공 244천m²



그림 3-35 ▶ 와성지구

와성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장래발전가능성 및 산업용지 수요증가와 웅동지구의 관광시설 용지 감소에 따른 대체부지의 예비 지 기능에 해당되는 지구로서 항만 기본계획상 항만배후단지 확장예정 지로 계획되고 있고, 연안관리지역 계획상 개발유도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최적 민자유치방안 영역을 완료하여 현재 개발계획변경을 검토중이다.

(21) 가주지구

- 사업기간 : 2004~2015
- 사업규모 : 839천 m^2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사업 : 주택 359천 m^2 , 상업 41천 m^2 , 공공 439천 m^2



그림 3-36 ▶ 가주지구

가주지구는 창원시 진해구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과 접해 있는 지역으로 신항만의 개발에 따른 국제 업무 및 해사기능의 업무용 부지와 인근 녹산산업단지 종사자와 화전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용지 및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839천 m^2 을 개발할 계획이다.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가. 개발 총괄 개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각 지구별로 특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 확보를 개발전략으로 삼고 있는 광양지구의 개발방향은 국가의 Two-port(광양항, 부산항)체제에 맞는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성장을 위해 환적화물 활성화를 위한 기능 유치와 함께 제철관련 재료 및 비철금속 거점화를 통한 물류기능 유치이며, 이를 위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개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지 1·2단계, 포스코 터미널 CTS, 황금산업단지 및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등 6개 단지의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울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울촌지구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석유화학 단지와 철강 등 기반산업 관련 공장유치를 통한 생산기능 활성화,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를 위한 기능 유치를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울촌 제 1·II·III 산업단지 조성, 울촌항만 부두 건설 등 4개 단지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정주를 위한 교육·의료허브로 거듭나게 될 신덕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후기능 기관유치와 교육·주거·레저 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대 배후 단지, 세풍 산업단지, 해룡 산업단지, 용강 그린테크밸리, 선월 하이파크단지 등 7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레저·관광허브로 성장하고자 하는 화양지구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관광·레저, 스포츠, 휴양 기능을 유치하여 본격적인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과 지원 기능의 역할을 하게될 하동지구는 포스코 광양제철과 연관된 선박 관련 산업유치와 주거·업무·레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덕천 에코시티, 두우 레저단지, 대송 산업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 광양지구

- 사업규모 : 15.11km²
- 시 행 자 : 전라남도, 광양시, (주)포스코터미널, (주)SNNC, (주)포스코 등
- 주요사업 : 광양컨테이너부두(6.17km²), 컨테이너부두배후지1단계(2.54km²), 컨테이너부두배후지2단계(1.94km²), 포스코터미널CTS(1.12km²), 황금산업단지(2.59km²),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0.75km²) 등

(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동북아 중심항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까지 전체 34선석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16선석이 준공 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2011년 3월 4선석은 하부준공 되어 선박접안이 가능한 2선석은 일반부두로 운영중이고, 나머지 5선석은 추진 계획 중에 있다. HSGT(한진해운+세방기업), KIT(구 한국허치슨), 대한통운 등 3개 운영사(26개 선사)가 주당 74항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 컨테이너 208만TEU를 처리하였고 2012년에는 23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 철도가 이어져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의 실크로드와 연결되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대륙연계 수송의 기착 점으로 해로와 육로를 잇는 세계적인 국제 무역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림 3-37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나)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Ⅰ 단계(동측)

세계 유수의 선진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양항은 부두 후면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4.48㎢의 배후지중 1단계로 2.54㎢의 동측배후지가 2008년까지 1차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재 동측배후지는 냉동·냉장창고, 복합운송창고, 황금물류센터 등 각종 지원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광양항 황금물류센터는 기존 항만 CFS의 보관·배송의 단순 물류기능을 탈피하고 분류, 조립, 가공, 전시 등의 신(新)물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황금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한·중·일 물류교역 시 물류비용이 최대 42%가 절감되고 리드타임이 5일이나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3-38 ▶ 광양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Ⅰ 단계(동측) 전경

(다) 포스코 터미널(CTS)

포스코 CTS(Central Terminal System)는 대형선박 수송을 통해 유입된 화물을 철도, 연안 선박 등을 이용해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물류 서비스 체계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지역별, 소규모, 다수의 항만을 건설하기 보다는 대규모 항만을 종합 건설함으로써 각 지역 항만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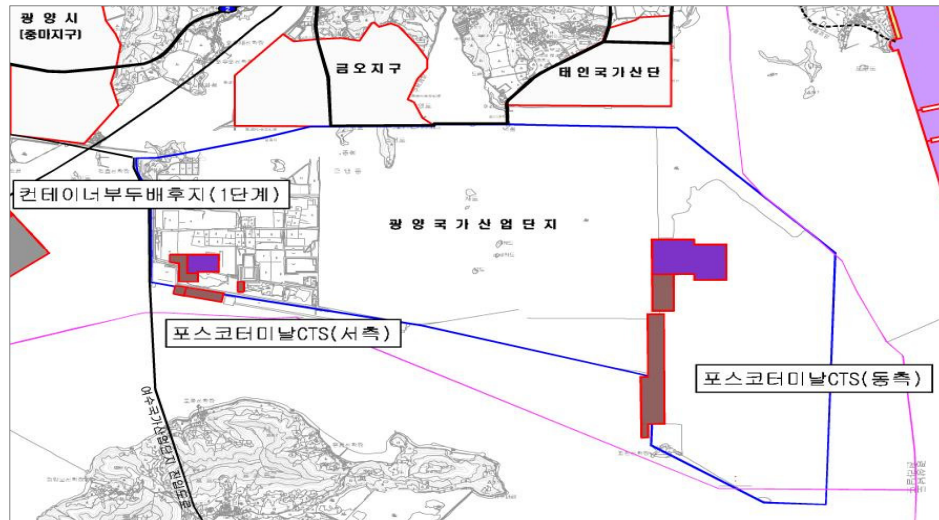


그림 3-39 ▶ 포스코터미널(CTS) 토지이용계획도

(라)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서측)

서측배후지 1.94km²은 첨단제품의 가공·조립시설과 국제전시장, 비즈니스 파크, 국내외기업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 등 각종 물류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컨테이너부두를 통해 입항하는 일반화물이나 환적화물을 종합물류단지에서 고부가가치 물품으로 조립·가공한 뒤 출항시켜, 물량 증가와 가공 수출 효과를 거둘 것이며, 부지 임차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싼 값에 장기 임대해 조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림 3-40 ▶ 광양 컨테이너부두배후지(서측) 조감도



그림 3-41 ▶ 광양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II단계(서측) 전경

(마) 황금산업단지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2,59km² 규모에 들어설 황금산단은 2013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유치업종은 기계장비, 금속가공, 1차금속산업, 전기장비 등으로 산단조성이 완공되면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1998년 개장되어 지금까지 꾸준한 물동량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2007년을 기해 해운·항만 환경의 악화로 물동량이 정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게 되었다. 이는 곧 광양항이 지금까지 수 출입화물이나 환적화물의 단순한 하역기능만을 담당했다고 볼수 있는데, 황금산단이 조성되어 기업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광양항은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변모되어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42 ▶ 황금산업단지 조감도

(바) 성항국제비즈니스파크

컨부두 배후지에 위치한 성항비즈니스파크는 총사업비 1,502억원을 투자 0.75km² 규모로 첨단산업, 물류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단계(2011~2015) 사업지구로서 현재는 많은 투자자들이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서는 환경피해가 적은 첨단 IT산업, 저공해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인근 광양만권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한 물류생산 거점으로 2012년 12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림 3-43 ▶ 성항국제비즈니스파크 전경

(2) 울춘지구

- 사업규모 : 27.85km²
- 시 행 자 : 전라남도,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남광건설(주) 등
- 주요사업 : 울춘제 I 산업단지(9.17km²), 울춘제 II 산업단지(3.79km²), 울춘제 III 산업단지(9.76km²), 울춘항만부지(5.13km²) 등

(가) 울춘 제 I 일반산업단지

울춘제 I 산업단지는 여수시 울춘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원을 2013년까지 총사업비 12,484억원을 투자하여 9.17km²를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3년 2월 현재 87%의 공정율을 보이는 가운데 6,092억원을 투입해 전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대하이스코, 오리엔트 조선 등 8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렇듯 주변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국내 유수의 조선업체를 비롯해 철강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산단 활성화를 위해 2013년말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용지 마무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44 ▶ 울춘 제 I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나) 율촌 항만부지

율촌 컨테이너 부두는 전체면적을 물류기능을 가진 용지로 계획하여, 1997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컨테이너부두로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율촌 제Ⅱ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어 우선 가호안 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추진 시기는 해양수산부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다) 율촌 제Ⅱ일반산업단지

율촌 제Ⅱ일반산업단지는 광양항 제3단계 준설토 투기장 일원의 3,793천㎡에 2020년까지 기계, 전자·전기, 비금속 등 업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1997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된 이후 되어 1997년 10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고시되었고, 1999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공동 개발을 협의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해양수산부가 2002년 11월 1일에 투기장 공사를 착공하였다.

최근 율촌 제Ⅰ일반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부족한 산업·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율촌 제Ⅱ일반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3-45 ▶ 율촌 제Ⅱ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라) 울촌 제Ⅲ일반산업단지

울촌 제Ⅲ일반산업단지는 울촌 제Ⅰ·Ⅱ일반산업단지의 중간지역으로 2004년 4월 10일 광양반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공장용지 수요 증가로 인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확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 투기장 확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2009년 6월에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다. 울촌제Ⅲ일반 산업단지는 연접한 울촌제Ⅱ일반산업단지의 개발추이에 맞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46 ▶ 울촌 제Ⅲ일반산업단지 위치도

(3) 신덕지구

- 사업규모 : 19.99km²
- 계획인구 : 98,5천명
- 시 행 자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순천에코밸리(주), (주)대우, (주)광양개발 등
- 주요사업 : 신대배후단지(2.90km²), 해룡산단(1.61km²), 광양세풍산단(3.00km²), 용강그린테크밸리(2.01km²), 광양복합업무단지(4.86km²), 웰빙카운티단지(2.21km²), 신대휴먼그린단지(2.33km²), 선월하이파크단지(1.07km²) 등

(가) 신대배후단지

신대배후단지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2,907㎢에 민간자본 5,600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 3월 착공식을 갖고, 현재는 단지 조성공사가 99%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숲속길 건강생태회랑은 폭 30m, 연장 6km에 달하며, 건강달리기길, 자전거길, 인라인스케이트길을 갖추게 된다. 단지 중앙에는 연장 770m의 녹지축이 조성되어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전용 임대공동주택, 외국인학교, 병원 등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47 ▶ 신대배후단지 조감도

(나) 해룡산업단지

해룡 산업단지는 순천시 해룡면 호두·신성·선월리 일원을 2014년까지 사업비 3,251억원을 투자하여 1,606㎢를 조성할 계획으로, 일부면적(0.33㎢)에 대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2010년 12월 완공하였으며, 일반 산업단지(1.274㎢)는 2014년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등 마그네슘 합금공장, 판재가공공장, 표면처리공장, 리사이클링 공장 등 전후방 연관 산업체가 들어서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8 ▶ 해룡산업단지 조감도

(다)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을 2015년까지 5,655억원을 투자하여 3.00km²를 조성할 계획으로, 광양항과 울촌산단의 중간지역에 위치해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포스코 광양신후판 공장 준공에 따른 파생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양항체제의 한 축인 광양항 배후의 물류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49 ▶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라) 광양복합업무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광양복합업무단지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일원을 4.86㎢ 규모로 전체면적 14.1%를 주거용지로, 8.7%를 상업용지로, 44.5%를 공공시설로, 2020년까지 사업비 10,614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주거단지와 시민휴게공간을 갖춘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마) 용강그린테크밸리

용강그린테크밸리는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일원을 2016년까지 사업비 4,078억원을 투입해 2.01㎢ 규모의 주거, 교육 및 R&D를 지원하는 복합단지로 2012년 일부 계획을 조정하여 개발계획을 재수립하였다. 생산물류 산업을 배후지원하고, 문화·교육, 첨단 IT를 수용하여 쾌적한 도·농 복합 배후단지로 조성된다.

(바) 선월하이파크단지

신대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에 이어, 울촌제II산업단지, 황금 및 세풍산업단지 개발에 대비해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하게 될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순천시 해룡면 일원을 1.07㎢ 규모로 전체면적 39.0%를 주거용지로, 11.5%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4.2%를 상업용지로, 45.3%를 공공시설로, 2020년까지 사업비 2,257억원을 투자하여 주거, 교육, 상업 등 기능을 갖춘 배후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 신대휴먼그린단지

순천시 해룡면 일원을 2.33㎢ 규모로 전체면적 25.2%를 주거용지로, 11.7%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2.7%를 업무시설용지로, 47.9%를 공공시설로, 2020년까지 사업비 4,964억원을 투자하여 주거, 교육, 상업 등 기능을 갖춘 배후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 웰빙카운티단지

웰빙카운티단지는 2012년 12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하게 될 배후지로, 광양시 광양읍과 순천시 해룡면 일원을 2.21㎢규모로 전체면적 20.2%를 주거용지로, 48.8%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31%를 공공시설로, 2020년까지 사업비 4,740억원을 투자하여 외국인 전용주거, 체육시설(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4) 화양지구

- 사업규모 : 9.99km²
- 시 행 자 : 일상해양산업(주)
- 주요사업 : 마린스포츠센터, 아쿠아파크, 컨벤션호텔, 콘도, 전망대, 세계민속촌, 스포츠전지훈련센터, 케이블카 등

여수 화양면 일원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선진형 해양종합 리조트단지로 개발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배후지 역할을 하고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다.

화양지구는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과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마리나비치 지구, 골프아일랜드 지구, 포레스트 밸리지구, 힐탑 지구, 마운틴 탑 지구 등 5개 테마지구 9.99km² (육지부 9.79km², 해면부 0.2km²)를 2015년까지 1조 4천여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적인 관광레저와 해양스포츠,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그림 3-50 ▶ 화양지구 조감도

(가) 마리나비치 지구

여주시 화양면 장수리 해변에는 들어설 ‘마리나비치 지구’는 202천㎡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요트장, 마린 스포츠센터, 아쿠아파크 등 해양시설과 상가, 해양경관이 양호한 해안을 따라 컨벤션호텔, 5성급 빌라호텔이 복합적으로 들어선다. 완만한 경사로 형성된 구릉지 지역에 18홀의 골프장을 계획하고 그 주변에 숙박 및 상가시설이 조성된다.

마리나비치지구는 화양지구 레저단지의 핵심시설로 이곳을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마리나 시설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마리나비치 지구는 케이블카로 마운틴탑지구, 포레스트벨리지구와 연결돼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 골프아일랜드 지구

마리나비치 지구 동쪽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는 골프아일랜드지구가 있다. 동측의 능선과 바다로 뺀 반도의 지형조건을 잘 활용하여 해안절경과 조화되는 18홀의 골프장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반도의 끝자락에 고급 별장형 콘도와 전망대를 설치하여 이국적 분위기가 풍기는 특색 있는 휴양리조트로 개발된다. 골프장 북측의 완만한 경사지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펜션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 포레스트벨리 지구

봉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가족 휴양형 시설이 집중 배치된 포레스트벨리 지구가 있다. 지구 내에는 별장형·스파·가족호텔과 별장형·휴양콘도가 들어서고 178천㎡ 부지에 세계 민속촌이 배치돼 방문객들이 각국의 민속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1천㎡ 규모의 산악레저월드가 신설돼 MTB 등 다양한 산악 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56천㎡의 플라워가든이 가족단위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꽃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라) 힐탑 지구

이영산 정상에는 ‘힐탑지구’가 있다. 처음에는 이곳에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산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연수시설, 스포츠전지 훈련센터와 별장형 콘도로 변경했다. 산 능선을 따라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숙박 시설을 배치하고, 해양경관이 양호한 능선부에 전망레스토랑을 배치하며, 진입부에 관리사무소 및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주변에 조각공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마) 마운틴탑 지구

다도해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화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봉화산 정상부에 ‘마운틴탑 지구’가 배치된다. 이곳에는 조망권의 정점을 십분 활용해 기 훼손 지역에 전망타워를 활용하여 마리나비치지구와 포레스트밸리 지구를 연결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하는 케이블카의 정상부 정거장으로도 활용한다.

(5) 하동지구

- 사업규모 : 12.17km²
- 계획인구 : 10천명
- 시 행 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송산업개발(주) 등
- 주요사업 : 갈사만조선산업단지(5.61km²), 대송산업단지(1.37km²), 덕천 에코시티(2.65km²), 두우 레저단지(2.54km²) 등

(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일원의 5.61km²에 조선 해양플랜트와 관련 연구기관을 집적한 RDE&P 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다. 2007년 10월 18일 하동지구 개발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하동군과 민간개발사업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2012년 12월 24일에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이 착공해, 교육·연구·생산시설이 집적화된 해양플랜트 및 고부가가치 특수선박 제조 위주의 특화 조선산업단지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림 3-51 ▶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감도

(나) 대송 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기능을 가진 산업단지로 1차 금속, 조립금속 등 조선기자재 산업을 중점 유치해 두 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보다 면적보다 0.37km²를 확대한 1.374km² 규모로 갈사만조선산단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시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2 ▶ 대송 산업단지 조감도

(다) 두우 레저단지

하동지구 개발사업 계획과 함께 진행되어 온 두우레저단지는 갈사만조선산단과 대송산단의 배후지의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조기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기간을 2012~2016년으로 변경하고, 골프장을 비롯한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섬진강을 아우르는 경관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53 ▶ 두우 레저단지 조감도

(라) 덕천 에코시티

하동지구 2개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덕천에코시티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당초 2016~2020년인 개발기간을 2012~2016년으로 변경하여 조기 개발할 계획이다. 산단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하게 되면, 국제 업무·상업, 주거와 교육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계획인구 1만여명의 자급자족 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54 ▶ 덕천 에코시티 조감도

4. 황해 경제자유구역

가. 개발총괄 개요

2005년 1월 27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장점을 공유·보완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06년 4월 20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되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8년 7월 22일 충남 당진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경기도와 충청남도 공무원 인력이 배치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당초와는 다르게 국내외 경제가 불황기를 맞이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면적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당초 송악지구 1,303만㎡, 인주지구 1,303만㎡, 지곡지구 354만㎡, 포송지구 2,015만㎡, 향남지구 531만㎡ 등 총 5개 지구 5,505만㎡에서 출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축소에 따라 향남지구와 지곡지구가 취소되고, 포송지구는 면적이 축소됨과 동시에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이 용이하도록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분리(포송지구, 한중지구, 현덕지구)한 후 2013년 8월에 한중지구가 지정해제되면서 송악 602만㎡, 인주 343만㎡, 포송 207만㎡, 현덕 2,32만㎡ 등 총 1,384만㎡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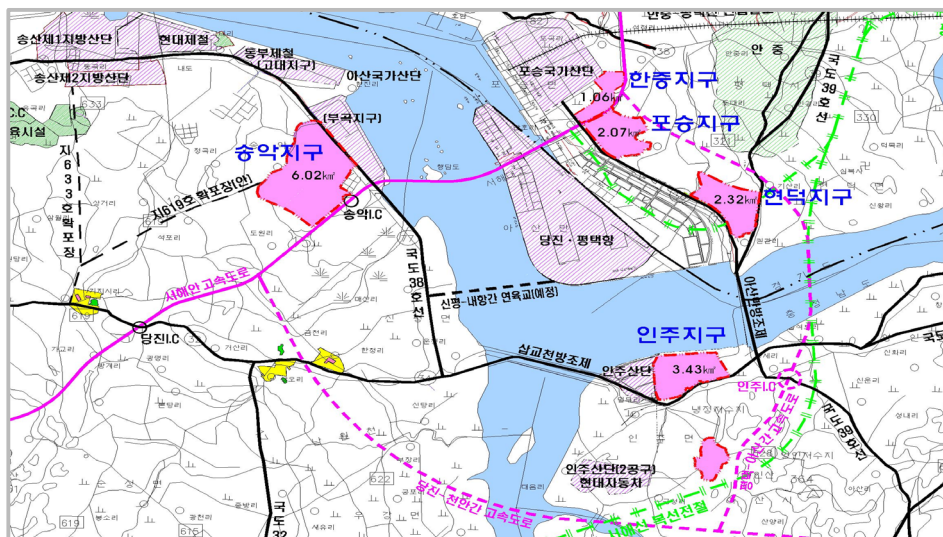


그림 3-55 ▶ 사업 위치도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 포승지구

-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화곡리, 신영리 일원
- 면 적 : 2,072천㎡
- 사 업 비 : 8,458억원
- 수용계획 : 6,646인(2,461세대)
-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물류단지, 외국인임대전용단지 등

2010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경기 불황 및 재무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중도 포기하였고 2012년 8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포승지구는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2011년 12월 8일 당초 사업면적 20.15㎢보다 73% 축소된 5.45㎢로 사업구역을 조정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로 참여중인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 8월 13일 3개 단위개발사업지구(포승지구, 현덕지구, 한중지구)로 분할하였고, 이중 포승지구로 분리된 2.07㎢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추진중으로 2013년 9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4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 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및 대중국 상업·업무·물류기능을 수행할 자동차부품, 물류단지, 외국인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2) 현덕지구

- 위 치 :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 면 적 : 2,319천㎡
- 사 업 비 : 6,604억원
- 수용계획 : 3,371인(2,164세대)
-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기계금속, 유통·물류 등

현덕지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발사업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포승지구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리된 지역이다.

2011년 11월 경기도,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식경제부에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를 요청하게 되었고, 201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던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외 시장경기 위축에 따른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성원가 인하 등 사업개선 및 사업시행 참여 독려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참여나 대체 사업시행자 발굴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현덕지구는 환황해지역의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자동차부품 및 전자·정보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외국인 전용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의료·주거·상업 등 클러스터형 기능, 중소기업 공동물류단지, 물류연구시설 등 물류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3) 송악지구

-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
- 면 적 : 6,017천㎡
- 사 업 비 : 1조8,993억원
- 수용계획 : 28,224인(10,453세대)
- 유치업종 : 철강산업 연계 클러스터, R&D, 물류·유통 등

송악지구는 2008년 5월 13.03㎢ 규모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9년 1월 (주)당진 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시행이 잠정중단되었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11년 12월 8일 6.02㎢ 규모로 면적이 축소 조정되었다.

이후 대내외적 여건변화 대응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된 면적에 대한 부문별 기본계획 및 개발구상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8월 13일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송악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이 주변에 입지한 송악지구는 철강산업 연계클러스터로 조성되며, 평택당진항의 핵심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역할과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인주지구

- 위 치 : 아산시 인주면 결매리, 냉정리 일원
- 면 적 : 3,431천㎡
- 사 업 비 : 7,024억원
- 수용계획 : 4,020인(1,748세대)
- 유치업종 : 자동차 생산·부품, R&D, 물류·유통, 주거단지 등

2009년 12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2011년 4월 18일 사업시행자 자격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실정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 면적이 2011년 12월 8일에는 13.03㎢에서 4.05㎢로 구조조정 되었고, 2013년 2월 13일에는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감안한 구조조정 이행 조건(농업진흥지역 비율 반영)에 따라 3.43㎢로 최종 축소 조정되었다.

현재, 2013년 상반기중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추진중으로, 주변 자동차생산 시설과 연계된 자동차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및 연구시설과 관광지, 전원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5. 새만금 · 군산 경제자유구역

가. 개발 총괄 개요

새만금방조제 개통('10.4)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11.3)으로 내부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 · 외 관심이 고조되었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착공과 산업단지 매립으로 개발 및 투자유인이 개선됨에 따라 잠재투자자들의 투자문의와 현장방문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개발계획 변경, 해외투자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을 조성하여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개발한다.

먼저 새만금산업단지는 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을 위하여 자동차부품, 조선 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RFT(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가치식품 등 산업유치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는 1공구 1,890천㎡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전체 2,550천㎡에 대해 80%이상 매립을 한 상태이며, 군산-새만금 송전선로를 2013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OCI(주)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전체 산업물류시설용지 9.8㎢중 22.5%인 2.2㎢에 28개사와 MOU 체결하였다. 앞으로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국가별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 할 계획이다.

새만금관광단지는 동북아 최고의 국제관광 레저허브 조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1단계 선도사업 지역인 희망의 섬(게이트웨이) 1.0㎢는 현재 매립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11.11), 2단계는 나머지 지역인 녹색섬 8.9㎢로 2015년부터 매립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까지는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군산군도지구는 군산시 옥도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3.26㎢로 서해안의 수려한 해양군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종합휴양지의 형태로 개발하여 동북아 및 대중국을 겨냥한 국제적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확충('09.12), 상수도시설 착공('10.6), 선유도 하수처리장 완료('11.2) 등 고군산군도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고군산군도 개발계획이 불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4개 지구로 분리하고 면적을 조정하는 개발계획변경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군산시 오식도동과 비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17.4㎢로 지역전략 산업(자동차, 부품소재)을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생산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였다. 1989년 8월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 1993년 5월에 착공, 2007년 1월말에 개발이 끝나고 준공을 마쳤다. 2008년 5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계획이 승인 · 고시되어 현대중공업, 세아제강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2.12.11)으로 새만금사업지역 밖에 있는 군산2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의 부재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 새만금산업단지

- 사업규모 : 18.7km²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업종 : 기계부품, 신소재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RFT(핵융합), 바이오 · 고부가가치식품 등

새만금산업단지는 2008년 5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200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농수산식품부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양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립을 시행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초기착공을 위하여 1공구(1.9km²)에 대한 매립실시계획을 승인받아(2008.12.31), 2009년 3월 산업단지 1공구 1차 매립공사를 착공하였다. 1공구(1.9km²)의 경우 당초 2012년 11월 완료예정이었으나 매립기간을 8개월 단축하여 2012년 3월 매립완료 하였고, 2공구(2.55km²)도 2011년 12월에 착공하여 당초 2014년 9월 준공예정이나, 9개월을 단축하여 2013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총 4차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개발계획변경 1차(전라북도 고시 제2008-491호, 2008.10.15)의 변경내용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였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다. 2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8, 2010.7.19)는 자연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수변개방형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조정,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였다. 3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69호, 2011.1.5)는 투자 희망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입주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유보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자동차부품 유치업종을 신소재 나노융합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였다. 4차(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6호, 2011.12.30)는 2단계 조성공사 착수시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였다. 2단계 조성기간이 당초 2011년부터 2018년까지였으나 2017년부터 2018년으로 변경되었다.

표 3-3 ▶ 새만금 산업단지 수립과정

일 시	내 용
2008. 5. 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고시
2008. 12. 31	새만금산업단지 제1차(1-①공구) 준설토매립 실시계획 승인
2010. 7. 19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1. 1. 15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11. 12. 30	새만금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12. 12. 4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 매립 및 조성공사

2009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한 새만금산업단지는 1공구에 세계적 태양광 기업인 OCI(주)가 17만평을 투자하기로 2010년 8월 MOU를 체결하고, 2011년 4월 가계약함에 따라 조기 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CI(주)에서 입주할 예정인 1공구는 2단계로 나눠 매립을 추진하였다. 1공구 1차 0.95km²는 2009년 3월 착공하여 군장항 7부두 투기장에 있던 덤프트럭 28만대 분량의 준설토 251만m³를 육상 운반하여 2010년 7월 매립을 완료하였고, 1공구 2차 0.95km²는 2010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11년 연말까지 준설토 331만m³중 180만m³ 준설·매립하여 54% 공정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2공구 2.55km²를 조기에 매립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입찰공고를 내고 2011년 11월 한진중공업(65%), 선영건설(19%), 청목건설(16%)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1년 12월 16일부터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 1공구 2차 0.95km²는 2012년 3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공구 2.55km²는 2013년까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매립 및 양도·양수 추진

새만금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은 농림식품부가 1991년 취득한 농지조성 목적의 매립면허(401km²) 중 새만금산업단지의 매립면허(18.7km²)를 배제하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착공이 진행되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실시계획 승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편입부지 간척지를 양도·양수 전에 우선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회의(2010.3.3) 시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감정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가 아닌 매립권 가치로 결정함이 타당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에 있어 산업용지가 아닌 용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2010.3.31). 양도자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양수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여 매립면허 양도·양수금액 재감정평가에 착수하였다(2010.5.10). 새만금산업지구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양수비를 재감정평가 결과 3.3m²당 33,554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에 평가했던 3.3m²당 52,231원 보다 18,677원이 인하된 금액으로, 새만금산업지구 18.7km²에 대한 총 양도양수 금액은 2,955억 원에서 1,898억 원으로 1,057억 원이 인하되었다(2010.6.16).

구 분	평 가 결 과		비 고
	1차평가(2009.3)	2차평가(2010.6)	
감정가	52,231원/3.3m ²	33,554원/3.3m ²	18,677원/3.3m ² 인하
금 액	2,955억원	1,898억원	양수금액 1,057억원 절감

농림수산물부 장관(양도자)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양수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내 새만금지구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2010.7.5).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림수산물부에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금액 189.8억 원(총1,898억 원의 10%)납부하여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매립권리를 확보하였다(2010.8.3).

■ 도시가스공급 계획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에 외국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되어야하나, 군산 및 새만금산단의 가스수요량이 급증하여 2013년부터는 군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 조기 조성되어야 한다. 군산지역 현 공급능력을 검토결과, 수요초과가 발생되어 한국가스공사에 2010년 8월 신규가스 수급지점 개설요청을 하였는데 신규수급지점을 2015년 12월까지 공급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11월에는 새만금산단 및 군산제2국가산단지역의 가스조기공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를 방문, 군산제2국가산단 기업체의 공장증설과 새만금산단의 기업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스공급시설 건설 계획 및 행정절차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지식경제부에서 정부 방침이 2011년부터 공기업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니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라고 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군산제2국가산단 기업체의 공장 증설 및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공장가동 등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군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신규설치에 따른 예타 신청을 하면 심사완료 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2015년 12월까지 공급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기착공과 사업기간단축이 절실하다고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였다. 2011년 12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 새만금산단 내 가스공급소설치 예비타당성조사서를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2012년 1월 새만금산단 내 가스공급소설치 사업 계획을 제출한 이후, 2012년 3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가스공급소설치 장소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여 2012년 12월 지식경제부에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요청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상반기 이사회로부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12월 가스공급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가스공급소 완공 전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군산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소 완공 전 임시가스저장시설을 2013년 하반기에 설치하여 2014년부터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스공급소 설치 계획

- 공급설비 : 1개소(20,000m³), 관로35.0km, 사업비712억원, 사업기간 40개월
- 임시저장 공급소 설치 : 부지 2,000m², 사업비 80억원, 공사기간 12개월

■ 새만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위해 3만톤/일 규모로 처리장건설을 계획했으나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기설치된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2011.6.1.). 1단계 사업으로 폐수연계처리시설인 이송관로(5.1km)와 이송펌프장을 2014까지 완공하여 폐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폐수발생량에 따라 군장폐수종말처리장을 2018년까지 33천톤/일을 증설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폐수연계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3년 사업비 67억 원(국비 47, 사업시행자)을 투자하여 1단계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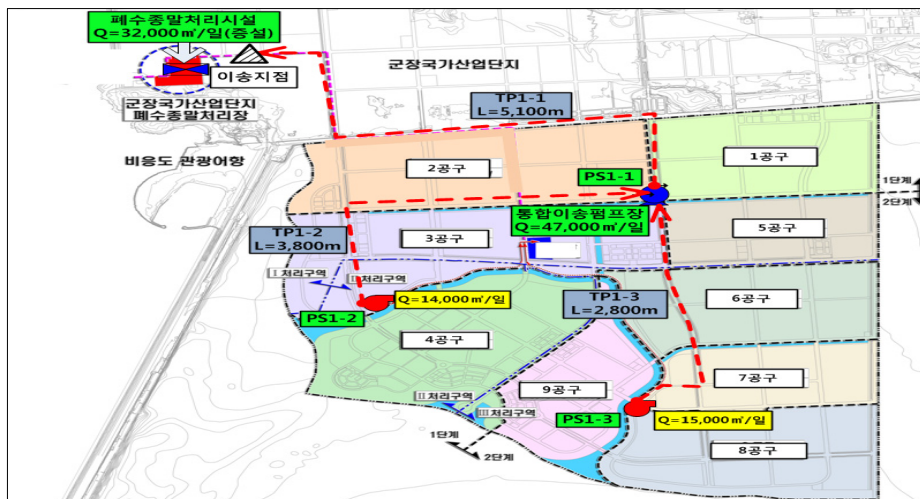


그림 3-56 ▶ 폐수처리시설 평면도

■ 용수공급시설 추진

군산지역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일일 130천 톤이며, 공급량은 2012년말 기준 일일 90천 톤으로 일일 40천 톤의 여유량이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수요량은 일일 156천 톤으로 2018년 기준 116천 톤이 부족하게 된다. 부족량에 대한 공업용수 확보방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단기수급방안, 중기수급방안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방안으로는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일일 75천 톤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환사업을 완료 하였고, 중기계획으로는 금강광역상수도 공업용수 전환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2017년까지 자체예산 1,400억 원을 투자하여 일일 140천 톤을 공급할 계획에 있다. 새만금 산단 내 공업용수 공급 사업 추진은 오식도 배수지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입구까지 배수관(D1000mm)로 4.0km를 20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 250억 중 2013년 사업비로 국비 54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다. 생활용수는 군산시 일일 공급량 182천 톤에서 산업단지 수요량 일일 190천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생활용수 배수관로 사업은 전체사업비 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8억 원을 확보하여 1단계 공사(2.1km)를 2012년도 착공하여 2013년도 완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공업용수시설은 비롯하여 각종 용담댐 생활용수 전환사업, 오식도배수관부설, 금강광역상수도 공업용수전환사업을 본격적인 기업체 입주시기인 2014년 이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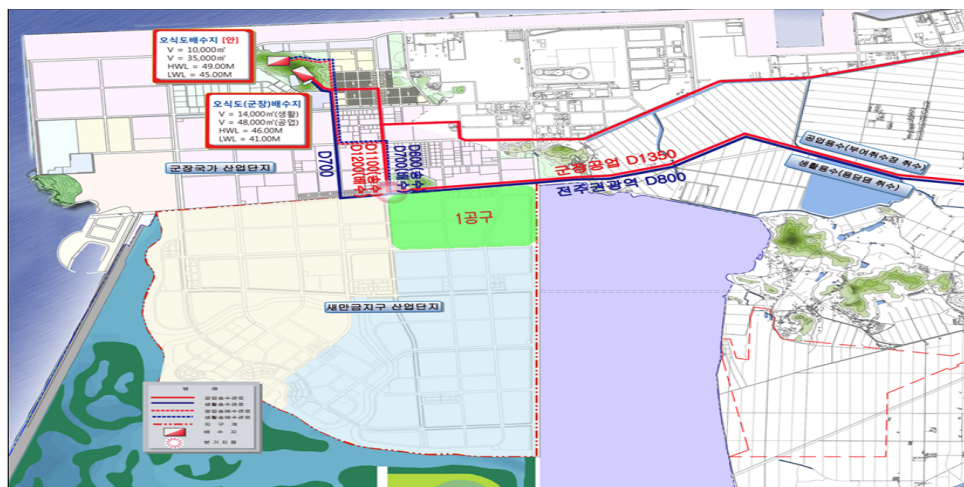


그림 3-57 ▶ 공업용수 공급 현황도

■ 전력공급시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전력 수요량은 88만kW로 기존의 군산 전력 공급망(2개망 군산~서군산, 군산~동군산) 120만kW으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규 전력공급이 어려워 200만kW를 공급할 수 있는 345kV급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한전에서 군산시로부터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2011.2.11)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산업단지 내부의 전력공급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2010.7.19)시 154kV 변전소(부지면적 : 15,144㎡, 개소당 250억원 소요) 3개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계획이다.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사업비 1,900억 원을 투자하여 송전선로 30.3km, 송전탑 88기, 변전소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말 현재 철탁부지 88기의 부지는 확보하였으며 42기를 조립 완료, 21기가 공사 중으로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변전소는 2012년 완공하였다(2012.11.15). 다만,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구간 지하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 전자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등을 이유로 지중화건설과 새만금 방수제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철탁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새만금 군산자유구역청 주관 하에 경과지역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 군산시,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T/F 팀을 구성·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설득을 위한 대책위 면담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개구간 노선변경과 환경친화형 철탁설치 변경 16개소, 무소음·무진동 기초시공 변경 40개소를 완료하였다.

또한, 군산시 연고 공무원으로 민원협의체를 구성(4개반 39명) 사업타당성에 대한 주민설득과 지역지원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경과지역의 보상 방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제정(송전선로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 T/F 회의,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단기적으로는 군장·내초 변전소에서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에 전력공급(20만kW)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송·배전 설비계획에 반영하여(2018년) 입주기업의 전력수요량에 따라 산단 내부에 3개의 154kV 변전소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그림 3-58 ▶ 전력 공급망

(2) 새만금관광단지

- 사업규모 : 9.9km²
- 시 행 자 : 전북개발공사
- 주요사업 : 테마파크, 호텔, 상업·숙박시설, 연수시설, 공연·문화시설, 실버센터 등

2008년 5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개발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단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1단계 선도사업 지역인 희망의 섬(게이트웨이) 1.0km²는 현재 매립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2011.11), 2단계는 나머지 지역인 녹색섬 8.9km²로 2015년부터 매립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까지는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단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건설한 민간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미이행 등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개발방침을 확정하여 당초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여 2012년 11월 전북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9,518억 원이고 사업시행자가 7,870억 원(자체자금 및 분양수입금 5,205억 원, 차입금 2,665억 원), 간선도로, 배수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비가 1,648억 원(국비 636억 원, 지방비 1,0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새만금관광단지 내에는 문화시설 3개소, 공원녹지시설 26개소 등 총 29개소의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 휴양시설 5,549천㎡에는 골프장, 테마마크, 숙박시설, 공연문화시설 연수단지, 실버센터, 공원녹지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새만금관광단지는 총 5차에 걸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1차(전라북도 고시 제2009-288, 2009.10.12)는 전북개발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3호, 2009.12.3)는 방조제 개통 이후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사업지역(Gateway)를 매립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단축, 자원조달방법,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등을 변경하였다. 3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5호, 2010.9.9)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2010.1.28)으로 문화부 관광용지와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간 구역계 조정을 위해 사업대상지, 자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주거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변경하였다.

제4차는 제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공기연장), 제5차는 제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매립재료원 변경). 새만금관광단지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선도사업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2009.12.3)을 받아 Gateway 매립공사(1.0㎢)를 완료(2011.11.24)하고 2단계(8.9㎢) 매립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3-4 ▶ 새만금관광단지 수립과정

일 시	내 용
2008. 5. 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고시
2008.12.26	새만금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전북개발공사)
2009. 9. 1	개발계획변경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
2009.12. 3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
2010. 5.17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
2010. 9. 9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
2011. 6.15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공기연장)
2011. 6.28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공기연장)
2011. 7.15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매립재료원 변경)
2011. 7.26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매립재료원 변경)

새만금관광단지는 3세대가 함께하는 체험·체류형 테마파크, 연수시설, 실버센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상업, 숙박, 주거기능을 특화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Gateway(선도사업지구)는 방조제 개통 이후 증가할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공공편익시설, 아쿠아 테마파크, 콘도·호텔, 마리나빌리지 조성하고 테마파크는 다양한 형태의 레포츠 체험활동이 가능한 아쿠아파크, 클럽스포츠파크, 스포츠과학 패밀리파크 등을 특화 개발할 계획이며, 수익성이 확보된 세컨하우스 개념의 리조트로 개발하고, 연수단지는 연수시설의 확장 또는 신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에게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용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3) 고군산군도

- 사업규모 : 3.26km²
- 주요사업 : 마리나, 호텔, 펜션, 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생태박물관, 생태학습장, 주차장 등

고군산군도지구는 군산시 옥도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3.26km²로 서해안의 수려한 해양군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종합휴양지의 형태로 개발하여 동북아 및 대중국을 겨냥한 국제적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친환경적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동아시아 경제권의 성장과 대중국 교류증가에 대비한 차별화된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군산군도지구는 2008년 5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지구지정 이후 민간 자본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고군산 단일지구를 4개 지구로 지구분할, 개발 불능지 제척 그리고 인접 공유수면 신규편입 등을 통해 민간자본유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국도4호선,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전력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특히, 주간선도로(국도4호선) 공사를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을 2011년 7월에 마련하여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2012년 1월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다(2012.3.13 착수).

고군산 단일지구를 소단위 규모로 지구 분할하고, 생태자연도 1급지 등 개발불가능 면적을 제척, 그리고 인접 공유수면 중 경제성이 확보되고 기 지역의 개발방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부지역을 경자유역에 신규 편입할 계획이다. 또한, 고군산마리나항을 국토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1) 및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11.7)에 반영하였다.

휴양시설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총 14개소로 조성할 계획이며, 휴양시설 면적 4,362천m²에는 마리나, 호텔, 펜션, 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생태박물관, 생태학습장, 주차장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새만금지역에 대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광특구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군산군도지구에 위락·교육·의료·휴양형 등 중국인을

겨냥한 China Plan을 추진 중에 있다. 섬·바다·방조제·내수면으로 이어지는 21C의 미래관광 트렌드인 해양 관광을 핵심 아이템으로 대중화권 관광객과 투자가의 기호에 맞는 실현가능한 수익모델 개발과 핵심 앵커시설을 발굴할 계획이다.

표 3-5 ▶ 고군산군도지구 수립과정

일 시	내 용
2008. 5. 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고시
2009. 12.	고군산연결도로(국도4호선) 공사 착공
2010. 5. 31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 (전북도→지경부)
2010. 6. 8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반려 (지경부→전북도)
2011. 7. 29	고군산 마리나항만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2012. 8. 31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안) 승인 신청 (경제청→지경부)
2012.9.20./10.9	고군산군도지구 지경부 자문회의 실시(2회)
2013. 4. 11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안) 경자위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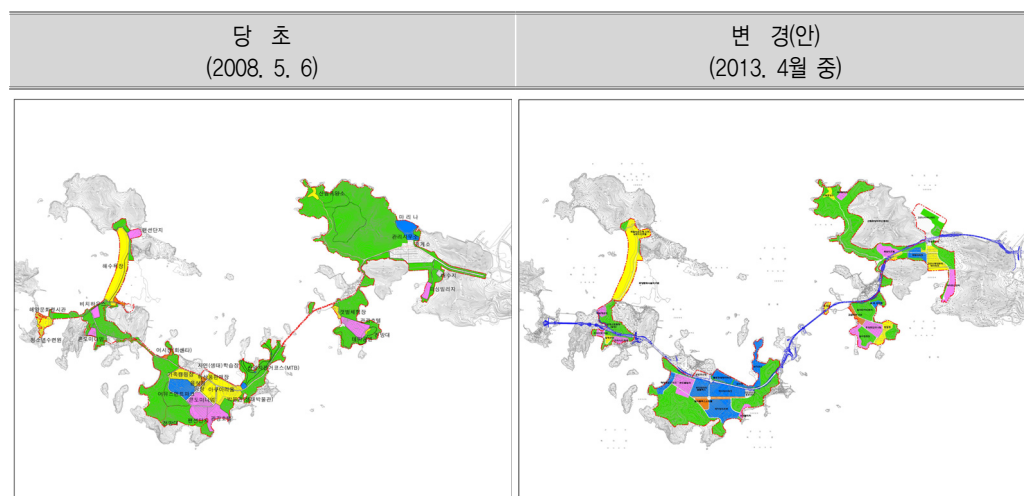


그림 3-59 ▶ 개발계획도 변경

고군산군도지구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와 새만금관광단지, 방조제 다기능 부지 및 명품복합관광단지 등 주변 관광단지 개발사업 그리고 인접해 있는 변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섬들로 둘러싸인 넓은 호수를 활용하여 마리나 등 수상 레저·스포츠시설을 배치하고 수변지역에 휴양형 고급 숙박시설을 계획하여 해양레저와 휴양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군산 군도 전체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가능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휴양·웰빙형 한류체험 (한방 케어, 갯벌 및 염전체험 등)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유팔경을 비롯한 고군산군도 비경의 경관조망을 활용하여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펜션형 빌라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배치하여 체류형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4) 군산2국가산업단지

- 사업규모 : 17.4km²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업종 : 자동차 조선 건조, 기계부품·태양광·풍력 발전세트 제조 등 신재생에너지

군산2국가산업단지는 군산시 오식도동과 비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이 17.4km²로 지역전략산업(자동차, 부품소재)을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생산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였다. 1989년 8월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467호), 실시계획승인이 승인(건설부고시 제743호)되었고 1993년 5월에 착공을 시작하여 2007년 2월에 개발이 끝나고 준공을 마쳤다. 2008년 5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2009년 부지분양을 완료하였다.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2009년 11월 중부발전부지 부지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되었다. 이에 중부발전소부지(773,428m²)를 당초 지원시설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군산2산업지구에는 다양한 기업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현대중공업, 세아제강 등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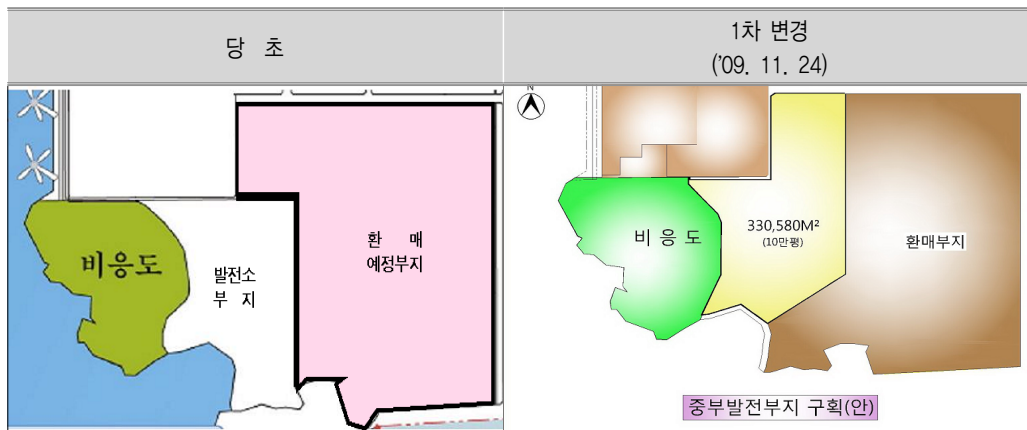


그림 3-60 ▶개발계획도 변경

6.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가. 개발 총괄 개요

DGFEZ 10개 지구 가운데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공동주택을 분양·건축중이며 수성의료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패션·어패럴산업, 미디어산업, 첨단IT 및 지식산업,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업종으로 산업용지를 분양하였다. 현재 공동주택 분양 및 섬유패션대학 준공 등 활발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5년 12월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서첨단의료지구는 첨단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종합연구 단지 조성을 2011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준공 예정이며, 각종 연구개발 지원센터 유치로 한국 의료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자 한다.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는 국내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조기 운영이 가능토록 기반시설을 부분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외투기업 1호인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가 '12년 4월 공장을 착공하였다.

수성의료지구는 의료·교육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우수한 외국병원 유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단지 조성,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합되는 국제화 교육단지 조성 추진하고 있다.

국제문화산업지구는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부지에 IT 및 CT 기업 집적을 통해 문화창조, 게임 콘텐츠 콤플렉스 등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협의 중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용역 재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완료 등 2012년 12월 사업 재추진을 목표로, LH공사 방문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기존의 구미국가산업 1·2·3·4단지와 신규 개발지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5단지)와 연계한 글로벌 첨단 IT산업의 수도 조성 추진하고 있다.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지능형 자동차부품, 전기·기계·조립금속 등의 첨단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 11월 4일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하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능형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관련 R&D센터 및 미래형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추진하고 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외국 기계부품 특화산업단지 조성, 첨단 메디컬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그린부품 소재산업 등을 개발목표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이다.

나. 단위사업지구별 개발현황

(1)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1997년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의 용역으로 만든 “대구·경북 섬유산업구조 개선방안”을 모태로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1998년 3월 11일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님을 지적하고 투자와 노력을 하면 대구가 “동양의 밀라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밀라노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된다.

「밀라노프로젝트」는 4개 분야 17개 사업 6,800억원의 예산(국비 54.0%, 시비 7.5%, 민자 38.5%)으로 1단계(1999~2003), 2단계(2004~2008)에 걸쳐 추진하여 대구지역 섬유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봉무일반산업단지는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 사업 중 하나인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로 199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KDI)를 시작으로 2001년 10월 30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고시 되었다.

봉무일반산업단지는 2004년 12월 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전면 중지되었고 이때까지 총사업비 8,251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2005년 3월 31일 감사원은 「밀라노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봉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 3,007억원 중 국비 700억원을 제외한 2,307억원의 민자 조달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2004년 8월말 사업진척률이 18%에 불과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를 통보하기에 이른다.

당초 2003년 봉무일반산업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기반시설(도로 등)을 대구시가 대지 조성은 민간개발로 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 10월 민간 투자대상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인베스트대구 컨소시엄, ID센트럴 컨소시엄 중 2005년 1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대구광역시가 별도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주)밀란시티’였지만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패션산업단지의 이미지가 강해 첨단복합 상업단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이시아폴리스(Esia Polis)’로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하고 회사 명칭도 ‘(주)밀란시티’에서 ‘(주)이시아폴리스’로 변경하여 본격적인 ‘대구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용역’을 수행하여 2007년 12월 31일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였고, 2008년 1월 23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이후 2008년 4월 25일에 경제자유구역(국제패션디자인지구) 지정에 따라 패션·어패럴산업, 미디어산업, 첨단IT 및 지식산업, 공공시설, 상업시설(패션스트리트 등), 주거시설 등의 업종으로 산업용지를 분양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공동주택 1차 분양(652세대), 2010년 8월 국제학교 개교, 2010년 10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준공, 2011년 1월 섬유패션대학 준공, 2011년 4월 롯데명품아울렛 준공, 2011년 5월 공동주택 2차 분양(750세대), 2011년 10월 공동주택 3차 분양(1,686세대), 2011년 12월 대구텍스타일 Complex건립 착공, 2012년 6월 공동주택 4차 분양(774세대)을 완료하였고, 2015년 12월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림 3-61 ▶ 국제패션디자인지구

(2) 신서첨단의료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과 임상제품 시험, 신제품 신약 개발 등에 관련된 인프라로서 각종 지원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국내외에서 우수한 연구인력 등을 유치하여 첨단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종합 연구 단지로서 2009년 8월 10일에 정부(보건복지부)의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첨복단지 유치에 응모한 전국 7개지역 가운데 최종 정량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 2009년 8월 동구 신서동 일원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였다.

단지내 사령부 역할을 할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사업비 342억원이 투입되어 2011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준공 예정이며, 연구와 기업지원의 핵심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도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에 클러스터용지 9필지(47,973㎡)에 대한 공급 공고를 실시하여 2012년 10월 입주 계약 체결예정으로 현재 여러 기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지조성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4,072억원으로 글로벌 의료산업의 연구개발 중심을 비전으로 하는 이 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한국 의료산업을 이끄는 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2 ▶ 신서첨단의료지구

(3)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는 사업준공 예정일('13년 6월) 이전에 입주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임베디드 SW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의 연구기관 개원과, 산업시설용지에 최초 입주하는 (주)현대네 기업체의 공장가동이 조기에 가능토록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2012년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외투기업 1호인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주)가 금년 4월 공장착공이 가능토록 부지조성과 주변 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하여 10월경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국립대구과학관도 금년 10월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료하였다.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현풍천, 원교천, 금동천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재정비 하고 지구 중앙부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인 황지는 원형을 보전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준공 후 입주기업 100여개가 가동되고 연구기능이 집적되어 계획인구 5만명의 첨단 복합도시 기능이 본격에 오르면 고용유발효과 8만4천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3조5천원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6조4천억원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동남권 R&D 중심도시로 크게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63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4) 수성의료지구

수성의료지구는 당초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수성구 대흥동, 고모동, 시지동 일원 전체 조성면적 1,789,884㎡ 규모로 의료·교육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우수한 외국병원 유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 관광단지 조성,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합되는 국제화 교육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8년 5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다.

2009년 5월 대구도시공사와 개발사업시행자 협약 체결하여 2009년 6월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다.

2010년 5월 부족한 개발용지를 확충하고자 대흥단지 동측의 공원화 용지를 개발용지로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공급용지를 확보하였고 2010년 11월 수성의료지구내 위치한 방공포병여단 부지중 공군방위력 개선사업에 필요한 일부 국방부 토지 제척하는 등 수성의료지구 조성단가 인하 및 외국자본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2011년 4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시 수성의료지구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의료특별법 제정 담보로 인한 투자유치의 한계와 사업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고모, 이천단지 전체 및 대흥단지 일부를 제척하였다.

일부 제척결정됨에 따라 조성면적이 수성구 대흥동 일원 1,214,215㎡로 축소되는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방향설정,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2012년 2월 득하여 지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12년 3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구 내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11월 통과되었고, 사업비 마련을 위한 2012년 9월 행정안전부에 기채승인 신청을 위한 각종 신청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향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의료, 교육, 문화 등 IT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지식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그림 3-64 ▶ 수성의료지구

(5) 국제문화산업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는 남구 대명동 일원 전체 조성면적 67,201㎡ 규모로,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부지에 IT 및 CT 기업 집적을 통해 문화창조, 게임 콘텐츠 콤플렉스 등으로 개발한다.

2008년 4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다. 2010년 7월 국제문화산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시설 용도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협의를 하였고, 2010년 9월 지구내 기본재산 용도변경(교육용 → 수익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회시를 받았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협약서 작성 등 협의 중에 2011년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2011년 9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 개정된 법규정에 적합한 조기개발 사업추진방안(공사, 공단, 민간, SPC 등)을 모색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2011년 1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안의 학교법인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2년 9월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비영리법인(학교법인)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향후 2013년 3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13년 7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2008년 5월 6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지정되어, 2009년 2월 5일 한국토지주택 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실시계획수립 용역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무리 없이 추진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2011년 5월 18일 사업시행자 변경 요청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주변 여건(KTX신역사 건립, 동해남부선 건설, 신항만 배후도로 준공 등)의 변화로, 2012년 4월 6일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재개 하였고, 2012년 6월 14일 사업추진 재검토를 위한 전략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3년 4월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목표로, 내공사 본사 방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반시설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320억원에서 467억원으로 조정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완료하였으므로, 내공사에서 본 사업 지구 재추진이 확정되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즉시 추진하여 기반시설 확충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림 3-65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7) 구미디지털산업지구

2008년 5월 6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일원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기존의 구미국가산업 1·2·3·4단지와 신규 개발지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5단지)와 연계한 글로벌 첨단 IT 산업의 수도 조성을 밑그림으로 하고 있다.

2009년 3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2011년 6월 30일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개발을 통해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지구로 개발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주요내용은, 지구 동측 임상이 양호한 산림 및 자연형 하천인 한천 남쪽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내측에 위치한 금전동 일부를 신규 편입하여 당초 행정구역 기준으로 지정된 구역계를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한 한천 중심의 구역계로 변경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발계획 변경 이후, 현재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를 비롯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와 개발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4단지확장, 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先개발 및 4대강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수십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시, 경북도, 지경부 및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속적인 개발사업자 독려로 보상추진,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디지털산업지구와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및 경제성 검토(VE), 토지보상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2011년 3월 28일 진입도로개설 제1공구 착공, 2011년 5월 2일 제2공구 착공후 가설공사, 토공사 및 교량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2,4번 진입도로 연결구간 및 내부 간선도로 건설 등 국비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3-66 ▶ 구미디지털산업지구

(8)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의 주요 기능은 낮은 지가를 기반으로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인접 대구 및 경산학원 지구에서 창출된 지식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차부품, 전기·기계·조립금속 등의 첨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산업시설용지에 총면적의 65.2%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외로부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성 중이다. 화물의 이동을 고려하여 영천 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한 단지 북측 및 간선도로 부근에 지원시설을 집단화하여 계획하였고, 고속도로변 30m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대상지 동측과 남측부근에도 농업보호구역을 위하여 약 15~20m 내외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산업단지내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 중에 있다.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 9월 17일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10년 5월 보상을 완료한 영천첨단부품소재지구는 현재 공정률 80%로 2013년 6월 부지조성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11월 4일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 현재 분양률은 80%정도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림 3-67 ▶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9)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능형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관련 R&D센터 및 미래형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유통시설용지는 그 기능에 따라 지식산업시설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였다. 먼저, 지식산업시설용지에는 첨단 메카트로닉스산업단지 및 미래형 자동차 테마파크 등을 집중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화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시설용지에는 첨단 메카트로닉스 산업집적화센터를 비롯한 각종 첨단 지식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하였고, 유통시설용지에는 첨단부품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유통기능의 극대화를 달성하였다.

주택건설용지는 주택유형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저층·중층)으로 분류하였고, 지역적 특성과 쾌적성을 위해 평균밀도 160인/ha 이하의 저밀도 주거지로 계획하였다.

상업업무시설용지에는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이용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도로·주차장·공원·녹지를 비롯하여 지구 내 상주인구를 위한 교육·종교·운동·의료·공급처리시설 등을 배치하였다.

향후 사업 확장 및 변경에 대비하여 지구 총면적의 약 10% 정도인 북측 일부를 유보지로 정하여 장래 경제자유구역의 성장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개발계획의 파급효과 주변지역의 활발한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청동면 대평리 일원에 66만평 규모의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영천 경마공원」이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인근 금노동에는 부지면적 6,890㎡에 건축면적 2,645㎡, 총 사업비 100억여원 규모의 (재)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건립 중에 있다.

하이테크파크지구 성과로는 현대글로벌비스(주) ⇄ 경상북도 ⇄ 공군군수사령부 ⇄ 영천시 간 투자유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항공부품산업육성 및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항공부품생산·물류단지를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 4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다.

상기 다자간 업무협약(MOU)의 파급효과로 공군군수사령부, 현대글로벌비스(주) 민간자원을 활용한 항공부품 물류조달·보급체계의 선진화를 꾀하고 항공분야의 첨단기술력확보 및 부품 국산화 촉진하고 IT산업 인프라와 공군군수사령부, 예천공군부대, 포항·예천·울진공항 등 항공기반을 보유한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항공부품산업의 최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 녹전동 일원(하이테크파크 지구 내)에 2011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한 조성부지 20,000㎡, 건축 4,620㎡, 사업비 187억원 규모의 경북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을 건립하여 경북하이브리드 연구원과 상호협력을 통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하이테크파크지구는 NH공사와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12월 29일 한국토지공사(현 NH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맺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진입도로)설치 준비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그림 3-68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10)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08년 6월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대에 649만㎡(196만평) 규모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교육·학술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경산학원연구지구란 이름으로 최초 지정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 어려움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경산시의 입지적 특성과 장점 및 주력업종을 바탕으로 기계부품 특화산업단지 조성, 첨단 메디컬 신소재 산업 단지 조성, 그린부품 소재산업 등을 개발목표로 변경하고, 개발면적을 627만㎡(190만평)로 축소 및 경산지식 산업지구로 지구 명칭을 변경(1차)하는 개발계획을 2010년 7월에 변경하였다.

한편, 지구 개발사업 성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2009년부터 수년간 공기업, 민간기업 등과 10여회 협의를 실시한 결과 2011년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조기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노력하여 2012년 1월에 특수목적법인(경산지식산업개발(주) - (주)대우건설, 경북개발공사 공동출자)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동년 3월에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지구의 조기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 후 2011년 6월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단지규모를 392만㎡(118만평)로 축소하고, 지구 내 유치하게 될 국책사업(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차세대 융복합 건설기계·부품설계자원센터 구축,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과 현재의 실질적인 개발수요를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이 2012년 3/4분기에 고시되어 사업의 성공적인 조기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림 3-69 ▶ 경산지식산업지구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FREE ECONOMIC ZONES
10 YEARS HISTORY

제4장

경제자유구역내
외투 유치 및
제도 정비



제1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유치

1. 외국인 투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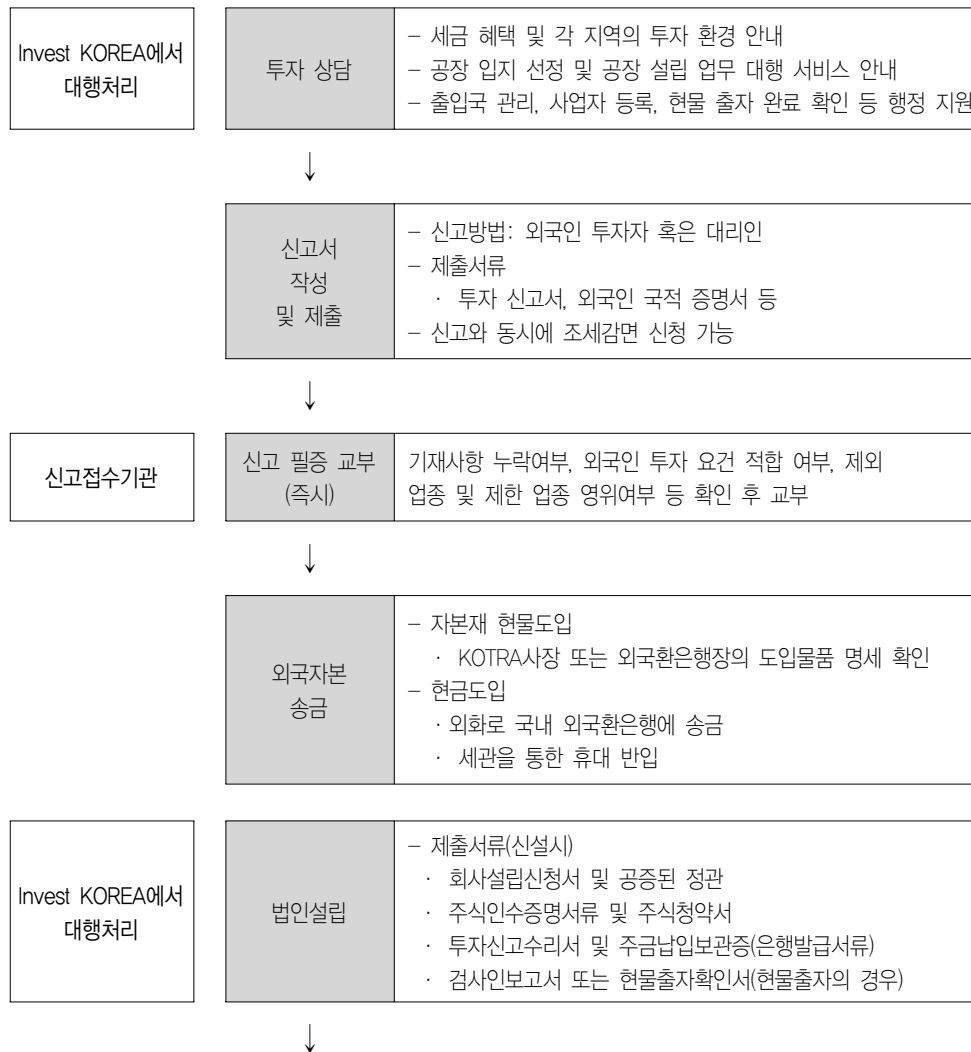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의미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하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도 외국인 직접 투자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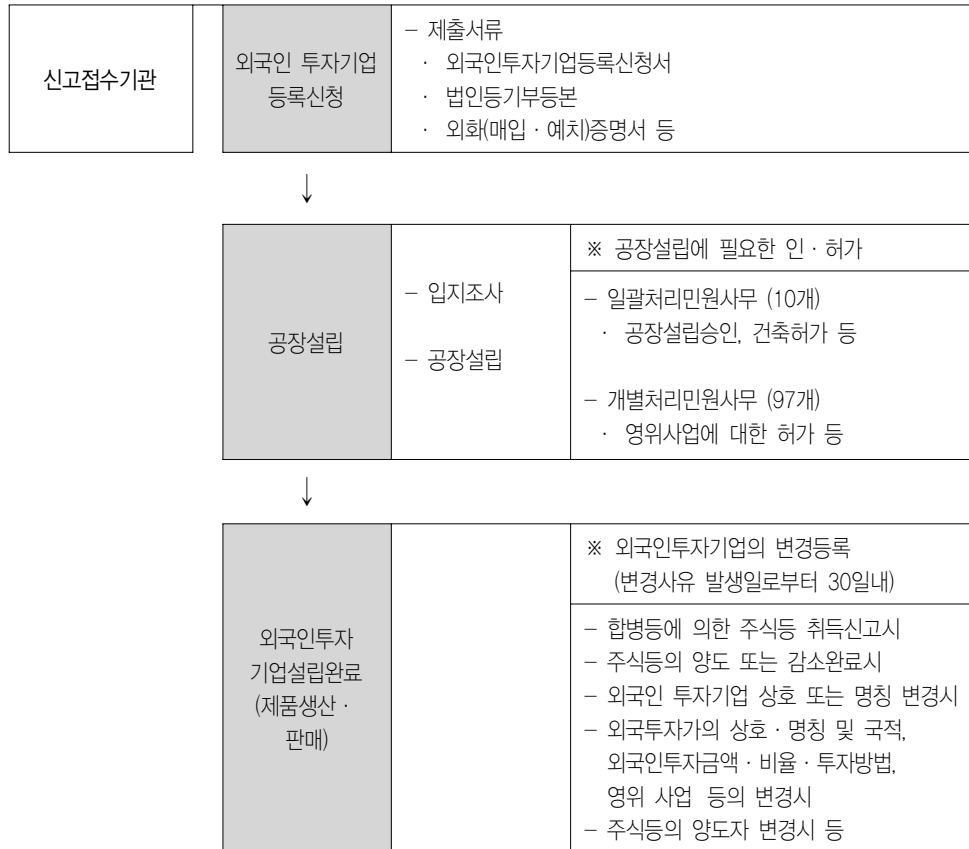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과 비율도 규정하고 있다.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 비율은 원칙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또는 기술의 제공과 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안보에 직결되거나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 통합 공고(2007.2.28)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 28개, 제외업종 72개이다. 일부 농·수·산업, 방송업 등 제한 업종은 일정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투자가 가능하나 국방·경찰, 예술, 노동·종교·사회단체 등 제외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절차는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의 유형으로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살펴보면 우선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 투자가 혹은 그 대리인은 국내 은행 본 지점 또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나 KOTRA 등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다. 신고 즉시 신고 접수 기관은 신고 필증을 교부하므로 신고 후 언제든지 투자자는 외국 자본을 송금 할 수 있다. 자본 송금 이후에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지원을 받아 법인설립과 기업 등록 신청을 하고 공장설립,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을 완료하게 된다.

표 4-1 ▶ 외국인 투자 절차(신주 취득 유형)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기본 법령은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제도를 외국 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외국환 거래법이 있고 조세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조세 특례제한법이 있다. 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에 관한 규정, 외국인 투자 통합 공고 등 다양한 차원의 법령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현황

2003년 출범 이후 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사업을 담당할 해외 디벨로퍼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시작하였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구상 단계에서부터 기획·설계하고 직접 건축하는 형태의 외자유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었고, 그 만큼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최초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개발 사업에 건실한 해외 투자자가 유치되어 활발한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 등 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저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복합 개발을 통한 외자유치가 핵심 취지이니 만큼 초기에는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의 푸둥 신구의 경우도 ‘90년대 개발이 시작된 후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인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도 현재는 출범 10주년이 지난 시점으로 아직 계획면적의 절반가량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본격적인 외투유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13년 기준으로 경자구역(101개 지구) 개발률은 52.5%(53개 지구)이며, 이 중 외투유치가 가능한 개발 완료 지구는 20%(20개)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09년 이후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외투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2 ▶ 경자구역 진행단계별 개발현황(2013. 10. 31)

(단위: km², 개, %)

구분	합계(a)	개발완료	개발 진행중	미개발지(b)	미개발지 비중(b/a, %)
지구수	101	20	33	48	47.5
면적	448	46.4	152.4	249.2	55.6

‘13.9월까지 경자구역의 외투유치 총액은 77.8억불로, 국가 전체 외투유치총액 대비 6.3%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06년에는 전체 외투유치총액의 1.1%에 그쳤다면 ‘09년 6.9% → ‘10년 7.2% → ‘11년 8.5% → ‘12년 15.5% → ‘13.9년 9.2%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형 프로젝트(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7.2억불, 엘오씨지코리아 5억불 등) 유치 결과로 총 25.2억불이라는 사상 최대 외투유치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4-3 ▶ 연도별 경자구역 외자유치 현황(FDI 신고현황)

(단위: 억불)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총계
FDI 금액	1.15	5.83	1.29	3.13	2.29	7.92	9.44	11.63	25.18	9.90	77.76

각 경제자유구역별 외국인투자금액('04~'13.9월 누계)을 살펴보면 인천(49.3억불, 63.5%)이 가장 높으며 부산진해(12.6억불, 16.2%), 광양만권(8.5억불, 11%), 새만금군산(6.2억불, 8%), 대구경북(1.0억불, 1.3%)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4 ▶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FDI 신고현황

(단위: 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총계
인 천	1.0	75.8	65.8	123.2	117.3	523.6	478	553.6	2,069.9	926.0	4,934.2
부 산 진 해	50.6	230.8	42.9	93.4	110.7	49.5	153.1	251.3	220.2	60.1	1,262.6
광 양 만 권	63.6	276.6	20	96.4	1.0	2.6	32.2	234.5	126.6	-	853.5
새만금군산	-	-	-	-	-	216.4	255.3	100.2	50.0	0.2	622.1
황 해	-	-	-	-	-	-	-	-	-	-	-
대 구 경 북	-	-	-	-	-	-	25.0	23.4	51.0	3.7	103.1
합 계	115.2	583.2	128.7	313	229	792.1	943.6	1,163	2,517.7	990.1	7,775.6

*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

각 경제자유구역의 연도별, 지역별 외자유치 도착현황을 살펴보면, '13.9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외국인투자 도착액은 35.7억불로, 국가 전체 외자유치 도착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별 도착액('04~'13.9월 누계)을 살펴보면 인천(22.7억불, 63.5%)이 가장 높으며, 부산진해(8.7억불, 24.4%), 광양만권(3.4억불, 9.5%), 새만금군산(0.3억불, 0.9%), 대구경북(0.6억불, 1.7%)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5 ▶ 지역별 경자구역 FDI 도착현황

(단위: 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총계
인 천	1.0	74.5	10.9	122.6	102.9	475.2	364.8	210.7	551.7	350.8	2,265.1
부 산 진 해	4.1	191.2	110.9	76.1	97.5	64.3	24.4	119.7	136.5	46.0	870.7
광 양 만 권	63.9	24.2	21.8	91.9	0.9	2.6	1.7	4.1	2.0	124.6	337.8
새만금군산	-	-	-	-	-	1.3	9.5	20.5	0.1	-	31.4
황 해	-	-	-	-	-	-	-	-	-	-	-
대 구 경 북	-	-	-	-	-	-	11.7	10.2	30.9	8.6	61.3
합 계	69	289.9	143.6	290.6	201.3	543.4	412.1	365.2	721.2	530.0	3,566.3

*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업종별 외자유치 실적('04~'13.9월 누계)으로는 건설(32.2억불, 41.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 제조(30억불, 38.6%), 관광(8.7억불, 11.1%), 기타(2.9억불, 3.7%), 물류(2.8억불, 3.6%), 교육(0.7억불, 0.9%), 연구소(0.6억불, 0.7%) 순으로 나타난다.

표 4-6 ▶ 업종별 경제자유구역 FDI 신고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제조	개발		서비스업				
		건설	관광	물류	의료	교육	연구소	기타
인 천	1,802.8	2,780.8	64.2	92.2	—	40.1	32	122.2
부 산 진 해	766.7	340.9	12.0	123.0	—	20.0	—	—
광 양 만 권	184.5	100.0	335.0	61.6	—	9.0	—	163.4
새만금군산	167.1	—	455.0	—	—	—	—	—
항 해	—	—	—	—	—	—	—	—
대 구 경 북	78.1	—	—	—	—	—	25	—
합 계	2,999.2	3,221.7	866.2	276.8	—	69.1	57	285.6
비 중	38.6	41.4	11.1	3.6	—	0.9	0.7	3.7

최근 10년간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사업명	추진내용
인천	삼성바이오로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2.25 : 합의각서 체결 ■ '11.04.22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법인 설립 ■ '11.04.28 : 투자협약 체결 ■ '11.05.27 : 가공식 ■ '12.02.28 : 삼성바이오에피스(주) 설립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젠아이텍 합작기업) ■ '12.12월말 : 1단계(생산동&연구동) 운영 개시 - FDI 신고 73.6백만불, 도착 65.87백만불(삼성바이오에피스포함)
	엠코테크놀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2. 27 : 투자의향서 접수 ■ 2012. 5. 4 : 사업계획서 접수 ■ 2012. 5. 11 : 투자심사실무회의 개최(투자승인) ■ 2012. 5. 18 : MOU 체결 ■ 2013. 2. 1 : 투자협약 체결 ■ 2013. 6. 20 : 가공식 개최
	베올리아워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6월 투자의향서 제출 ■ '11. 8월 사업계획서 제출 ■ '11. 10월 MOU체결 ■ '11. 10월 투자심사실무회의 개최 ■ '11. 1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 FDI 신고 9.71백만불, 도착 7.96백만불
부산 · 진해	독일 FAU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분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FAU 부산분교 개교 : '10.5 - 장소 : 부산테크노파크 內 - 생명과학대학원 과정 개설

구분	주요사업명	추진내용
	일본 쓰바키모토 오토모티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10. 12 ■ 준공일 : '11. 6 ■ 가동일 : '11. 10
	쏬덱스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11. 7 ■ 준공일 : '11. 12 ■ 가동일 : '12. 1
	르노삼성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및 가동 중 : '04.
	올리콘발저스 코팅코리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06. 3 ■ 준공일 : '06. 9 ■ 가동일 : '06. 10
	SJ St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06. 5 ■ 준공일 : '06. 9 ■ 가동일 : '06. 11
	에스케이에프 자동차부품(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06. 5 ■ 준공일 : '07. 1 ■ 가동일 : '07. 3
	비스티온인테리어스코 리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06. 11 ■ 준공일 : '07. 5 ■ 가동일 : '07. 10
	(주)와이비에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06. 9 ■ 준공일 : '08. 8 ■ 가동일 : '08. 10
	(주)이엔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06. 11 ■ 준공일 : '07. 1 ■ 가동일 : '07. 2
	한림인텍(주) 부산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 체결 : '07. 4 ■ 준공일 : '07. 11 ■ 가동일 : '09. 4
	포스코CTSTER미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준공, 연300만톤(철강원료) 처리 ■ 포스코51% 미쓰이 49% 299억원투자
광양만 권	SNNC(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준공, 페로니켈 연간15만톤 ■ SMSP51% 포스코49% 3520억원투자 – 2차 투자 3,355억원
	메이아울촌전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준공, '11년 1.6억불 FDI신고 ■ 1호기 최대580mw/일, 2호기 946mw급
대구· 경북	케이엔티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12월 한국법인 KNT(주) 설립등기(자본금 70억원) ■ '11. 12월 투자협약 MOU 체결(기업, 대구시, DGFEZ) ■ '12. 1월 고도기술수반사업 사전확인결정(기획재정부) ■ '12. 3월 부지매매계약(내) 및 입주계약(DGFEZ) 체결 ■ '12. 4월 공사착공 ■ '12. 10월 공사준공(10. 25) ■ '13. 4월 공장 가동 – FDI 신고 16.32백만불, 도착 16.59백만불
	다이셀세이프티 시스템즈코리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7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투자방향서(LOI) 체결 ■ '11. 10월 투자합의서 확정 ■ '11. 10월 일본 본사 경영진(이사회) 투자 최종 승인 ■ '11. 11월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 '12. 7월 기공식 및 공장착공 ■ '13. 12월 공장가동(試製品 생산) – FDI 신고 17.41백만불, 도착 13.23백만불

구분	주요사업명	추진내용
	(주)PND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4월 투자유치 실무협의회 개최 ■ '12. 5월 입지기준 확인 통보 및 토지분양 신청 ■ '12. 8월 일본 본사 경영진(이사회) 한국투자 최종 승인 ■ '12. 9월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 '12. 11월 합작 투자법인 설립 및 토지분양계약 체결 ■ '13. 4월 기공식 및 공장착공 ■ '13. 10월 공장준공 및 사업개시 - FDI 신고 11.41백만불, 도착 11.50백만불
새만금 · 군산	삼양이노캠 설립 합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협약체결 ('09.11) ■ 공장착공 ('10.11) ■ 공장준공 ('12.5) ■ 외국인 투자현황 - FDI 신고 : 10백만달러 ('09.11) - FDI 도착 : 10백만달러 ('09~'11)

* 황해,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해당사항 없음

개발 위주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외투 유치를 위해 '13.7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자구역별 특성화·차별화를 위해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경자구역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외투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외투유치 성과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

인천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새만금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부산진해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휴양	황해	철강소재, 자동차전장부품, IT관련부품소재
광양만권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동해안권	금속·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대구경북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충북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제2절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1. 조세 인센티브 확대

가. 투자유인의 기본전략으로서의 조세 인센티브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의 투자유인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또 비교적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투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쟁국들은 일찍부터 외자유치를 위해 조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감면 폭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최대 선진국이라 불리는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이 12.5%로 EU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며, 두바이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무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도 중요 기업인 경우 최장 15년까지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조세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여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실제로 2006년 싱가포르와 세계적인 Bio기업인 Genetech사와 IT기업인 Varian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였을 때 10년 이상의 조세감면을 제시한 싱가포르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바 있다.

표 4-7 ▶ 주요 국가의 조세 인센티브

구분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두바이 자유무역지대	아일랜드
법인세율	25%	18%	17.5%	25%	0%	12.5%
조세감면	제조·물류·관광업 등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사안에 따라 탄력적 (최장 15년)	-	현재는 별도 감면 없으나, 초기에 15% 우대조치 적용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조세 인센티브 현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입주기업은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개발사업자 및 의료시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영업 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특히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최소 투자 조건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 지역보다 완화되어 있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외투지역은 5,000만 달러이상 투자하여야 하는 감면 대상이 되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1,000만 달러이상 투자하면 되고, 물류업도 외투지역 3,000만 달러에 비해 적은 500만 달러면 가능하다. 관광업 역시 외투지역의 경우 2~3,000만원 투자해야 하는데 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 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3년간 면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받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감면 비율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부과시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하거나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자들은 두 가지 방법 중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표 4-8 ▶ 경제자유구역 조세 인센티브

구분	감면 기간 및 비율
법인·소득세	영업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관광업(1,000만불 이상), 물류업(500만불 이상) 개발사업자(5,000만불 이상), 의료시설(500만불 이상)
관세	자본재 수입 관세 3년간 100%
취득·등록·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감면기간(15년이내) 및 비율 확대 가능
근로소득세	국내 근로소득의 30% 금액 비과세 또는 17% 단일세율 적용

다. 개선추진 현황

개정된 조세 인센티브는 경쟁국과 비교시 차별화되지 못하고, 국내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보다 감면기간과 세목 및 대상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집중 유치하고자 하는 첨단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조세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최장 5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업종에 R&D 센터를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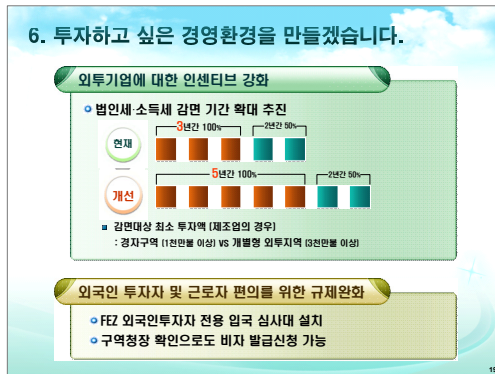


그림 4-2 ▶ 조세인센티브 확대 관련 국강위
보고화면

이후 2008년 5월 23일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경제자유 구역 활성화 방안’에도 조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개선 과제로 보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관련법령을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같은해 12월에 법률을 개정, '09.1.10일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로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다. 관세는 현행과 같이 3년간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외투자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요청, 타당성 검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의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로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4-9 ▶ 조세감면절차 간소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조업 3천만원, 관광업 2천만원, 물류업 1천만원, R&D 2백만원 이상) - 절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 지원 : 7년간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은 외투자지역 지정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

라. 향후 계획

현행 법령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운영실태 및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면밀한 검토와 관계 기관간 협조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10 ▶ 외투자지역 및 경자구역 조세감면 지정절차 비교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 절차	경자구역 7년형 조세감면 적용 절차
① 유치협상(지자체→외국인투자자)	① 경제자유구역 입주(구역청→외국인 투자기업)
↓	
② 투자결정(외국인투자기업→지자체)	
↓	↓
③ 개발계획 수립(지자체)	
↓	
④ 외투자지역 지정요청 (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② 7년형 조세감면 신청 (외국인 투자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
⑤ 외투자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산업통상자원부)	③ 투자금액, 엄중 등 사실확인(산업통상자원부)
↓	↓
⑥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⑦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④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⑧ 지정고시(지방자치단체)	

2. 각종 부담금 면제혜택 확대

가. 부담금 면제 혜택 확대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부담 경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은 총 12종으로 각종 부담금의 부과액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4-11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부담금	감면 내용 및 근거
농지보전부담금 (구 농지조성비)	- 농지법 제38조, 50%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 50%감면
대체초지 조성비	- 초지법 제23조, 100%감면
기반시설치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8조, 100%감면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13조 - 국가·지자체 : 100%감면 - 공공기관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 50%감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1조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관련 독자적 규정 없음
생태계보전 협력금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면규정 없음
교통유발 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감면 가능(인천 : 면제)
공유수면 점·사용료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 100%감면
환경개선 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면규정 없음
학교용지 부담금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면규정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례로 감면 가능
수도시설비 원인자 부담금	- 공영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자체가 사전협의하여 개발사업자가 사업비에 포함하여 부담

나. 개선 추진 현황

경제자유구역은 본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지와 산지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는 면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지 보전 부담금과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의 감면을 시행한 후, 이 중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의 적용시한이 일몰제 대상으로 됨에 따라 2012년 11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제52조관련)를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전용의 경우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50%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표 4-12 ▶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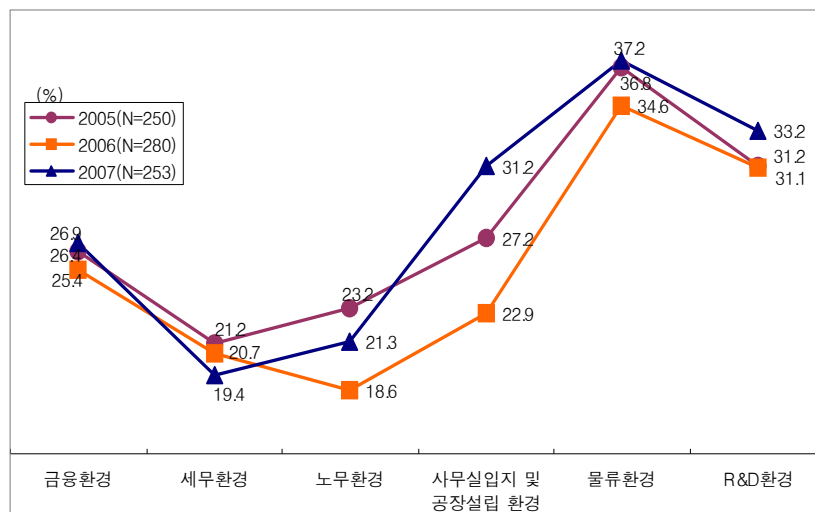
구분	개념 및 산식
농지보전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과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 ■ 전용 농지면적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부과 ■ 산지전용허가면적 × 조림비와 식배후 10년까지의 육림비+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평가액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한 금액

다. 향후 계획

향후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의 경우 감면대상과 비율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3. 고용 및 노사환경 개선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고임금 구조로 전환이 되었고, 강성 노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은 고임금과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Invest Korea의 2007년 경영 환경 애로 조사에서도 노무 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자료 : 외국인투자 기업경영환경 애로조사, Invest Korea, 2007

그림 4-3 ▶ 경영환경 분야별 만족도 평가

노무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21.3%) 대비 부정적인 평가(50.2%)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높은 임금 수준,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 근로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과 연차 유급휴가, 보호 대상자 의무채용 비율도 불만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종 고용 및 노사 관련 특례를 두고 있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의무고용을 배제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일부 완화하였다.

4. 기반시설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용수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재정지원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는 지원되지 않던 지방도, 공동구 등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950억원의 국비를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신규 2개 지역의 수요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2.4% 증액된 1,2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 및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1. 교육·연구기관 유치

가. 교육·연구기관 유치 현황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핵심요건인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설립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는 IT·BT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산업과 국제학술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하였고, '08.12월 뉴욕주립대 협약체결을 선두로 해외 우수 대학의 분교를 10여개 유치하여 10,000여명 규모의 공동캠퍼스를 건립하는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1단계('09년~'14년)가 마무리되고 있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는 '12.3월 뉴욕주립대가 처음으로 개교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학부를 추가 개교하여 3:1 높은 경쟁률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조지메이슨대는 '13.5월에 교육부 설립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벨기에 겐트대와 유타대도 '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 설립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모스크바국립발레아카데미, 조지아 주립대 등과 분교 설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유초중등 자녀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명문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10.9월 개교하였고, '11.9월 청라 지구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도 개교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교육기관 이외에도 외국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08년부터 유타-인하 DDS 연구소, JCB 공동생물과학연구소 개소 이후, '10년에는 GE 헬스케어 IT센터와 CEMT 연구소가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13.4월에 CISCO R&D센터가 개소 예정으로 현재 총 5개의 외국연구기관이 유치·운영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독일 명문대학인 FAU(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11.3월 독일 FAU 부산캠퍼스(대학원)가 개교하여 운영중이다. 독일 FAU 부산캠퍼스는 석·박사 과정의 화학공학 분야 7개 전공을 개설하여 국내외 우수 학생들을 모집 중이며, 학생들은 Siemens, Audi, Bayer, Bmw 등 독일 기업과의 산학연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졸업 후에는 독일 기업의 취업 기회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의 전략적 유치 업종과 직결되는 특성화 대학으로 해운물류분야 세계적 명문대학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유치하여 '08.3월 개교하였으며, 현재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서는 '10.5월에 프랑스 Dassault Systems의 분원으로서 Dassault Systems Korea R&D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고, 미국 명문학교인 리아카데미(Lee Academy)를 유치하여 '10.8월 유초중고 과정의 대구국제학교를 개교하였다.

나.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개발사업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및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감면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정 미흡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어렵게 하고 또한 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을 추진하여 현재 기재부의 '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09년부터 '11년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학생정원의 30%)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2011.12.21)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향후 계획

인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에 유치한 벨기에 겐트대, 유타대 등 외국대학이 차질 없이 설립승인을 받아 개교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 외 유치 협의 중인 모스크바국립발레아카데미 등 우수 대학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이후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상설포럼 구성·운영, 인턴십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경자구역 내 국내외 입주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별 주요산업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 유치 전략 방안을 수립하여, 동북아 교육·연구 Hub로서 경제자유구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

가.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주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진찰시 의사와 환자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편리하게 상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임의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진과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편한데다 일부 대규모 병원에서만 외국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의 건강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개방형병원 형태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3 ▶ 외국의료기관 제도 개요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자본(50% 이상)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설립 허용
- 일정기준 충족 시 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의 면허 인정
- 온천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 가능

나. 추진 경과

국제개방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의 NYP(NewYork Presbyterian)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06.4)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미비 등으로 배타적 협상권을 취소(08.9)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병원에게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세계수준의 미 존슨홉킨스 병원과 MOU를 체결(09.11)하고 분원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이 또한 결렬

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주체와 운영주체를 분리하기로 하고, 외국의료기관 투자제안 공모를 통해 투자주체로 ISH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1.3)하여 MOU를 체결(‘11.5)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개설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 NYP(New York Presbyterian) 병원

2005년 11월 (구)재경부는 NYP병원을 인천 송도 외국병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년 4월에는 NYP병원·Cornell의대·KHM(이하 “미국측 병원 당사자”)과 MOU를 체결하였다.

MOU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신도시내 외국병원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구) 재경부와 미국측 병원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확인하였다. 둘째, 미국측 병원 당사자는 MOU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재경부가 제시한 외국병원 프로젝트 개발사업자 지정조건에 적합한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명시하였다. 셋째, NYP병원과 Cornell의대가 해외 의료진 총원계획을 구체화하되, 적어도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을 Cornell의대 교수급(Faculty)으로 총원하고 최소 2년 동안 송도 외국 병원에 근무하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구) 재경부는 미국측 병원 당사자에게 외국 병원의 건립, 소유, 운영에 대하여 협상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고 MOU 체결 이후 1년간은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등 당사자간 송도 외국병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지원과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구)재경부는 미국측 병원 당사자의 요청으로 최종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었으며, 2007년 4월에 미국측 병원 당사자가 구재경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동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한국 정부가 미국측 병원 당사자에게 3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외국인 투자액 1억불 이상 등 (구)재경부가 요구했던 조건과는 다른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를 포함해서 Financing 및 Medical Plan을 상세하게 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구) 재경부는 미국측 병원 당사자에게 수차례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내외 투자자 모집과 KHM(미국소재 Agent)의 신임회장 영입 기간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미루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측 병원 당사자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2007년 말까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던 외국의료 기관 특별법(안) “이 미 제정 되어 외국인 투자자 모집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외국병원 유치 사업의 부진 사유가 한국정부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돌렸다.

2008년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NYP병원 유치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고, 우리부는 미국측 병원 당사자와 3월 25일 면담과정에서 4월 30일까지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MOU상의 배타적협상권을 철회할 것임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미국측 병원 당사자는 2008년 5월에 우리부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수정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였다.

동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미국측 병원 당사자는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자(Orient Property Group, 홍콩소재 부동산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일부 진전사항이 있었으나 구재경부 시절부터 요구해 왔던 NYP병원의 브랜드 사용 허용 등을 담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서(Binding Term Sheet)를 제출하지 않았다. 2008년 6월 우리부는 미국측 병원 당사자에게 Binding Term Sheet을 9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촉구하였으며, 동 기한까지 미제출시 MOU상의 배타적협상권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별도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2008년 7월 24일 미국측 병원 당사자와 서명·교환하였다. 미국측 병원 당사자는 2008년 9월 16일까지 우리부가 요구했던 Binding Term Sheet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부는 KHM과 NYP병원이 MOU 체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브랜드 사용료” 지급 문제 등으로 상호간 Binding Term Sheet을 체결하지 못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추후 송도 외국병원 유치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판단하였다. 또한, 그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존스홉킨스 등 다른 병원의 유치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미국측 병원 당사자에게 부여한 MOU상의 배타적협상권 조항이 협상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2008년 7월 24일 체결한 별도합의서를 근거로 미국측 병원 당사자에게 그간 여러 차례의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을 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2008년 9월 23일자로 배타적협상권을 철회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NYP 유치협상은 결렬되었다.

□ 존스홉킨스병원(JHI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는 소관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협의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 촉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NYP병원 때와는 달리 JHI 유치 협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주도로 진행되었다.

IFEZ는 2007년 10월 20일 JHI 측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사업을 제안하고, 2008년 3월 28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2008년 6월에 인천시장이 VIP께 직접 존스홉킨스 유치 경과와 인천시 주관으로 ‘존스홉킨스병원’의 Brand와 ‘서울대병원’의 우수 인력을 결합한 송도국제병원(가칭) 설립 추진⁵⁾계획을 보고 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투자의향서(Exepration of Interest)를 접수하고, 4월에서 8월에 걸쳐 맥킨지에 용역 의뢰하여 병원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1월에 인천시와 존스홉킨스병원(JHI)·서울대병원은 송도국제병원(가칭) 운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4) JHI (Johns Hopkins Medicine International) : 병원을 관장하는 Johns Hopkins Health System과 존스홉킨스대학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대외사업협력기관

5) 300~500병상 규모, 2013년 개원 목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의 역할을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가칭) 설립에 필요한 제반 자금 등을 총괄 기획 조달하고 존스홉킨스 및 서울대병원은 병원 운영을 전담하도록 이원화하고,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가칭) 개원일로부터 5년 동안 IFEZ 내에 본 병원 이외에 다른 외국의료기관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4개월 이내에 양해각서 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본 MOU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JH 측은 외국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개설요건·허가절차 등 국내 제도 미비를 이유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계속 주저하였으며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⁶⁾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업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인천시도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양해각서에 대한 공식 종료 행위 없이 사실상 MOU가 결렬(10.5월) 되었다.

□ ISH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JH와의 MOU가 결렬됨에 따라, IFEZ는 투자주체와 운영주체를 분리하기로 하고 2010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의료기관 투자안내서를 제공하고 2건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외국의료기관 투자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5건의 투자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3개의 컨소시엄(다이와증권, 오릭스, 스탠다드차터스)을 대상으로 신용조사, 투자자 구성, 재무능력 및 병원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외국의료기관 투자주체로 다이와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1.3)하고, 2011년 5월 ISH 컨소시엄⁷⁾ 간 우선협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IFEZ와 ISH 컨소시엄은 JH, NYP, 하버드 파트너스 등을 대상으로 해외위탁병원 선정을 추진하는 등 2016년 병원 개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대한 국내 반대여론 등⁸⁾에 부딪혀 현재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 된 상태이다.

6) 황우여 의원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7) IS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 국내 기업(40%) 으로 구성된 글로벌 컨소시엄, 외국의료기관의 투자주체가 되며, 병원운영(진료부문)을 위해 향후 국내외 병원을 운영주체로 별도로 선정

8) '12.6월 이후 인천시상은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기 추진 중이던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대신 비영리 국내병원 설립으로 입장 선회

표 4-14 ▶ ISH 컨소시엄 송도국제병원 투자계획

- 암, 심장, 뇌, 척추, 관절 등 5대 중증질환*에 특화된 국제적 수준의 3차 종합병원으로 총 32개 진료과로 구성
– ISH가 투자, 국내병원과 글로벌 수준의 해외병원이 공동운영
- '12년 착공, 1단계로 2016년까지 약 3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상황을 보아 2020년까지 600병상까지 늘린다는 계획
– 부지 24천평, 총사업비 6,000억원 내외
- 인근에 헬스케어센터, 바이오 산업 관련 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 수준의 메디컬단지로 육성할 계획

다.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 이전에는 외국인 전문병원 및 외국인 진료소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었으며, 의료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2005년 외국의료기관 이용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된 결과 수익창출 곤란으로 외국병원 유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내국인에게도 외국의료기관 이용을 허용('05.1.27)하고, 2007년에는 당초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외국인이 투자한 상법상 법인까지 허용('07.12.7)하고, 외국의료기관이 보양온천, 목욕장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본조를 신설('08.7.24)하는 등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또한 2007년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07.10)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원입법(한, 황우여)으로 발의 되어 국회에 제출('08.11)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상정('09.2.20)되었으나 반대여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어 제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약국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외국 의료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기준 완화, 환자 유치 및 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필수요건인 외국의료기관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황우여의원 발의안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한, 이명규, '10.9.7 ; 민, 손승미, '11.8.16)으로 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반대여론으로 장기간 지연되다 제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처럼 법률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12.4.20)하여 외국법률에 의한 해외병원의 운영참여, 외국면허소지 의사 고용비율 등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복지부령 위임근거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12.10.29)하였다.

새로 제·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외국의료기관 허가 신청 전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규정하여 허가 전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충족여부 확인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 둘째,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의료기관의 장과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원(7인 이상)의 1/20 이상을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하게 하고,
- 셋째, 외국인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면허 소지 외국인의사 확보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전체 의사·치과의사의 10% 이상을 외국면허소지자로 하며, 외국인 환자와 직접 대면 등 외국면허자 배치가 필요한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외국면허자를 1인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라. 향후 계획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의 유망분야인 BT 등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은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정주 외국인의 생활여건 조성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수요 및 바이오헬스 산업과의 연계 등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천 송도의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외국인 투자 활성화,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의료서비스 선진화 등을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복합의료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 및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조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조정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3. 구역내 도시경관 정비

경제자유구역은 싱가포르, 홍콩, 상해 등 다른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하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살고 싶은 도시’로 디자인하고 있다. 구역내 도시경관 정비사업은 획일적인 아파트 외형, 무질서한 간판과 가로 시설물, 훼손되어가는 자연 환경, 난립되고 있는 소형 건축물 등에 대한 기존 경관의 문제인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정체성을 살려 국제도시로서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경우 워터프론트 계획을 통해 남·북 수로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도시와 바다·호수·건축물이 조화된 차별화된 고품격 친수 국제도시로 개발하고, 건축물은 국제업무단지를 핵심으로 랜드마크 건물과 스카이라인을 적절히 조화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도 중앙공원 앞의 센트럴 파크는 한국의 전통문양인 바구니와 인천 앞바다의 파도를 연상시키는 파도 모양으로 지어진다.



그림 4-6 ▶ 인천 송도지구(워터프론트 계획) 조감도

또한, 부산진해·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도 자체 개발사업지구별 경관관리계획을 토대로 항만 등 물류기능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망형 경관요소, 자연형 경관요소, 도시형 경관요소 등의 다양한 도시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4-7 ▶ 부산진해 웅동지구 조감도



그림 4-8 ▶ 광양만권 광양지구 서측 조감도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FREE ECONOMIC ZONES
10 YEARS HISTORY

제5장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국가간 개방과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미 FTA가 타결되고 한-EU, 한-ASEAN FTA 등 FTA가 확대되면서 시장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주춤하던 외국인투자도 다시 활력을 되찾으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인 입지조건, 조선과 반도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근면·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인적자원 등 장점을 백분 활용하게 해줄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0년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발은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학교, 병원을 유치하여 진정으로 자유로운 특별구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우리나라 미래의 예고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모습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 볼 수 있다. 각종 물자와 서비스, 사람, 문화가 자유롭게 통용되는 곳,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곳, 우수한 교육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곳, 더불어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 도시, 이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이며, 전 세계에 자랑할 우리나라 미래의 예고편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충북경제자유구역



2003~2013
경제자유구역
10년사

FREE ECONOMIC ZONES
10 YEARS HISTORY

부부

1.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23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송도 국제업무단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3공구
- 면 적 : 5.77km²
- 사업비 : 약 24조원
- 사업기간 : 2003 ~ 2014
- 계획인구 : 64,335명 (23,710세대)
- 개발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 주요시설 :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아트센터,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국제병원, 센트럴공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쇼핑몰, 문화센터 등

나. 개발내용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인천광역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의하여 송도지구 내 국제비즈니스를 위한 국제전시교류시설 및 지원시설, 녹지를 기반으로한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국내외앵커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이 2010년 입주를 시작 하여, 이어 롯데쇼핑타운,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체결, 포스코 계열사(포스코 엔지니어링, 대우 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기업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가. 사업개요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 위 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7(7공구)
- 사업기간 : 2008 ~ 2014
- 사업규모 : 389,300㎡(캠퍼스부지 295,000㎡,수익용부지 94,300㎡)
- 캠퍼스 내 외국대학 약 10개교 유치를 통해 약 10,000명 학생모집 계획
- 사 업 비 : 1조 700억원(1단계 : 5,040억원, 2단계 : 5,660억원)
- ※ 자원 : 국비 25%, 시비 25%, 민간 50% 분담

■ 외국대학 유치내용

- 명문외국대학들이 향후 입주할 예정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현재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대학 분교인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컴퓨터과학 및 기술경영 대학원과정을 2012. 3월부터 운영 중이며, 2014. 3월부터는 학부과정(기술경영학과)을 개설한다. 전체 과정은 본교인 뉴욕주립대 스톤브룩(SUNY Stony Brook)에서 직접 파견된 교수진에 의해 본교와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뉴욕주립대에 이어 현재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의 명문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2,000명을 수용하는 1단계 1공구(강의연구동 및 기숙사 등)와 외국대학 공동사용시설인 1단계 2공구(중앙도서관, 체육관, 강당 등)를 완공하였으며, 1단계 3공구를 2013년도에 발주할 계획에 있다.



③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

가. 사업개요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 위 치 : 송도 2·4공구
- 사업기간 : 2004 ~ 2014
- 면 적 : 2.40km²(산업시설 : 0.49km²)
- 계획인구 : 12,200명(4,210세대)

나. 개발내용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는 테크노밸리와 송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단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개발컨셉으로 인천광역시에 의해 2004년부터 조성되어, 현재 IBM, 만도-Hella, 휴니드-Boeing, SBS-Orix, Gudel, 교보데이터센터, A-Machine, Fibox, 일진반도체, 제이엠테크노, 경신, 세미크론, 리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 아시아네IDT, CJ시스템즈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해 원활히 가동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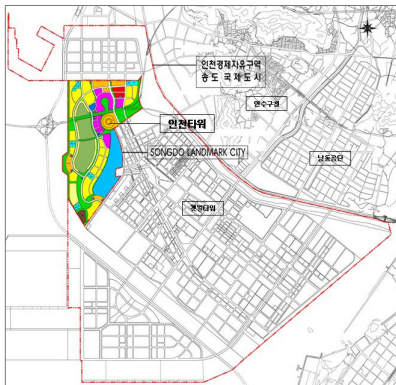
4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가. 사업개요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 사업기간 : 2008 ~ 2018
- 위 치 : 송도 6,8공구 일원
- 면 적 : 5.83km²
- 사 업 비 : 18,9조원
- 주요시설 : 인천타워(151층), 호수공원, 체육시설, 주거 및 상업·업무시설, 기반시설 등

나. 개발내용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여 문화, 관광, 상업, 업무, 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한 포트만 컨소시엄(Portman Holdings, 삼성물산, 현대건설, SYM의 합작법인)에 의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랜드마크시티로 조성될 송도6·8공구의 공유수 면매립은 2012년 6월 준공되었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⑤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신세계 외투법인
- 사업기간 : 2012 ~ 2016
- 위 치 : 청라국제도시 BL2
- 면 적 : 165,000㎡(5만평)
- 총사업비 : 3,500억원
- 주요시설 : 위락, 쇼핑, 문화, 레저공간을 갖춘 교외형 복합쇼핑몰

나. 사업내용

(주)신세계와 2012년 12월 17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자본을 포함하여 총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65,000㎡(5만평) 부지에 쇼핑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문화, 레저 등의 시설을 갖춘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2016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정체되어 있던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투자 유치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6〕 인천대교 건설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민자 인천대교(주), 연결도로 한국도로공사
- 위 치 :
- 사업규모 : L = 21.38km(민자 12.34km, 연결도로 9.04km, 요금소)
- 사업기간 : 2004. 10 ~ 2009. 10(운영 30년)
- 총사업비 : 24,358억원(민자 15,914억원, 연결도로 등 8,444억원)

나. 개발내용

인천대교는 인천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2.34km(6차로)로 세계에서 3번째로 긴 사장교이다. 2009년 10월 19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기반시설인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서울 남부 및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어 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수도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되었고,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7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미단시티개발(주), 인천도시공사 공동
- 위 치 : 인천 중구 운북동 89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6 ~ 2017 (2014년까지 앵커시설 완료)
- 규 모 : 2,699,945.5m²(약 82만평)
- 총사업비 : 4조 5천억원



나. 사업내용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영종도 중국 운북동 897번지 일대 82만평 부지에 주거, 레저, 비즈니스, 문화시설, 외국인 학교, 다국적 문화빌리지 등 국제적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6년 국제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국내 첫 사례로, 외국기업인 홍콩 리포그룹과 국내 도시공사 등 11개사가 합작하여 2007년 3월 미단시티개발(주)를 설립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기반시설은 2011년 12월 완료하였으며 세부 앵커사업별로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카지노업계 1위 기업인 시저스(Caesars) 및 리포(Lippo) 컨소시엄과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카지노 사업은 미단시티내 55만평 중 3만2천평 부지에 VIP호텔, 비즈니스호텔, 리조트 콘도, 카지노 (외국인 전용), 쇼핑몰, 공연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사업 사전심사 신청서가 제출되어 심사결과에 따라 하반기중 복합리조트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영종지역의 콘도 등 투자상품 구매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12월 중국의 유력기업과 부동산투자 이민제 관련 MOU가 체결되어 최근 높아가는 한류 붐을 타고 중국자본의 유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8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주체 : 하나금융그룹
-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서구 경서동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 총사업비 : 약7,300억원
- 주요내용 : 하나금융그룹의 본사, 금융연구소, 통합IT센터, 인재개발원 등
 각 계열사의 금융기능 집적화

나. 사업내용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하나금융타운은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써 그룹 Head Quarter, 금융 R&D센터, 금융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수시설, IT센터 및 그룹 콜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들이 통합 설치 된다. 또한 이러한 핵심시설 이외에도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설치, 그룹 임직원 가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9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안, 진해시 용원동 및 안골동, 웅동만, 제덕만 일원
- 사업기간 : 1995 ~ 2020
- 총사업비 : 13조 3,881억원(정부 6조 4,728억원, 민자 6조9,153억원)
- 사업내용 : 접안시설 45선석, 항만 및 배후부지 2,028천평

나. 개발내용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 물류중심 항만의 개발, 국제 컨테이너 주항로상의 중심항(Hub-Port)위상 확보,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의 국제 환적항 기능 제고,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 해소로 국가 경쟁력 제고,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종합물류 정보 거점공간 조성

다. 추진실태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 중심이 될수 있는 Hub-Port 개발을 위해 1995년 신항개발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989년 7월 「부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996년 항만기본계획이 고시 되었으며 1997년 10월 방파제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12월 준공하였다. 2003년 11월 북측 컨테이너부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북측컨테이너부두 3선석을 준공하였다.

또한 중국 상하이 양산항 개항 및 일본의 중추항만계획 추진 등 동북아 항만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1년 4개월을 앞당겨 2006년 1월 3선석을 조기 개장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북측 컨테이너부두 3선석을 추가 준공하였다.

2009년 3월 북측 2-1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준공하였고, 5월에는 북측 1-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 8월에는 동측 다목적부두 1선석을 준공하였다. 2010년 2월에 남측 2-2단계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 1월에 남측 2-3단계 컨테이너부두를 운영 실시해 오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총 23선석(컨테이너 부두 21선석, 일반부두 2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은 924만 TEU로써 12년도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55.4%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 신항은 2020년까지 총 45선석을 갖추게 될 것이며, 연간 1,584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함으로써 세계 5위인 부산항의 물동량의 7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 신항 배후단지 개발

가. 신항북측배후부지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부산신항만(주) → 부산도시공사 수탁시행)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신항북측)
- 개발기간 : 2000 ~ 2012
- 사 업 비 : 5,476억원(용지비 86, 조성비 3,255, 기타비용 2,135)
- 규 모 : 3,083천m²(934천평)
- 주요 개발사업 : 신항만 기능 지원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도시 건설

2) 개발내용

신항 북측배후부지는 동북아 비즈니스 해양물류중심 거점기지를 구축하여 신항 중심의 물류·유통·지원시설을 중점 육성하고 국제업무, 해사기능을 지원하며, 신항종사자를 위한 상업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나. 신항남측배후부지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추후지정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일원(신항남측)
- 개발기간 : 2016 ~ 2020
- 사 업 비 : 6,777억원(조성비 5,949, 기타비용 828)
- 규 모 : 1,490천m²(451천평)
- 주요 개발사업 : 신항만 기능 지원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유통단지 등 배후지원용지 건설

2) 개발내용

신항 남측배후부지는 동북아 중심항만(Mega Hub Port)과 물류거점항만 건설 따른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유통단지 등 배후 지원용지 안정적 공급으로 선진 해양도시로 도약을 위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기여

다. 추진실태

부산신항만은 동북아 물류거점의 핵심항만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동북아 중심 물류허브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여건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는 곳이다.

2001년 부산신항 북측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신항 물류부지에서 제조 및 가공이 가능하도록 2004년 12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06년 3월에 물류부지(1-1공구) 89천㎡가 완공되어 임대 완료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물류부지(1-2공구) 550천㎡ 준공, 2008년 5월에 물류부지(1-2) 88천㎡를 준공하는 등 1공구 727천㎡를 준공하였으며, 2009년 7월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12월에 배후부지 전체(주거, 상업용지 포함)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음.

남측 배후부지는 2003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2005년 12월에 남측 컨테이너부두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부산신항 항만배후부지로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6-93호)되었고, 2011년 11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5월에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립사업이 승인(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 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16호)되었다.

또한 남측 배후 부지는 물류용지이외에도 가공포장 용지, 유류공급기지를 배치하였고 항만화물의 처리를 위한 기본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 및 공원·녹지 등도 계획하였다. 북측 배후부지는 2014년 2월까지 전체사업(3,084천㎡)을 완공할 계획이며, 남측 배후부지는 2020년까지 완공(1,490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11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부산과학산단), 부산광역시(신호지방산단), 부산도시공사(미음지구)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부산과학산단), 신호동(신호지방산단), 녹산동(구광, 미음, 범방) 일원
- 개발기간 : 1992 ~ 2007(부산과학산단), 1993~2007(신호산단), 2008 ~2013(미음지구)
- 총사업비 : 2,350억원(부산과학산단), 4,591억원(신호산단), 10,687억원(미음지구)
- 계획시설 : 조선·자동차·기계부품 관련 첨단산업 클러스터

나. 개발내용

- 첨단생산시설을 위한 산업단지, 지식기반 기술집약적 산업의 자립체계 구축 및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및 외국인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추진실태

부산, 울산, 경남을 포괄하는 동남경제권은 기계·자동차·조선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로서 신호산단과 부산과학산단, 미음지구를 중심으로 조선·자동차·기계부품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신호산단은 2000년 3월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07년 1월 전체사업 준공에 따라 르노-삼성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제조, 금속성형기계제조 등 4개 외투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이 자동차·조선·기계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부산과학산단은 1991년 12월에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지정(부고제370호)되어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2005년 11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활기를 띄게 되었다. 2008년 12월 준공되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관련 기업 172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298천㎡)에는 12개 외투기업이 입주계약 완료(278,158㎡)하였다.

미음지구는 부산시의 현안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다. 산업시설 확보를 위하여 건교부 고시로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하고 2005년 8월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개발 방향 심의 후 2007년 4월 문화재지표조사 심의를 득하여 2007년 5월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2008년 2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이다.



12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가.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개발기간 : 2003 ~ 2017
- 사업규모 : 6,405km²(1단계 4,483km², 2단계 1,922km²)
- 총사업비 : 3.2조원(1단계 2.1조원, LH 3.1조원, 국·시비 0.1조원)
- 수용인구 : 70,600명(26,660호)(1단계-56,642명, 20,229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요 개발사업 : 국제업무시설, 외국 의료·교육 및 컨벤션센터, 수변도시 등 동북아 중심 국제업무 신도시조성

나. 개발내용

명지지구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수변도시를 제공할 동북아중심 국제업무 신도시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외국 의료 및 학교, R&D 등 해외업무종사자, 외국인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 국제신도시로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경제자유구역 조기 정착을 도모코자 함

다. 추진실태

명지지구는 동북아 국제업무 및 해사중심 국제 업무신도시로 계획하였다. 국제업무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건교부 고시로 2005년 1월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하고 2005년 8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 방향 심의 후 2007년 6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2008년 2월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 업무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지동 일원 640만m²(1단계 448만m², 2단계 192만m²) 부지에 3조 2,456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5년까지 1단계 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017년까지 2단계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명지지구는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가 지구 양옆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중추 업무 기능을 수행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외국대학 및 병원 등을 유치하여 외국인의 주거·의료·여가 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외국 투자자의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0년도부터 보상 및 부지조성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2011년도부터 명지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

부산발전연구원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 주 1회 T/F회의를 통해 개발 및 투자유치 방안 검토·제시 등 노력한 결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년말 기준 1단계 조성사업이 약 4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친수 구역으로 지정고시('12.12.14)된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과의 연계 개발방안과 더불어 하단~명지간 도시 철도 등 기반시설 조기 건설을 위해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중에 있다.

투자유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서부지원 유치노력에 힘입어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1단계 지역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를 확정(부산지방법청청 서부지청 포함)하였으며, 71천㎡ 부지에 명지 법조타운이 조성 되어 2017년 3월 개원 예정으로서 서부산권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아울러 명지 국제업무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 지역에 대해 2009년 5월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2단계(예비지) 지역에 대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조정 가능지로 승인됨에 따라 1·2단계 통합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1. 10월 2단계(예비지) 지역 GB해제 및 1·2단계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더불어 '12년 9월 2단계(예비지) 지역 수요조사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 하였고, '13년도 2단계 GB해제 및 1·2단계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을 가속화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13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및 물류부지 개발

가.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 개발기간 : 2003 ~ 2018
- 사업규모 : 6,448천㎡(여가·휴양 2,258천㎡, 물류 4,190천㎡)
- 총사업비 : 18,404억원(공사비 16,845, 기타 1,559)
-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여가·휴양), 해양수산부(물류)
- 주요 개발사업 : 신항만 물류·유통시설 확충, 문화·여가·휴양 복합단지

나. 개발내용

웅동지구는 신항의 부족한 물류와 유통기능을 지원하고, 구역 내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여가 및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퍼블릭 골프장, 호텔, 병원, 학교 등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구역 경쟁력 강화

다. 추진실태

웅동지구는 세계적 물류·유통시설 구축 및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중심으로 한 여가·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6년 12월 국토해양부 고시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어 2008년 1월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와 경남도간 준설토 투기장 매입 공동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6,370천㎡ 토지를 신규 등록하였으며, 2009년 6월에 항만배후 단지 1단계(2,487천㎡)사업을 착공하였고, 2012년 4월 항만배후단지 1,015천㎡를 준공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율 85%로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여가·휴양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외국인 투자기업(주)진해오션 리조트를 설립하여 웅동지구 여가·휴양부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며, 2011년 4월,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MOU를 체결하여 구역내 최초로 유치원, 초·중·고(k-12) 교육과정의 외국인이 직접 투자(2천만불)하는 창원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2012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2,258천㎡ 부지에 3,46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골프장과 리조트 빌리지, 스포츠파크, 호텔과 병원, 외국인 학교 유치 등 세계적인 관광허브를 향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4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신항만(Ⅲ-3부두)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길동, 도이동 일원
- 사업기간 : 1987 ~ 2020
- 총사업비 : 4조 7,977억원
- 사업규모 : 25선석(5만톤급 20, 2만톤급 5) * 연간 885만 TEU 처리가능

나. 개발내용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유럽,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기간항로의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동북아 중심항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추진실태

1995년 4월 광양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1997년 12월 1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준공하였다. 이후 2001년과 2004년, 2007년에 잇따라 컨테이너부두 4선석씩이 준공되며, 수출입 전진기지로 우뚝서게 되었다.

특히, 철재, 자동차 등 광양만권 인근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여러 종류의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부두로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 말 현재는 추가적으로 Ⅲ-2단계 4선석 하부 준공을 마무리 하였고, 앞으로 2020년까지 Ⅲ-3단계 5선석이 준공되면 컨테이너 부두 25선석으로 연간 885만TEU를 처리하는 국가항만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5만톤급 12선석과 2만톤급 4선석의 총16선석이 준공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꾸준한 물동량 증가추세로 2010년 처음으로 210만 TEU를 넘어선 이후 2012년말 현재는 214만TEU를 처리하며 부산항에 이은 국내 2위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15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가. 동측배후단지(1단계)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광양시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일원
- 사업기간 : 2003 ~ 2008
- 총사업비 : 3,794억원
- 사업규모 : 2,54km²(1단계 0.40, 2단계 1.22, 3단계 0.33, 항만관련주비 0.59)

2) 개발내용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유통, 가공, 포장, 무역, 전시 등 항만 복합물류 기능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외 물류 및 제조업체의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 국제물류 중심지로 개발을 목표로 육성하고 있다.

나. 서측배후단지(2단계)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일원
- 사업기간 : 2007 ~ 2012
- 총사업비 : 3,104억원
- 사업규모 : 1.94km²

2) 개발내용

서측배후단지 1.94km²는 동측배후단지와 더불어 첨단제품의 가공·조립시설과 국제전시장, 비즈니스파크, 국내외 기업 사무실 등 국제적인 종합물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다. 추진실태

광양항은 부두 후면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4.48km²의 배후지 중 동측 2.54km²가 2008년까지 1차적으로 개발되었고, 2012년 6월에는 서측 1.94km²가 완공되었다.

동측 배후단지는 2003년 12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4년 12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5월 1단계 0.40km²가 준공되어 임대 완료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2·3단계 1.55km²를 준공하는 등 전체 1.95km²가 준공되어 31개 업체 입주해 있다. 서측 배후단지는 2011년 11월 1공구 1.08km²가 준공되었고, 2012년 6월에는 2공구 0.86km²가 준공되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물류,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게 장기 임대해 조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16 신대배후단지 개발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순천에코밸리(주)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 사업기간 : 2006 ~ 2013
- 총사업비 : 5,600억원(공사비 2,795, 보상비 1,818, 기타 987)
- 사업규모 : 2,900천㎡(주택 664, 상업·업무 102, 산업 19, 공공 2,115)
- 기 능 : 교육, 의료, 주거, 레저(골프장 18홀)

나. 개발내용

산단의 생산기능을 지원하게 될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 조망이 가능한 수변 경관축으로 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생태회랑을 조성하고, 교육·의료기관이 들어서는 등 입주기업 종사자와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마련해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다. 추진실태

신대배후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총 사업비 5,600억원을 투입해 2,907km²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 11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다. 2008년 3월 착공해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숲속길 건강생태회랑은 폭 30m, 연장 6km에 달하며, 건강달리기길, 자전거길, 인라인 스케이트길을 갖추고 있다. 전체 토지분양이 순조롭고, 주택건설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인 배후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 울춘 제1 일반산업단지 개발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중앙부처(해수부 등)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울춘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해면 일원
- 사업기간 : 1994년 ~ 2015년
- 총사업비 : 1조 2,484억원
- 사업내용 : 1차 금속, 조립금속 등 생산기능 확보를 위한 산단 조성

나. 개발내용

항만물류 중심인 광양항의 활성화와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1차 금속, 기계장비는 물론 신소재, 정밀화학에너지, 조립금속제품 등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 추진실태

울춘제1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생산 기능의 핵심으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3개 시의 해면을 매립하여 9,193천㎡를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다.

1992년 6월 지방산단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1994년 전라남도과 현대자동차간 대항개발 계약을 체결해 그 해 12월 착공하였으나, 1998년 IMF사태를 겪으며, 국내경제 침체와 대항개발 회사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2003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동력을 확보하였으나, 계속된 개발지연으로 2005년 12월말에 대항개발을 해제하고, 전라남도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개발에 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86%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하이스코, MPC 울춘전력 등 7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인근의 광양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단지조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 화양지구 개발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일산해양산업(주), 전라남도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등 5개리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12년간)
- 총사업비 : 1조 4,435억원(민자)
- 규 모 : 9.99km²(육지부 9.79, 공유수면 0.2)
- 사업내용 : 해양레포츠, 숙박, 휴게시설 등 종합 해양 휴양리조트 개발

나. 개발내용

화양지구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리나비치(해양스포츠), 골프아일랜드(골프), 포레스트밸리(산악레포츠), 힐탑(스포츠 훈련지), 마운틴탑(전망 휴게) 등 5개의 특색있는 지구로 구분하고,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다. 추진실태

화양지구는 국제적인 관광레저와 해양스포츠,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목표로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다.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3년 12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골프이일랜드지구가 착공에 들어가 2012년 12월 골프장이 우선 개장하여 운영중이다. 현재 화양지구 전체 개발 면적 9.79km² 중 6.78km²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화양지구 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도 77호선과 국지도 22호선 확·포장공사, 내부간선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19 황해 포승지구

가. 사업개요

- 시 행 자 : 경기도시공사(80%) + 평택도시공사(20%)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회곡리, 신영리 일원
- 개발기간 : 2008 ~ 2020
- 총사업비 : 8,458억원(국비 794억원, 지방비 794억원, 민자 6,870억원)
- 주요사업 : 특화 주거단지, 자동차부품 복합단지, 평택항자원 물류단지, 복합터미널, 외국인임대전용단지 등

나. 개발내용

- 수도권 지역의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축의 중심기능 및 대중국 상업·업무·물류기능 수행
- 또한, 주변지역 종사자 및 평택항 이용자를 위한 주거·업무지원과 함께 평택항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부가가치 물류 기능

다. 개발에 필요한 역할 및 기능

- 국제 도시·상업 기능 : 중국 관광객 및 상인들을 겨냥한 복합쇼핑몰, 비즈니스호텔
- 부가가치 물류·산업 : 물류단지, 복합터미널, 외국인 임대전용
- 국제 업무·상업 기능 : 국제 업무타운, 호텔 등 조성
- 교육·주거기능 : 도시형생활주택, 테라스하우스, 외국인학교

■ 개발구상

- 기 조성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개발하여 자동차부품 및 전자정보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 외국인 임대전용단지, 자동차 PDI(Pre-Delivery Inspection) 및 KD(Knock-Down) 센터유치
- 중국 관광객 및 상인들을 겨냥한 쇼핑몰, 호텔, 주거, 지원단지 조성으로 평택항 주변지역 중심기능 수행
- 단지 내의 종사자 및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는 쾌적한 환경의 주거단지개발을 위하여 지구 내의 물류단지와 공원으로 분리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이 되도록 계획
- 주거단지 및 산업·물류단지의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 및 생활편의시설 등의 상업기능을 주거단지 주변에 배치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

20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

가.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4-58 전면 해상
- 개발기간 : 2013 ~ 2015년
- 사업규모 : 200,000㎡, 300척 규모(거점형 기준)
- 총사업비 : 794억원(공사비 663, 설계 및 부대비 131)
- 주요시설 : 방파제, 클럽하우스, 수리시설, 계류장, 주차장 등



예정 구역도 (A=200,000㎡)



계획도면

나. 개발내용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과 대중국 교류 증가, 새만금 방조제 주변 개발로 인한 여건 변화 등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규모의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글로벌 해양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마리나를 개발하게 되었다. 마침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마리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해안 중간지점과 천혜의 자연환경 등 타 지역보다 마리나 입지에 월등한 고군산 신시도가 부각되었다. 또한, 고군산 연결도로공사가 2009년 12월 착공되면서 마리나 배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조기개발이 추진되면서 마리나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마리나(Marina)는 해양레저용 선박을 위한 항구, 항로, 방파제, 계류시설, 육상 보관시설 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시설 등을 포함한 항만을 의미한다.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변화 추이를 보면 1만불이 등산, 2만불이 골프, 3만불이 해양스포츠·승마로 볼 때 마리나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 유럽 및 미국 관광시장 중 해양레저스포츠 점유율이 40~50%에 육박하고 중국은 청도, 하문, 산야 등에 대규모 마리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마리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마리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리나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 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등 외해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서해안의 중간지점으로 중간기항지로서도 최적지인 옥도면 신시도를 마리나항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고군산 개발과 연계하여 마리나 배후시설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 1월 지정 고시된 국토해양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44개소)에 고군산 마리나항을 반영하였고 2010년 7월 고군산 마리나항을 해양레포츠 거점항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변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계획 및 재해영향을 사전에 예측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용역을 추진하여 2011년 2월에 완료하였다. 또한, 2011년 7월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고군산 마리나 시설로 91,836㎡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로 2013년 국토부 풀예산 23.2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토부 지정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만에 지정되었다(2013.3). 고군산 마리나 개발 사업은 총 663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접안시설, 호안 등의 기본시설, 매립 및 준설, 부잔교, 상하가시설 등 마리나기능시설, 등대, 오락방지막, 제경비 등의 부대시설로 조성된다. 고군산개발사업과 연계해서는 마리나 부지는 신시1지구로 해양문화체험형으로 개발하고, 신시2지구는 숲 체험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신시1지구는 고군산마리나와 고군산 해양문화 테마파크를 앵커시설로 하고 SEA빌리지, 고운퀘스트체험장, 전통어업체험장, 그리고 테마펜션단지를 주요시설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시2지구는 해양산림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앵커 시설로는 리조트형 숙박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 빌라형콘도, 캠핑장, 잠라인어드벤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리나산업은 선박 및 기자재의 생산, 서비스산업 등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집적화를 위해 새만금지구 내 조선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것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21 대구 수성 의료지구

가.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노변동, 시지동, 삼덕동 일원
- 사업기간 : 2008 ~ 2016년
- 사업규모 : 1,219,500㎡
- 사 업 비 : 7,717억원
- 사업시행자 : 대구도시공사
- 유치대상 : 의료, 교육, 문화 등 IT기반 지식서비스산업



수성의료지구 조감도

나. 추진현황

수성의료지구는 당초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수성구 대흥동, 고모동, 이천동 일원 전체 조성면적 1,789,884㎡ 규모로 의료·교육 허브로 육성하고자 해외일류 외국병원 유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단지 조성,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합되는 국제화 교육단지 조성을 목표로 2008년 5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2009년 5월 개발사업시행자 협약체결하고, 2010년 5월 개발용지 확대 및 11월 국방부 토지 제척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의한 일부 제척 결정됨에 따라 조성 면적이 수성구 대흥동 일원으로 사업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방향설정,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2012년 2월 득하고,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지구 내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여 12월 통과되었고, 사업비 마련을 위한 기채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의료, 교육, 문화 등 IT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지식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다. 추진경위

- '08. 5 :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
- '09. 5 : 개발사업시행자 협약체결(대구도시공사)
- '10. 5 : 개발계획 변경(제1차) 승인(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2호)
 - － 변경내용 : 개발용지 확대
- '10. 11 : 개발계획 변경(제2차) 승인(대구경북경자청 고시 제2010-6호)
 - － 변경내용 : 국방부 토지 제척
- '11. 4 : 개발계획 변경(제3차) 승인(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4호)
 - － 변경내용 : 규모축소(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 '11. 10 :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 조건부 : 6개월 내 실시계획승인 시 예타착수
- '11. 12 :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국토해양부 제2011-730호)
- '12. 2 : 개발계획 변경(제4차) 및 실시계획 승인(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3호)
- '12. 3 :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 '12. 11 : 간선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라. 향후추진계획

- '13. 3 : 단지조성공사 착공
- '16. 3 : 단지조성공사 준공
- '16. 12 : 사업(투자유치, 개별입주 등) 완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22 망상 플로라시티

가.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24년
- 사업규모 : 1.82km² (추가예정지 : 2단계 2.64km², 3단계 1.37km²)
- 총사업비 : 2,666억원 (국비 186, 지방비 186, 민자 2,294)
- 주요기능 : 환동해권 명품 해양관광 · 휴양도시, 세계적 화훼관광지

나. 개발내용

- 환동해권 관광 · 휴양의 거점으로 동해안 관광 벨트의 신성장동력 확보
- 경쟁력 있는 화훼산업 집적화 및 활성화로 수출 전진기지 구축
- 관광과 산업이 결합된 신개념 융 · 복합 관광단지 개발

다. 추진실태

2013년 2월 14일 지정고시된 단위개발지구로서 개발방식은 민간주도 · 민관복합개발로 추진중이며, 저렴한 지가 등 개발의 경제성이 있고 투자수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 조기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MOU 체결기업은 글로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나 다소 부진한 상황으로, 현재는 캐나다 1개사와 두바이 1개사가 망상지구 현지방문을 통해 실무협의중이며, 천혜의 관광휴양지구로서 조기개발이 기대된다.

라. 향후계획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춘 망상 플로라시티를 중심으로 4 Season Sea Land를 구축하여 강원권 관광객 2억명 시대 개척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 DMZ, 금강 · 설악관광, 알펜시아 · 용평스키장 등과 함께 선제적 관광여건 확보를 위해 비키니와 화훼실루엣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관광벨트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23 청원 바이오밸리

가.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개발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 위 치 : 청원군 오송읍 일원(KTX오송역 주변)
- 개발기간 : 2013 ~ 2020
- 총사업비 : 1조 1,883억원
- 주요 개발사업 : 신약 · 의료기기 생산 · 개발 · 연구, BT대학원, 컨벤션센터, 전시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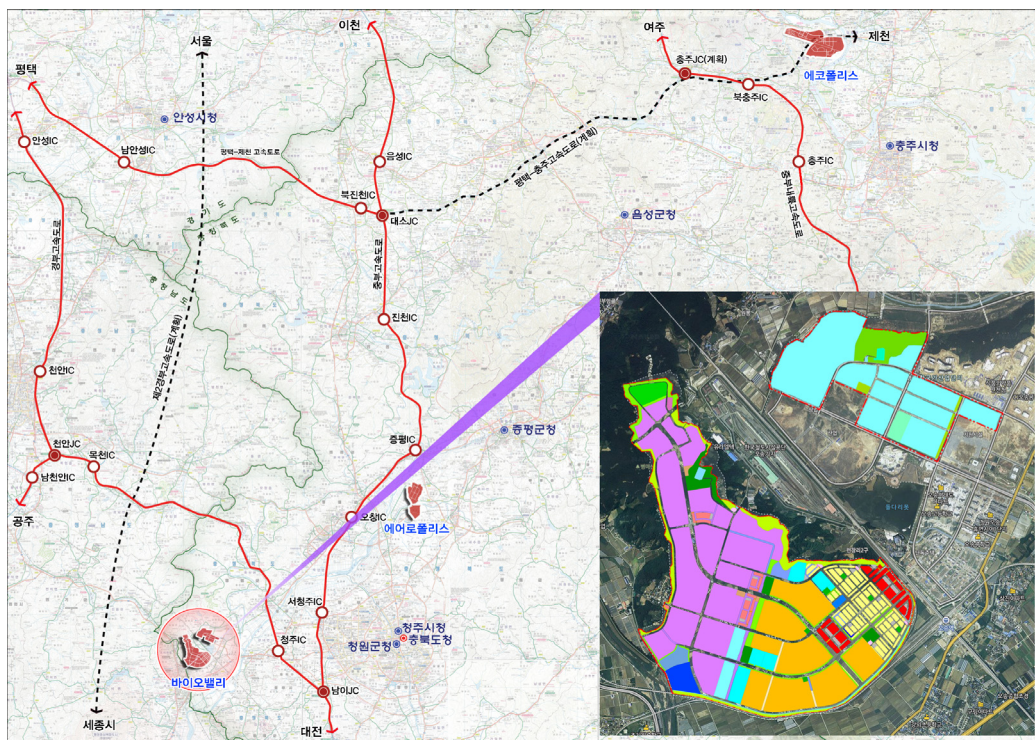
나. 개발 내용

- 면적 : 4,414,898㎡ / 사업비 : 1조 1,883억원
- 사업기간 : 2013~2020년
- 토지이용계획

구분		합계(㎡)	비율(%)
합계		4,414,898	100.0
산업물류시설용지		1,909,387	43.2
지원시설용지		55,868	1.3
상업업무시설용지		72,664	1.6
주거용지		802,141	18.2
공공시설용지	소계	1,060,477	24.0
	학교용지	100,273	2.3
	공공청사	6,695	0.2
	도로	771,096	17.5
	주차장	21,512	0.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704	0.1
	배수지	13,419	0.3
	변전소	4,577	0.1
	가압장	1,128	0.0
	사회복지시설	13,971	0.3
	종교시설	4,986	0.1
	폐기물처리시설	41,369	0.9
	유수지	47,580	1.1
	폐수종말처리시설	27,167	0.6
공원 · 녹지		514,361	11.7

다. 바이오밸리 지구별 명칭, 위치,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바이오메디컬지구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일원	1,131,054m ²
리서치 & 관광 · 비즈니스지구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 일원	3,283,844m ²



바이오밸리 위치도

24 청원 에어로폴리스

가. 사업개요

- 위치 : 청원군 내수읍 일원
- 개발기간 : 2013 ~ 2020
- 총사업비 : 1,468억원
- 주요 개발사업 : 항공물류단지(포장,재분류,하역,저장 등) 및 국제복합환승센터, 비즈니스호텔, 항공비행학교, 항공정비 학교, 역외 면세점, 항공부품 특화산업 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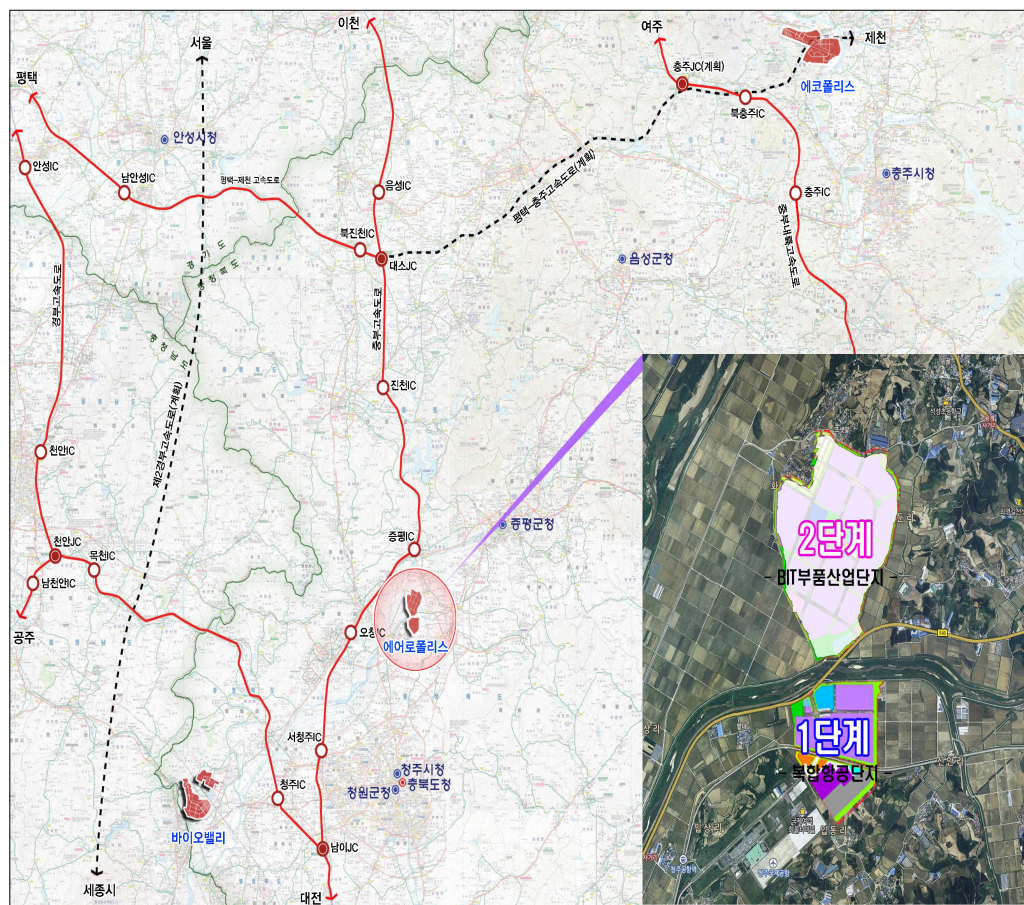
나. 개발 내용

- 면적 : 473,713㎡ / 사업비 : 1,468억원
- 사업기간 : 2013~2020년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73,713	100.0	
항공정비시설	소계	116,098	24.5	
	격납고	43,410	9.2	
	계류장	53,583	11.3	
	지원시설	12,130	2.5	
	주차장	6,975	1.5	
산업물류시설공간	소계	239,716	50.6	
	산업시설	217,338	45.9	
	연구시설	22,378	4.7	
공공시설용지	도시 기반 시설	소계	37,374	7.9
		도로	30,866	6.5
		폐수종말처리시설	3,004	0.6
		저류시설	3,504	0.8
	공원 · 녹지	소계	80,525	17.0
		공원	10,471	2.2
		녹지	70,054	14.8

다. 에어로폴리스 단지별 명칭, 위치, 면적

단지명	위치	면적
복합항공단지(1단계)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신안리 일원	473,713m ²
BIT부품산업단지(2단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일원	1,015,560m ²



에어로폴리스 위치도

25 충주 에코폴리스

가. 사업개요

- 위치 : 충주시 가금면 일원
- 개발기간 : 2013 ~ 2020
- 총사업비 : 6,591억원
- 주요 개발사업 : 자동차 관련 전장부품 및 바이오 관광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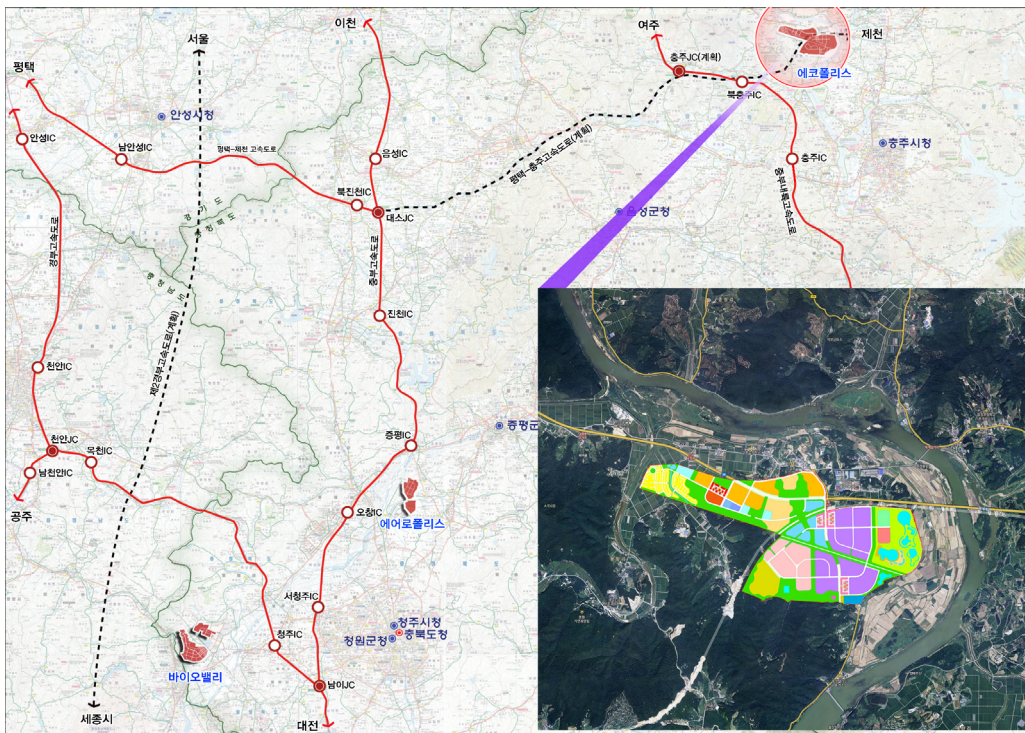
나. 개발 내용

- 면적 : 4,196,416㎡ / 사업비 : 6,591억원
- 사업기간 : 2013-2020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196,416	100.0	
주택건설용지				579,836	13.8	
상업업무시설용지				92,461	2.2	
산업유통시설용지				1,132,520	27.0	
관광시설용지				535,779	12.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855,820	44.2	
	도시 기반 시설	공원 녹지	공원	961,842	22.9	
			녹지	79,760	1.9	
		광장		3,600	0.1	
		도로		478,994	11.4	
		주차장		16,096	0.4	
		학교		59,252	1.4	
		공급 처리 시설	배수지	8,000	0.2	
			저류지	30,272	0.7	
			변전소	3,500	0.1	
			하수처리장	32,193	0.7	
		문화시설용지		12,063	0.3	
		의료시설용지		11,761	0.3	
		주유소용지		3,948	0.1	
		유보지		154,539	3.7	

다. 에코폴리스 명칭, 위치, 면적

지구명	위치	면적
에코폴리스	충주시 가금면 일원	4,196,416m ²



에코폴리스 위치도

2. 경제자유구역 추진일지

1. 인천경제자유구역

2003

- 7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8 11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
- 10 1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및 규칙 제정
-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환균 초대 청장 취임

2004

- 3 9 아일랜드 투자유치 활동
- 5 13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도널드 그레그 전주한미대사 등 참석)
- 5 18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경제자유구역 유럽투자상담회 개최
- 7 8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 개최(노무현 대통령 참석)
- 10 8 미국 샌프란시스코 ‘WCG 2004’에 참여,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상담
- 10 25 미주 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초청 투자설명회(인천 베스트웨스턴호텔)
- 11 9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 11 11 송도 국제컨벤션센터(컨벤시아) 기공식
- 12 12 인천대교 중앙 교각 사이 폭 800m로 합의
- 12 27 이해찬 총리 IFEZ 방문, 간담회 개최
- 12 30 GM대우와 자동차 성능시험장 및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 12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05

- 1 13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1 14 투자유치 강화 위해 조직개편(투자유치국을 3개과로 개편)
- 1 18 이환균 청장, 미국 IR활동(게일사, 안젤로고든사 등과 개발 프로젝트 협의)
- 2 18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기공식
- 3 8 모건스탠리, 송도국제도시에 150억원 투자 발표

- 3 22 미 부동산투자업체 엔젤로그든사, 송도 '사이버시티' 개발 참여 발표
- 4 8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공사 기공식
- 4 19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준공식
- 4 26 안상수 시장, 미국·캐나다에서 IFEZ 투자유치 활동
- 4 28 이환균 청장, 싱가포르 세계경제포럼에서 특별연설
- 5 9 홍콩, 싱가포르 투자유치 설명회
- 5 16 일본 도쿄, 오사카 투자설명회 개최
- 6 10 새 홍보관 'IFEZ 비전21'개관 (갯벌타워 21층)
- 6 16 인천대교 기공식 및 노무현 대통령 물류경제자문회의 주재
- 6 22 셀트리온, 미국 BMS에 신약 20억달러 공급 계약 체결 발표
- 6 23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1조5천억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 체결
- 6 28 인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9 5 청라지구 내 GM대우 R&D 시설 부지조성공사 착공

2006

- 1 26 송도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MOU 체결(인천시↔연세대)
- 2 6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MOU 체결
- 3 8 송도 국제학교 착공
- 3 10 한중 물류센터 착공
- 6 12 산일테크 본계약 체결
- 6 16 UN APCICT 개소(우리나라 최초 UN 기구)
- 6 16 인천대교 상부 거더 상량식(착공 1주년)
- 7 1 NEATT 및 호텔·백화점 지하부 착공
- 7 11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 7 31 셀트리온 증설부지 기공식 및 제품공급계약 체결식
- 10 27 쉐커 물류센터 준공
- 11 1 송도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공사 통합기공식
- 11 30 글로벌 비즈니스 물류파크 조성 MOU 체결(인천시↔두바이)
- 12 1 규델 공장 준공

2007

- 1 30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건립 MOU 체결

2	1	송도국제업무단지내 중앙공원 착공
2	15	나노테크닉스 착공식
2	16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공원·녹지조성공사 준공
2	28	청라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협약체결(맥쿼리-롯데건설 컨소시엄)
3	13	송도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기공식
3	21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기공식
3	27	AMB Property 물류센터 착공
4	24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명명식
5	14	일본 동경 및 오사카 투자유치 설명회
7	12	DHL 공항 물류센터 계약 체결
7	25	인도네시아 BIDA 교류협력 MOU 체결
8	27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협약 체결
8	30	(주)휴니드테크놀로지스 토지매매계약 체결
8	31	DHL 동북아허브 화물터미널 건축 공사 착공
9	1	운북복합레저단지 기반시설조성공사 착공
9	11	사이언스빌리지(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 기본협약 체결(IFEZ (재)송도테크노파크)
10	30	GM대우 청라연구소 준공
11	6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1	6	파이박스텔레메트리(주) 토지매매계약 체결
11	13	RFID/USN 관련 국내기업 씨제이시스템즈(주) 외 10개사 토지매매계약 체결
11	27	교보생명보험사와 IBM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MOU 체결(미화 1천만 달러)
12	10	송도국제업무단지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착공
12	17	영종물류복합단지 개발사업 초기 SPC 설립
12	21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SPC)
12	27	영종하늘도시 기반시설조성공사 착공

2008

1	8	AMB Property 인천물류센터 준공
1	11	인천전시장 건설 컨설팅 계약(Fiera Milano Spa)
1	14	인하대학교 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 MOU 체결

1	22	Ubiquitous Intelligence Center 건립(홍콩 AKP, 미화 8백만 달러)
1	22	청라2지구 매립 준공
2	11	이태리, Marposs사와 MOU 체결
3	7	Tomorrow City(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 기공식
4	4	이헌석 2대 청장 취임
4	30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 인천광역시의회 승인
5	14	IFEZ 문화관광 조성 기본계획 용역 착수
5	15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 승인
5	19	일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MOU체결(햇도리, 파이오락스)
5	23	한중물류센터 칭다오 사업장 건축 착공
6	11	u-IT 클러스터 지원센터 준공
6	3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6	19	IFEZ u-City 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IFEZ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20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7	3	제3차 항만자유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7	3	일본, Orix사와 MOU 체결(미화 3천만 달러)
7	5	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준공
7	11	IFEZ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7	16	Tomorrow City 로봇 서비스 시스템 개발 MOU체결(IFEZ 지경부 SKT)
7	17	아시아나 IDT 준공식
7	18	사이언스 빌리지(송도테크노파크 확대단지 R&BD 클러스터) 착공식
8	1	송도컨벤시아 준공
8	14	Digital City R&D Pilot Project 시범사업 MOU체결(IFEZ IUDC Autodesk)
8	19	우크라이나, Yuzhnoye사와 일반협약(General Understanding) 체결
8	25	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착공
9	2	RFID/USN KOREA 2009 국제행사 개최 확정
9	26	(주)케이디코퍼레이션 토지매매계약 체결
9	28	아트센터 기공식
10	16	IFEZ 2008 u-City 국제컨퍼런스 개최
10	17	RFID/USN KOREA 2009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협약식

10	16	IFEZ 2008 u-City 국제컨퍼런스 개최
10	17	RFID/USN KOREA 2009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협약식
10	24	전국경제자유구역협의회 창립회의(초대회장 : 이현석 청장)
11	03	IBM 바이오리서치 콤플렉스건축 투자계약 체결
11	04	만도, Hella Electronics Corp 자동차부품제조 및 R&D MOU 체결
11	25	베르나 바이오텍 코리아 기공식
11	26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기공식
12	10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설 준공
12	16	한국뇌연구원 유치협약식
12	23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1구간 준공
12	29	한국외국어대 송도 국제화지원 특화단지조성 MOU 체결
12	30	교보-IBM 데이터센터 착공식

2009

1	19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 준공
1	30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 착공
2	13	청라2지구 로봇랜드 조성지정 승인
3	9	(재)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협약
3	18	영종하늘도시 특수구조물(지하차도,생태통로) 설치공사 착공
3	26	송도 11공구 매립기본계획 반영 고시
4	14	미국 Cisco System사 u-City 글로벌센터 건립 협약식
4	14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MOU 체결
4	30	Bio Research Complex 조성, (주)BRC(길재단, IBM, IUDC) 설립
4	21	청라 WTC사업 사전투자설명회 개최
4	24	청라 베어즈 베스트 청라골프장 착공
4	30	151층 인천타워부지(1단계) 매립 완료
5	4	용유 · 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PMC 설립
5	6	국토해양부 2009년 u-시범도시(송도지구) 지정
5	8	조지메이슨대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5	13	청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착공
5	20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기공식
5	27	일본 교와관광(주) 운북리조트카지노호텔 토지매매계약 체결
6	1	청라지구 주운시설 공사 착공
7	1	송도 국제학교 준공
7	3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 착공
7	11	영종 하수처리시설 공사 착공
7	14	청라 로봇랜드 조성사업 (주)인천로봇랜드 법인 설립
7	15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
7	31	Tomorrow City 완공
8	7	Tomorrow City(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 개관
8	7	인천국제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개최
8	10	IFEZ 공공개발사업자(10개) u-City 민관협력법인 사업협력 MOU
8	14	조지아공과대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8	27	u-City 국제컨퍼런스 개최
9	1	공동구 건설사업 협약체결(토공↔한전)
10	6	RFID/USN KOREA 2009 국제행사 개최
10	8	송도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10	16	인천대교 준공
10	19	인천대교 개통
10	21	미국 Boeing사 항공운항훈련센터 건립 MOU 체결
10	30	송도애니파크건립 투자계약 체결
11	5	IBM Business Park 오픈
11	5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11	10	(재)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2차년도 협약 체결
12	3	용유 · 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12	9	재능대 송도 국제화캠퍼스 조성 MOU 체결
12	18	GE 글로벌 u-Healthcare R&D센터 유치 사업 협약

2010

- 2 17 LED 생산시설(Green Tech.) 건립을 위한 IFEZ와
N-Hitech&SankoDenki사 MOU 체결
- 3 3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봉헌식
- 3 5 인천대교기념관 개관
- 3 16 차세대 Green Internet Data Center 건립을 위한 인천시와
Cisco&GDSYS사 간의 MOU 체결
- 3 30 글로벌센터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위한 인천시와 Cisco사 간의 기본 협약
- 4 6 바이오단지 연구용지 계약체결(한일과학산업, 이원생명과학연구원)
- 5 1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북서수예즈만 경제구연간의 MOU 체결
- 5 18 포스코건설송도사옥 준공 및 입주
- 7 7 RFID-USN 국제컨퍼런스
- 7 26 이종철 3대 청장 취임
- 7 14 송도컨벤시아 아시아 최초 친환경 국제 LEED 인증 획득
- 8 11 송도디지털엔터테인먼트센터 투자계약 체결
- 9 3 베르나바이오텍 코리아(주) 투자계약 체결
- 9 9 일진반도체 LED 제조시설 투자계약 체결
- 9 2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유타대간의 MOU 체결
- 9 28 세브란스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인천시-연세대학교의료원 협약 체결
- 9 29 새로운 레저복합도시, 미단(MIDAN)시티 비전 선포식
- 10 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에과도로간의 컨설팅 계약 체결
- 10 2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독일 카코에너지사 간의 MOU 체결
- 11 24 (재)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3차년도 협약 체결
- 11 29 IFEZ-용유무의 PMC-중국 홍수림 MOA 체결

2011

- 3 22 경신(일본 Sumitomo)사,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 생산시설 건립 투자계약 체결
- 3 2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기본협약 체결
- 3 23 벨기에 겐트대학교 양해각서 체결
- 3 24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양해각서 체결

3	30	왕산마리나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선정(MOU체결)
4	26	미단시티 메가 쇼핑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설치 MOU체결
4	28	삼성바이오로직스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4	28	IFEZ 글로벌서비스센터 개소
5	27	삼성바이오로직스 1단계 시설 착공
6	24	미국 알프레드대학교 양해각서 체결
6	27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양해각서 체결
6	30	아이에이티(미국 P&W + 대한항공)사, 항공엔진정비센터 건립 투자계약 체결
7	1	테스코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개원
7	14	만도브로제(독일 Brose)사, 자동차용 전기모터 생산시설 건립 투자계약 체결
7	14	독일 Kaco사, 태양광인버터 생산시설 건립 투자계약 체결
7	6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구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8	1	청라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IHP)지정
8	11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공
9	1	청라지구 달튼 외국인학교 개교
10	6	독일 Rittal사, 산업용 엔클로저시스템 생산시설 건립 투자계약 체결
10	11	천진 강하이 그룹 용유무의 투자MOU (미화 1천만불)
10	24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투자유치사업 관련 우리시-우리청-(주)신세계 MOU 체결
10	25	벨기에 겐트대학교 지원협약 체결
10	26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MOU 체결
11	1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고시
11	18	청라지구 베어즈베스트 골프장 준공
11	10	2014AG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개발SPC 설립
11	20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유수면매립 도급공사 준공
12	5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인연합회 발기인 대회 미단시티 기반시설공사 완료(1단계 사업 준공)
12	16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조성 SPC 설립
12	16	미국 Boeing사, 항공운항훈련센터 건립 투자계약 체결
12	16	베올리아워터 수처리 교육훈련센터 계약 체결
12	20	자동차물류시스템 R&D센터 계약 체결

- 12 23 독일 SEMIKRON사, 산업용 인버터 및 전자부품 생산시설 건립 투자계약 체결
- 12 19 (재)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 공동연구소 4차년도 협약 체결
- 12 29 동아제약 바이오의약품 토지매매 계약 체결
- 12 29 한국외대 토지매매계약체결
- 12 30 인하대학교 토지매매계약체결(2,3단계)

2012

- 1 11 청라 중봉지하차도 개통
- 2 21 하나금융타운조성사업 투자협약(MOU) 체결
- 2 23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 2 28 연세-Paris Sud 공동프로젝트 설립
- 3 2 인천체육고등학교 청라 이전
- 3 3 한국뉴욕주립대 개교
- 3 3 연세대 국제캠퍼스 프로그램 신설(테크노아트, 아시아학부)
- 3 14 인천재능대학교와 관·학 업무협약 체결
- 3 14 시그마알드리치(美) 줄기세포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MOU 체결
- 3 22 영종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MOU체결(트리플파이브)
- 4 3 인천투자펀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 4 4 청라시티타워 복합용지 사업추진을 위한 LH와 업무협약 체결
- 4 9 청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4 11 예과도르 개발모델 컨설팅 계약 체결
- 4 21 자동차물류시스템 R&D센터 공사 착공
- 4 26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투자 MOU 체결(시저스리포 컨소시엄)
- 4 27 미국 유타대학교와 자금지원협약 체결
- 5 9 LED분야 한울정보기술 송도입주 MOA 체결
- 5 11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 5 15 영종 하늘도시 Mall of Korea와 MOA 체결
- 5 18 미국 Amkor사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제조 및 R&D 센터 건립 MOU 체결
- 5 24 U-City민관협력법인 '인천U-City(주)' 설립
- 6 8 UN지속가능발전센터 개소
- 6 12 청라 중앙호수공원 착공

6	21	BRC 연구동 준공
7	20	베올리아워터 수처리 교육훈련센터 공사착공
7	31	삼성바이오로직스 1단계 생산동 준공
8	14	커널워크 상가 이랜드 임대차 계약 체결
8	25	LED분야 한울정보기술 토지매매계약 체결
8	30	독일 BMW사 드라이빙센터 건립 MOU 체결
9	5	일본 티오케이첨단재료(주) 토지매매계약 체결
9	27	동아제약 기공식
10	10	일본 티오케이첨단재료(주) 제조 및 R&D 시설 착공
10	15	청라 주운시설(Canal Way) 통수식
10	20	녹색기후기금(GCF) 인천송도 유치확정
11	5	미단시티 국제인삼유통센터개발 기본계약 체결
11	6	청라역사 착공
11	7	BRC 아파트형 공장 준공
11	9	청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11	15	삼성바이오로직스 1단계 연구동 준공
11	15	아지노모도(日)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 유치 MOU 체결
11	19	송도 포스코자사고 설립협약체결
11	2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 1단계 1,2공구 준공
11	26	베트남 하이퐁시와 도시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11	28	이랜드 복합쇼핑몰 2차부지 매매계약 체결
11	30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FDI 5억불 신고
12	6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 SPC 설립(LOCZ코리아)
12	13	롯데마트 건축허가
12	14	자동차 촉매분야 세계1위기업 유미코사 MOU체결
12	10	독일 BMW사 서비스센터 및 복합 문화단지 건립 MOU 체결
12	11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12	14	인천투자펀드 의회출자동의 및 2013년 본예산 300억원 출자금 확보
12	17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사업협약 체결
12	24	(재)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5차년도 사업지원 약정 체결
12	24	청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2	30	자동차물류시스템 R&D센터 공사 준공
12	31	시내면세점 사전 승인(관세청)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002

- 1. 14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발표
- 4.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기본계획 확정
- 7. 29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세부실행계획 확정
- 12. 30 경제자유구역법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3

- 5. 15 부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발족
- 6. 9 경상남도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발족
- 7.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시행
- 10. 30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산 강서구 및 경남진해 일원
총 5개지역 16개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

2004

- 1. 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제·정원·조합규약 승인(행정자치부)
- 3. 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업무개시 : '04. 3. 12)
- 9.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변경 고시
- 10. 19 미국 시카고에서 북미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상 투자유치 활동
- 11. 30 르노삼성자동차 SUV개발과 신형 엔진 생산을 위한 5억불 투자유치
- 12. 2 런던 투자 설명회 - 영국 Snow-Box사와 2억불 MOU 체결

2005

- 2. 17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발족
- 3. 4 두바이에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3. 8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IM 부동산 박람회참가 투자유치 활동
- 3. 15 개청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부산롯데호텔)
- 3. 23 르노삼성과 6천억원 투자 MOU 체결
- 4. 27 (주)NK와 미국 MSC사의 합작기업인 (주)NKCF와 투자 MOU 체결
⇒ 부산과학산단 지사외투지역 최초 투자유치

- 5. 2 중국 선전, 홍콩 투자유치단 구성 ·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
- 7. 18 도시개발자문회의 구성 · 운영(14명)
- 7. 27 발저스사와 MOU 체결
- 8. 23 구역청과 KOTRA MOU 체결
- 9. 15 SKF자동차부품(주)와 투자 MOU 체결
- 9. 15 EZUMI사와 투자 MOU 체결
- 9. 24 AMT사와 MOU 체결
- 11. 15 세계투자유치기관총회(WAIPA)세미나 참석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 11. 22 (주)NKCF 공장 기공식 개최

2006

- 2. 6 경관자문위원회 발족
- 2. 20 YBS, SJ Steel, SMC사와 MOU 체결
- 3. 5 WAIPA(세계투자유치기관)총회 참가(스위스)
- 3. 13 개청 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5. 2 남산유원지 개발 Emerson Pacific(주), Morgan Stanley(주)와
1억6천만불 투자 MOU 교환
- 7. 27 신세기 SFC사와 투자 MOU 체결
- 9. 15 Balzers 공장 준공
- 9. 15 SJ Steel사 공사 준공
- 9. 27 홍콩 컨벤션센터 MIPIM(국제 부동산 박람회) 참가
- 10. 13 자동차부품업체 Visteon사와 투자 MOU 체결
- 10. 24 화전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2007

- 1. 20 하야시 텔렘푸(Hayashi tlempu)/한림인텍 투자 Mou 체결
- 3. 5 S&W/스위스 Premech사와의 투자 Mou 체결
- 3. 9 2007 세계 투자유치기관(WAIPA) 총회 참가
- 3. 9 장수만 초대청장 이임
- 3. 27 제2대 김문희 청장 취임
- 4. 11 일본투자사절단 투자설명회

- 5. 8 부산과학산단내 Visteon사 준공
- 5. 17 일본후쿠오카지역 화주(물류)기업 유치 IR
- 5. 22 부산과학산단내 SKF 준공
- 6. 18 일본 동경, 오사카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 6. 19 부산과학산단내 발저스사 준공
- 7. 13 신항 북측물류부지내 (주)부산국제물류센터(1단계 물류기업) 개장
- 7. 15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투자설명회 및 기업 방문
- 8. 28 입주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MOU 체결
- 9. 07 서부산유통단지 조성공사 착공
- 9. 30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금 지급
- 10. 19 남양지구(산업단지) 분양 공고
- 10. 29 명지국제신도시 활성화 관련 세미나 개최
- 11. 14 BJFEZ 재정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1. 23 남양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입주계약 체결
- 12. 20 가주지구 개발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12. 21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2008

- 1. 4 웅동지구 준설토투기장 협약서 체결
- 1. 14 미음지구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 22 문화지구(1단계) 실시계획 승인
- 2. 28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3. 21 개발지구별 사업시행자 간담회 개최
- 4. 10 미주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유치 관련 세미나 개최
- 4. 28 화전지구(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 5. 16 소사~녹산간 도로 1차분 준공검사 시행
- 5. 30 부품소재 전용공단 관련 세미나 개최
- 6. 11 부품 소재 정책세미나 참석
- 7. 8 문화지구 조성사업 착수
- 8. 21 석동~소사간 도로 현장설명회 개최
- 9. 1 가주지구 개발계획변경 보고회 개최
- 9. 30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 10. 8 화전지구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 3 1 「BJFEZA-KIN IT 포럼」 개최
- 11. 1 8 가달지구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 11. 1 8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세미나 개최
- 11. 2 6 소사~녹산간 도로 문화재발굴조사 변경 허가 승인
- 12. 5 소사~녹산간 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 12. 1 2 소사~녹산간 도로 설계변경 시행
- 12. 2 3 명지·가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009

- 1. 2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1. 15 의곡~과학산단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1. 22 소사~녹산간 도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2. 9 미음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 2. 12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 2. 27 보배캠퍼스지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
- 4. 1 FAU와의 실행협약 체결
- 4. 16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 6. 4 웅천지구 개발계획변경(신규) 승인 고시
- 7. 9 미음,남문 부품소재전용공단 본지정 확정
- 8. 10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용원(무학)-STX컨소시엄
- 8. 21 BJFEZ 재정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9. 4 석동~소사간 도로 실시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9. 16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
- 9. 23 남양지구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 10. 5 화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11. 20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공사 착공
- 11. 23 의곡~산단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 12. 10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12. 16 남문지구 입주기업(산일프라이메탈) 투자 MOU 체결
- 12. 29 남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2010

1. 21 의곡~산단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27 미음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 22 제2대 김문희 청장 이임
3. 15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3. 24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4. 2 웅동지구 FDI 신고 및 SPC 설립
4. 21 제3대 하명근 청장 취임
5. 3 미음산업단지 Praxair 투자 MOU 체결
5. 11 독일 FAU 부산분교 개교식
6. 18 남문지구 MOU 체결 : 썬바키모토체인 2,500만불 투자
9. 29 의곡~산단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10. 11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10. 14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0. 20 미음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10. 20 서부산유통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2. 14 부품소재전용공단 활성화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12. 15 한국썬바키모토오토토티브(주) 입주계약 체결 : 남문지구
12. 22 한일중공업-IGC사 컨소시엄 투자 MOU 체결 : 신항 물류부지

2011

1. 15 보배캠퍼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보완
3. 12 화전지구 KTMT Nuclear와 MOU 체결
4. 06 경제자유구역 구역 조정(104.8km²⇒83.1km²)
4. 06 창원국제외국인학교 설립 MOU체결(2014년 개교 예정)
5. 11 명동지구 SPC(원자력산단개발 주식회사)설립
7. 27 명지지구내 문화재구역 해제(123만m²)
8. 19 서부산유통지구 진입도로 준공
9. 05 남문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1. 10 2011년도 BJFEZ 투자유치대전 개최
12. 28 서부산유통지구 간선도로 준공
12. 28 미음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331,910m²)
12. 30 문화지구 1단계 준공

2012

- 2. 13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27 명지지구 UCLA와 MOU 체결
- 5. 11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 공사 준공
- 7. 27 BJFEZ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14.1.16)
- 8. 10 BJFEZ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준공
- 8. 10 웅동지구 Erudio Holdings USA와 MOU 체결
- 9. 30 서부산유통지구 준공 신청
- 11. 26 명지지구 LOI 1건 접수 및 MOU1건 체결
- 12. 6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2. 11 명지지구 Brighton College(K-12) MOU 체결
- 12. 13 신항북측배후지 사업 준공 신청
- 12. 19 명동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2. 21 명지지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003

4	1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발주(국토연구원)
6	1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연구자문단 구성·운영(12명)
7	1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전라남도 → 재정경제부)
8	8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정원 승인 신청(전라남도 → 행정자치부)
10	30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재정경제부)

2004

1	2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구·정원 승인(행정자치부, 158명)
3	2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구성(11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백옥인 청장(초대) 취임 하동지소 개소
3	2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4	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완료(5개 지구 24개 단지 88.98km ²)
5	14	(주)일상과 MOA체결
7	13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 이용촉진 투자협약 체결
10	29	광양항 2-2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준공

2005

3	24	개청 1주년 기념식 순천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착공
4	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재정경제부)
5	25	2005년 OECD 해운위원회 정부대표(청장) 참석
5	26	기구개편 및 정원 변경 승인(행정자치부, 159명)
6	10	광양항 마린센터(Marine Center) 착공
7	4	POSCO LNG 터미널 준공
7	22	GFEZ CI 개발
7	29	GFEZ CI 지적재산권 특허 출원
8	3	대일 직항로(광양~일본 오사카항) 개설
8	29	한국발명진흥회와 MOU체결
9	5	국제수산물유통단지 조성 MOU 체결(라보은행, 대림산업)
9	20	GFEZ 저널 창간
10	26	POSCO CTS터미널 준공
10	27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회원사 및 주한외교관초청 설명회
12	30	울촌 제1산단 조성사업 현대자동차(주) 대행개발계약 해제

2006

- 3 7 광양~중국간 항로 취항(장금상선)
- 3 24 개청 2주년 기념식 및 「GFEZ 2020 VISION」 선포
페로니켈 제련공장(POSCO+SMSP社) MOU 체결
- 4 19 K-STC 광양캠퍼스 설립 MOA체결
- 4 25 화양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5 26 울촌 제Ⅰ산단 폐기물매립장(1단계) 준공
- 6 22 POSCO 마그네슘 판재공장 설립 MOU 체결
- 7 26 미국 체사피크社 MOU 체결
- 8 8 POSCO 마그네슘 판재공장 착공
- 9 5 (주)알덱스 착공
- 12 13 현대스틸산업(주) MOU 체결
- 12 27 (주)한국자동차무역센터 MOU 체결

2007

- 2 22 삼우정공(주) MOU 체결
- 3 23 개청 3주년 기념식
- 4 4 원거리 주민편의를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
- 5 4 멕시코 폴리마 주지사 면담
- 5 17 「2007 부품소재국제포럼」 개최
- 6 8 주한 외국투자기업인 및 외국사절 초청 정부혁신 성과 설명회
- 6 18 「KOTRA 공동 대일 투자설명회」 개최
- 6 21 일본 물류 및 화주기업 관계자 초청 GFEZ견학
- 6 21 의료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6 27 (주)오리엔트조선과 투자 MOU 체결
- 7 10 컨부두공단 입주식 및 판옥선 진수식
- 7 13 2007년도 한국선급, 주요선사 사장단 간담회
- 7 27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준공식
- 8 7 해룡산단 투자 MOU 체결식
- 8 8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투자 MOU 체결
- 8 22 해양수산부와 울촌 제Ⅱ산단 공동개발 협의
- 8 31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 투자협약서(MOA)체결
- 9 6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준공식
- 9 7 한국물류협회 회원사 CEO 초청 간담회
- 10 17 프랑스 상공회의소 연합 총괄이사 면담

- 10 17 기업은행과 금융협약 체결
- 11 21 조선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2008

- 1 21 창원엔지니어링, 대경기계기술 투자 MOU 체결
- 1 2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변경)용역 최종 보고회
- 1 29 여수 화양지구 기공식
- 3 24 개청4주년 기념식
- 3 25 (주)일진 글로벌 투자 MOU 체결
- 4 18 울춘 제Ⅰ산단 (주)오리엔트 조선 착공식
- 4 21 미 하원의원 및 AMMO 대표 면담
- 5 2 제11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단체상 수상
- 5 15 국민은행과 금융협약 체결
- 6 12 한독상공회의소(KGCCI) 사무총장 방문
- 6 13 울춘 제Ⅰ산단 삼우중공업 기공식
- 6 20 미 해상수송사령부 극동사령관 면담
- 6 26 해룡산단 2단계 개발사업 협약 체결(대우건설 외 1)
- 7 23 포스코 광양 후판공장 착공식
- 7 31 한독상공회의소(KGCCI) MOU 체결
- 9 5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10주년 기념행사
- 9 9 KOTRA 해외무역관 관장 초청 설명회
- 10 9 전남테크노파크 마그네슘 생산동 준공식
- 11 3 페로니켈 제련공장(SNNC) 준공식
- 11 21 (주)나라판넬 제3공장 준공식
- 12 18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2단계사업 준공식

2009

- 3 17 황금산단 사업시행자 공모에 따른 사업 설명회
- 3 25 제2대 백옥인 청장 취임
- 3 27 개청 5주년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 4 17 신대배후단지 외국의료기관 유치 MOU 체결
- 4 28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협력 투자환경설명회
- 5 4 아그리알파사와 MOU 체결
- 6 18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초청 투자설명회

7	6	AUK 분교설립 설문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7	23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 최종보고회
8	25	STC-K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9	10	울촌산단 협의회 창립총회 및 헌판식
10	7	두우배후단지 개발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11	4	제3회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11	18	(주)표성엔지니어링과 투자유치협약(MOU) 체결
12	3	울촌제 I 산단 입주투자협약 체결
12	21	일본 에이와국토환경(주)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

2010

1	21	레저보트 건조 클러스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개관
2	18	대송산업단지 투자환경 설명회
2	23	하동지구 갈사조선산단 기공식 개최
3	22	제3대 최종만 청장 취임식
4	21	제6회 광양항 국제포럼 개막 및 광양~서일본간 카페리 항로 개설 MOU 체결
5	13	광양항 동측배후지 특급호텔 투자협약 체결
6	30	주한 외신기자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
8	24	광양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투자협약(MOU) 체결
8	26	일본 (사)오사카능률협회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9	28	개발사업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10	18	외투기업 출입국업무 행정지원 MOU 체결
11	1	중국 간저우시 인민정부 관계자 초청 투자설명회
11	24	신대지구 외국인 학교 설립 MOU 체결
12	17	황금산단(1단계) 투자향해각서(MOU) 체결

2011

1	21	울촌제 I 산단 행정구역 조정 관련 입주기업 간담회
2	17	울촌제 I 산단 입주기업 투자협약 체결
3	21	(주)엘티아이 준공식
3	28	호남권역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 전략 워크숍 개최
4	14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약정서 체결
4	20	주한 외투기업인 및 대사관 초청 투자설명회

4	29	순천 ~ 완주 고속도로 개통
5	12	일본 세츠스이토 신용금고 관련기업 투자간담회
6	7	포스코 합성천연가스(SNG) 플랜트 착공식
6	14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창립 총회
8	19	여수광양항만공사 창립
8	24	광양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개소
9	19	포스코 SNNC 증액투자 및 투자협약 체결식
9	23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협약 체결
10	5	전라선(익산~여수) 복선전철 개통식
11	15	대련창성도 경제기술개발구 관리 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11	29	전남 최초 외국인학교(메이플립) 기공식
12	7	세풍 및 황금산단 조성사업 실시협약(MOA) 체결

2012

1	11	울촌제Ⅱ산단 주주협약
1	11	모스크바대학 부설 『사이언스파크』 분원 유치 사업제안서 발표회
1	12	순천대학교와 업무지원 협약 체결
2	15	기업지원시책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2	28	여수디오션리조트 개관
3	6	순천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3	6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유치방안 용역 최종보고회
3	19	신덕지구 신소재 생산 대기업 투자협약 체결
7	3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투자협약 체결
7	6	제4대 이희봉 청장 취임
7	24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사업자 투자협약 체결
7	24	일본 도쿄 철강기업 투자협약 체결
8	29	대만국제물류 및 공급연협회간 상호협력 협약 체결
10	16	광주은행 업무협약 체결
11	29	조선 및 해양플랜트 유럽 투자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12	13	(사)한국캠핑협회와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4. 황해경제자유구역

2005

- 1. 27 충남 · 경기 兩道간 상생발전협약 체결
- 5. 30 ~ 9. 16 황해경제자유구역(FEZ)타당성조사 용역
- 10. 26 ~ 12. 27 황해FEZ 개발계획 연구용역(산업연구원)

2006

- 4. 20 황해FEZ 지정신청(충남 + 경기)

2007

- 8. 17 FEZ추가지정 계획발표(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11. 18 경제자유구역추가지정 외부평가단 현지실사(송악 · 포승지구)
- 12. 21 예비후보지 선정(충남 3개 지구, 경기 2개 지구)

2008

- 1. 9 황해FEZ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남 · 경기 협약체결
- 3. 24 황해FEZ 지정신청(보완)
- 4. 16 황해FEZ청 설립 · 운영관련 兩道 협약체결
- 4. 25 황해FEZ 지정(관보고시 : 08. 5. 6)
- 5. 6 개발계획 주민 열람(14일간, 道 · 시군 · 면사무소)
- 5. 20 조합규약 도의회 의결(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 : 5. 21)
- 6. 3 기구 · 정원 행정안전부 승인(요청149명 → 승인129명)
- 6. 10 조합규약 행정안전부 승인
- 7. 14 송악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예비선정(당진테크노폴리스 SPC)
※ SPC : 한화60% + 당진군15% + 충남개발공사15% + 산업은행10%
- 7. 18 제1회 조합회의(19명) : 의장선출, 제규정 제정, 예산의결 등
- 7. 22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당진문예회관)
- 9. 26 제2회 조합회의(규정 개정, 양도 예산요구안 심의)

- 10. 27 제3회 조합회의(행정사무감사, 제1회 추경)
- 12. 29 송악지구 개발사업 협약체결(당진테크노폴리스)
 - 당진테크노폴리스(SPC) : 한화65% + 당진군20% + 산업은행15%
 - ※ '10. 7.5 : 송악지구 조성사업 추진 유보요청(한화 → 황해청)

2009

- 4. 18 상해 국제 자동차 박람회참가
- 4. 22 하노버 박람회 참가
- 6. 9 중국 가림그룹 LOI 접수
- 7. 7 (주)더갤러리 LOI 접수
- 8. 13 엠버서더 호텔 MOU 체결
- 10. 14 아시아태평양 호텔투자 컨퍼런스 참가
- 10. 22 독일 Finsterwalder MOU 체결
- 11. 11 미국 CHAES FOOD, LLC MOU 체결
- 12. 09 KOREA Bio - Biz Day Osaka 박람회 참가
- 12. 31 포승·인주지구 기본협약 체결
 - ※ 포승 : LH 75%, 경기도시공사 20%, 평택도시공사 5%, 인주 : LH 100%
 - '11. 4.18 : LH공사 포승·인주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포기 통보

2010

- 1. 18 미국 코업피엠씨 MOU 체결
- 3. 8 물류관련 중국지역 해외 IR
- 4. 12 APAIE 컨퍼런스 참가
- 5. 3 바이오USA 2010 참가
- 7. 12 IAAPA 아시안엑스포 및 복합 리조트 개발 컨퍼런스
- 9. 17 네덜란드 ELECTUDE MOU 체결
- 10. 26 상하이 EXPO 연계 IR
- 10. 29 바이오 JAPAN 2010 전시회 참가
- 11. 30 향남지구 개발사업 제안서 접수(M사 → 황해청)
 - '11. 4.27 : 향남지구 사업시행자 불가 통보(황해청 → M사)
- 11. 30 ~ '11. 4. 28 송악지구 사업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1

- 3. 27 ARDA 컨벤션 엑스포 참가
- 4. 16 독일 실리콘 PV 컨퍼런스참가 및 IR
- 6. 14 홍콩 싱가포르 잠재투자기업투자유치
- 6. 26 미국 바이오박람회 참가 및 IR
- 6. 29 송악·인주지구 구역조정관련 충남도지사주제 주민간담회
- 7. 4 충남대학병원, (주)동부익스프레스, (주)대우로지스틱스, 비아이디씨(주), 선진통운(주), (주)유성티엔에스, (주)한진, (주)HTC MOU 체결
- 9. 26 현대산업, 에버솔라에너지, (주)이노메이트 LOI 접수
- 10. 19 개발계획 변경 신청(황해청 → 지식경제부) : 구역지정 변경(축소)
- 11. 14 미국 ENC, Inc MOU 체결
- 11. 24 중소기업중앙회 개발관련 MOU 체결
- 12. 08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 : 면적 축소 조정
※ 5개 지구(송악, 인주, 지곡, 포승, 향남) → 3개 지구(송악, 인주, 포승)

2012

- 1. 17 ~ 1. 30 포승·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 1. 20 ~ 2. 03 송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 2. 13 송악·인주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 모집공고(2차 : 7.04, 3차 : 9.26)
- 2. 15 (주)금강오토텍 MOU 체결
- 2. 16 정우플라스틱 MOU 체결
- 2. 28 송악·포승·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신청(황해청 → 지식경제부)
- 3. 9 부공산업(주) MOU 체결
- 3. 16 (주)서영 MOU 체결
- 3. 29 중국 성용광전 MOU 체결
- 4. 05 프랑스 대경에너지 MOU 체결
- 4. 13 K社 MOU 체결
- 5. 22 YESFEZ개발사업자 발굴을 위한 투자설명회 및 기업방문
- 5. 30 한중투자협력위 참석

6. 2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송악·포승·현덕지구)
7. 10 『황해경제자유구역(경기지역) 개발 전략 및 계획 연구용역』 착수
※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필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감소 노력, 상업시설 활성화 노력 등
7. 17 중국 (주)이노메이트 MOU 체결
8. 8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송악·포승·현덕지구)
8. 9 한중지구 사업시행자 조기발굴 System 구성·운영계획 수립
8. 13 송악·포승·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지식경제부)
※ 단위개발사업지구 분리 : 포승지구 → 포승지구, 현덕지구, 한중지구
8. 22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황해청) : 포승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8. 24 포승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 완료
- 협약기관(5) : 경기도, 평택시, 황해청,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9. 10 ~ 9. 24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9. 27 송악지구 개발사업 제안서 접수(S사 → 황해청)
10. 23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황해청 → 지식경제부)
11. 01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자문(인주지구)
11. 12 북미2012 지자체 통합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11. 13 포승지구 실시설계 용역착수(경기도시공사)
11. 30 미국 Quieside Corporation LOI 접수
12. 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주지구)
12. 17 송악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방문

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12	31	시내면세점 사전 승인(관세청)
2012		
2002		
4	16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남부내륙축 반영 건의
9월		군산지역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연구용역(산업연구원)
2003		
7	16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6	3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보완 제출(법률기준요건 구비)
2004		
10 ~ 12월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군산발전포럼)
7 ~ 9월		외국인투자자 설문조사 실시
8	8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자료 제출요구(경제자유구역기획단)
10	20	제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신규지정 검토 논의
2007		
2	1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검토 계획 발표(재경부장관)
2	9	군산경제자유구역 보완 용역 협의회 개최
7	24	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 발주
8	8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공청회(서울교육문화회관)
8	17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계획 발표(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8	24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계획 통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10	3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
11	.11	신청지역 통합설명회(재경부 주관)
11	18	외부전문가 평가단 심사위원 현지실사
12	21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대상지역 선정결과 발표(재경부)

2008

- 1 ~ 4월 중앙 관계부처 협의
- 1. 2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구성(단장 3급 / 21명)
- 4. 23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방안 보고(지식경제부 → 청와대)
- 4. 25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관보고시 : 2008. 5. 6)
- 7. 10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공포
- 8. 20 초대 이춘희 청장 임명
- 8. 28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9. 24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한국농어촌공사)
- 12. 23 새만금지구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전북개발공사)

2009

- 3.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1.9km²) 매립 착공
- 3. 16 SGFEZ-KOTRA 간 MOU 체결
- 3. 27 새만금산업단지 기공식
- 7. 1 군산제2국가산단 내 조선업협력업체 JY중공업 준공
- 7. 29 SGFEG 입주기업 금융지원협약 체결
- 8. 14 전북대학교와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 8. 29 명품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 및 투자유치 심포지엄 개최
- 9.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국도4호선) 착공(익산지방국토관리청)
- 9. 1 개발계획변경 및 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
- 9. 21 중화권(홍콩, 싱가포르, 타이베이, 심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10. 8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 10. 21 새만금산업지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10. 26 농어촌공사 공동 새만금산업지구 투자설명회 개최
- 11. 23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지식경제부, KOTRA 공동)
- 11. 24 군산2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중부발전소용지를 공장용지로 변경)
- 12. 10 새만금관광단지 기공식
- 12. 15 SGFEZ 홍보전시관 및 청사신축 기공식

2010

1. 고군산 마리나항만개발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2. SGFEZ-KOTRA 해외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2. 왕십중공업 및 왕십테크놀로지(주) 등 4대기업 MOU(2012년 완공)
3. 4 ~ 9 미국 뉴욕 방문 투자유치 활동
3. 18 경영자협의회 2010년 SGFEZ 주요업무계획 설명
4. 군산배후지구 제척
4.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 구상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추진
5. 14 외국투자기업 초청 포럼 및 투자상담회 참가
6. 14 ~ 18 화상자본 투자유치설명회 및 개별상담회 참가(대만, 홍콩)
7. 23 덕신하우징(주) MOU('12년 완공)
7. 19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8. 11 국무총리실 주관 복합도시 개발 부처협의회 참석
8. 17 OCI(주) 투자협약 체결
9. 27 ~ 30 SGFEZ-KOTRA 연계 해외투자유치 IR 참가
10. 13 국무총리실 주관 새만금 복합도시개발 부처협의회 참석
11. 2대 이명노청장 취임
11. 2 ~ 3 2010 FIW(Foreign Investment Week) 참가
11. 10 ~ 11 미핼아시아(MIPIM ASIA) 참가

2011

1.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및 제안공모 추진(~2012.3)
3.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확정
3. 18 송전선로 건설사업 착공
3. 24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일반공모
4. 배후지구 제척
4. 산업단지 1공구(1.9km²)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
4. 20 OCI 가계약 체결('13.3.27 본계약체결)
6. 1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전주지방환경청)

- 6. 빈해신구와 우호협력 체결 및 북경청년보와 협무협약 체결
- 7. 15 군산2국가산업단지 명칭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85호)
- 7. 29 고군산마리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국토해양부)
- 8. 고군산군도지구 전력공급시설(육지화) 완공
- 10. 대한마리나산업 진흥회 ⇔ 경제청간 업무협약 체결
- 10. 14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제안공모
- 10. 18 (주)태원아이엔씨 및 우성정밀공업사 MOU 체결
- 11. 지식경제부 “새만금지구 중국특화벨트 프로젝트” 선정(1.9억원 확보)
- 11. 24 새만금 관광단지 Gateway 매립공사 준공(1.0km²)
- 12.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 착공(2.55km², 1,169만m³)
- 12. 세원셀론텍 완공(2010.11 MOU 체결)

2012

- 3.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1.9km²) 매립 완료
- 3. 군산제2국가산업단지(5.6km²) 종합보세구역 지정
- 3. 새만금 가스공급소 예비타당성 면제결정(기재부)
- 3. 9 ~ 17 새만금관광단지 타당성 용역 연계 싱가포르, 호주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 3. 13 고군산군도 개발계획 변경 용역 착수
- 4. 26 대림 C&S(주) MOU
- 5. 7 ~ 11 중화자본 투자유치 활동(중국 소주·북경·천진)
- 5. 24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본평가(1위 504백만원 확보)
- 6. 생활용수 배수관로사업 발주(군산시)
- 6. 22 새만금관광단지 개발 추진계획 확정
- 7. 10 ~ 13 홍콩·마카오 등 IR 및 잠재투자기업과 투자면담
- 7. 12 삼부토건(주) MOU
- 8. 6~7 중국 산동성 20개 기업 초청, 현장 설명회 개최
- 9. 17 (주)세대에너텍 등 6개 기업 MOU 체결
- 11. 7 (주)에스엔씨 등 6개 기업 MOU 체결
- 12. 국토부 마리나 기본조사 설계비 2013년 국가예산반영(풀예산 23.2억원)

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2007

- 8. 17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발표
- 8. 27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공동추진 합의
- 10. 30 재정경제부(현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 12. 21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 선정(대구시 및 구미,영천,경산시 일원 10개지구)

2008

- 1. 7 경상북도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발족
- 1. 21 대구광역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발족
- 1. 30 포항지구 확대 추진계획보고(재정경제부)
- 3. 24 포항지구 개발계획 최종 확정
- 4. 25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지식경제부)
- 5. 6 지식경제부에서 대구광역시 및 경북 포항, 구미, 영천, 경산시 일원 총 11개지구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
- 5. 2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을 시·도의회에서 의결
- 6.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승인(행정안전부)
- 7. 31 박인철 초대 청장 임명
- 8. 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개최
- 10. 1 ICT Park 개발 및 투자유치 모색 워크숍
- 10. 4 독일 Real Expo(부동산 박람회) 참가
- 10. 14 해외(중국,싱가폴) 선진사례 해외연수(15명)
- 10. 22 대구 국제자동화기기전(EXCO) 홍보관 운영
- 10. 24 세계한인경제인대회(포항) 홍보관 운영
- 10. 27 제3회 조합회의(규정안 6건 심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11. 3 구역청 조직개편(민원부+개발관리부 → 개발1·2부, 포항지소 폐지, 서울사무소 신설)
- 11. 7 구역청 도시개발자문위원회 구성(26명)
- 11. 12 구역청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14명)
- 11. 13 2008 주거환경 및 도시디자인박람회 홍보관 운영

- 11. 13 『DGFEZ-인도 구자라트 GMC』 업무협약 MOU 체결
- 11. 18 『경북권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투자유치전략』 심포지엄
- 11. 19 일본지역 투자유치 Road Show 개최
- 11. 20 수성의료 · 국제문화산업지구 투자유치전략 영역
- 12. 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CI' 완료 보고
- 12. 17 수성의료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투자유치 전략수립 워크숍
- 12. 28 경북지역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종합토론회(경주)
- 12. 29 영천하이테크파크 성공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9

- 1. 8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성공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개발 협약 체결
- 2. 13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공 추진'을 위한 수성의료지구 양해각서 체결
- 2. 19 DGFEZ-FORCA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 20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성공 추진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
- 3. 13 대구테크노폴리스 기공식
- 3. 16 DGFEZ,YESFEZ,SGFEZ와 KOTRA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 16 2009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홍보 부스
- 5. 15 직원단합대회(팔공산)
- 5. 25 대구테크노폴리스 대학캠퍼스 조성 협약 체결
- 6. 17 2009 DGFEZ지식포럼 개최
- 6. 22 청장,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 8. 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 기념식
- 8. 18 (주)글로실 공장 및 본사건립 MOU체결
- 8. 31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범
- 9. 18 직원 워크숍'DGFEZ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 9. 21 DGFEZ-다쏘시스템간 MOU체결
- 10. 30 DGFEZ 영천첨단산업단지 기공식
- 11. 9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설립 MOU체결
- 11. 17 DGFEZ,UAB,DGIST간 MOU체결
- 12. 30 포스코파워 투자양해각서 체결

2010

1. 20 재구 외국기업 CEO 초청 DGFEZ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3. 12 다쏘시스템 Daegu R&D Center 본 계약 체결
5. 26 DGFEZ 2010 Roundtable 개최
5. 27 DGFEZ-WTC간 양해각서 체결
6. 3 프로야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날 행사(청장 시구)
6. 9 2010 다쏘시스템 컨퍼런스
6. 23 Kit산학연 포럼
8. 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2주년 기념식
10. 1 직원 워크숍(문경STX리조트)
10. 27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대구테크노폴리스)
11. 12 제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개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11. 25 미래형 자동차 세미나(서울팔래스호텔)
11. 26 DGFEZ 명품도시 세미나 개최(인터볼고 엑스코)
12. 8 중국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특강(닥터 시아, 20층 대회의실)
12. 9 한-EU 산업협력의 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최고 지자체상 수상(서울신라호텔)

2011

2. 17 국제의료연구협회(IMRA) 학술 세미나(사이먼호켓 프리젠테이션)
2. 23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현장방문(대구테크노폴리스)
2. 24 캐나다가업 유치 투자설명회 개최(사이먼호켓 프리젠테이션)
3. 10 영천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20층 대회의실)
3. 11 현대자동차그룹 IHL(주) 투자협약 체결
3. 22 2011년도 상반기 신규 파견직원 교육
4. 25 비슬산 참꽃 축제 연계 한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홍보
5. 11 일 다이셀(주) 사장단 일행 구역청 방문
5. 27 경산지식산업지구 성공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6. 8 다쏘시스템 3DS KOREA FORUM(대구EXCO)
7. 29 제1대 박인철청장 퇴임

- 8. 4 제2대 최병록청장 취임
- 8. 12 개청3주년 기념세미나(삼성금융플라자 대회의실)
- 9. 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응원
- 9. 2 DGFEZ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대구그랜드호텔)
- 9. 6 경주엑스포 참관
- 9. 15 중국기업CEO 유관기관 초청 투자환경 설명회(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 10. 13 '코트라한국어과정수강생' 구미디지털산업지구 현장학습(구미해마루전망대)
- 10. 21 제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 개최 기념촬영(인천경제자유구역청)
- 10. 28 2011행정산업정보박람회 DGFEZ 부스 개설(대구EXCO)

2011

- 11. 24 경상북도,영천시,DGFEZ와 (주)다이셀 간 투자양해각서 체결
- 11. 25 지역의료산업발전 전략포럼 개최(이민화 의료산업 전문가 초청)
- 12. 8 JV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대구노보텔)
- 12. 28 한국형 디지털병원 수출조합과의 MOU체결(대구광역시청)
- 12. 28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위한 항공전문가 초청 토론회
- 12. 29 일본 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과의 MOU체결(대구광역시청)

2012

- 1. 27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투자유치 회의
- 2. 3 경산자식산업지구 개발 주민 설명회
- 2. 7 KNT나카무라토메정밀공업 대구 방문
- 2. 17 대경권 JV희망기업 수요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 3. 21 IAM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보고회
- 3. 28 독일부품소재기업, KITIA관계자 간담회
- 4. 10 주한 일본계 은행 기업 CEO 투자환경설명회
- 4. 30 섬유패션디자인 전문가 포럼
- 5. 10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기공식
- 5. 16 다쏘시스템 아시아 CFO 내방

- 5. 18 프랑스 포레시아 투자양해각서 MOU체결
- 5. 30 주한 캐나다 대사 및 수석 상무관 내방
- 7. 5 대경권 JV희망기업 수요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 7. 9 대구시·경자청·SMEC 투자양해각서 MOU체결
- 7. 10 다이셀 가공식
- 7. 12 외국기업 투자유치 유관기관 투자양해각서 (MOU)체결
- 10. 11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투자설명회
- 10. 17 주한 핀란드 대사관 방문

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2009

11. 3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2010

5. 12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보완계획서 제출
5. 27 경제자유구역 평가단 사전 현지실사(평가위원 2, 지경부 2)

2011

3. 15 '10년도 정부 사전평가에 따른 보완(안) 제출
4. 28 '11년 경자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정부평가 통합설명회 개최
5. 04 '11년 경자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정부평가 현지실사
10. 31 '11년도 정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계획서 제출

2012

3. 15 '12년도 개발계획 변경·보완(안) 제출(15.9km²→14.67km² 조정)
3. 27 '12년 경자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정부평가 통합설명회 개최
4. 17 '12년 경자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정부평가 현지실사
7. 02 '12년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추가보완 요청)
8. 11 '12년도 정부평가에 따른 보완(안) 제출(14.67km²→8.61km², 5개지구→4개지구)
9. 25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및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
9. 28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개발계획(안) 부처협의 요청
11. 29 경자구역 지정(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차 심의(보완후 재심의)
12. 12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농지분야 협의 완료
12. 13 경자구역 지정(안)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해양부) 승인
12. 28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2013

2. 4 지경부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추가지정 의결
2. 14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지경부고시 제2013-35호)

8. 충북경제자유구역

2007

- 12. 11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착수

2009

- 6. 29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2010

- 2. 9 대통령님 충북도 방문 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시
- 5. 10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제출

2011

- 1. 31 지경부, FEZ 지정신청 관련 개발계획(안) 보완 요청 통보
- 3. 15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안) 제출
- 4. 28 지경부 민간평가단, 추가지정 관련 통합설명회 개최
- 5. 3 지경부 민간평가단, 충북경제자유구역 현지실사
- 7. 18 지경부, 민간평가단 평가결과 통보

2012

- 3. 16 충북FEZ 개발계획 수정(안) 지식경제부 제출
- 3. 27 지식경제부 민간평가단 통합설명회 개최
- 7. 2 지경부,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8. 30 지경부, 충북FEZ 개발계획 수정(안) 제출
- 9. 7 오송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 지경부 제출
- 9. 10 지경부, 충북도에 9월 18일한 민원 해결 요구
- 9. 10 오송역세권 비상대책위 간담회 개최

- 9. 12 지경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까지 오송역세권 민원해결을 약속하는 확약서 제출
- 9. 19 오송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결렬
- 9. 20 지경부, 충북FEZ 개발계획 수정(안) 제출
- 9. 25 지경부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확정)
- 11. 29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차)
- 12. 4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 12. 13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2차)

2013

- 1. 23 지경부,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최종(안) 제출
- 2. 4 지경부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2. 14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 고시(관보 제17951호)



발 행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발 행 인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발 행 일 2013년 12월 30일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전 화 044)203-4616

F A X 044)203-4703

만 든 사 람 들

총 괄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성진

집필총괄 : 정책기획팀장 박재영

기 획 · 편 집

정책기획팀 : 김범수, 최윤석, 강환일, 임경숙, 이서진, 류영용, 박덕호, 염정아

지식서비스투자팀 : 김동곤, 권영무, 윤선민, 최병세, 최승민, 홍승영, 이안영

GCF지원팀 : 김태성, 백종승

산업물류투자팀 : 이병갑, 서성민, 성흥택, 양용태, 이미진

개발지원1팀 : 손경운, 최영수, 류태선, 이태수, 도중선, 박철용, 이종필, 임근모, 권민성

개발지원2팀 : 전종성, 이창원, 고명석, 정명섭, 최삼일, 송홍식, 남동경, 정미경

인 쇄 처 (주)나모기획 02)503-5454